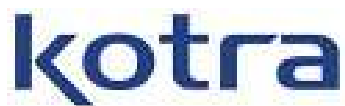


요르단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1. 국가개요 /1
2. 정치사회동향 /2
3. 한국과의 주요이슈 /9

II. 경제

1.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12
2. 주요 산업 동향 /18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22

III. 무역

1. **교역동향**
수출입 동향 /26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27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수입규제제도 /29
대한수입규제동향 /30
관세제도 /30
주요인증제도 /31
지적재산권 /34
통관운송 /35

IV.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 투자환경 /37
- 외국기업 투자동향 /39
- 우리기업 투자동향 /40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 주요 투자법 내용 /40
- 진출형태별 절차 /43
- 투자입지여건 / 47

3. 사업관리

- 노무관리 /52
- 조세제도 /55
-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56

V. 기타 유용한 정보

- 1. 시장특성 /57
- 2. 물가정보 /59
- 3. 바이어발굴 /61
-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 61
- 5. 무역, 투자 진출시 애로사항 /66
-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66
- 7. 이주정착 가이드 / 69
- 8. 출장가이드 /73



1992 MAGELLAN Geographix Santa Barbara, CA (800) 929-4627

1.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사항

국명	요르단 왕국 (HASHEMITE KINGDOM OF JORDAN) * 현지어명: Al Mamlakah Al Urduniyya Al Hashemiyah
위치	중동 아라비아 반도 서북쪽 (동쪽으로 이라크, 서쪽으로 이스라엘, 남쪽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북쪽으로 시리아와 각각 접경)
면적	89,213 s/ km (한반도 남한보다 조금 작음)
기후	반 건조 지중해성 기후 (여름에 덥고 건조하며 겨울에 춥고 비가 옴)
수도	암만 (Amman)
인구	560만명 (2006년)
주요도시	Amman (217만명), Irbid (100만명), Zarqa (83만명), Balqa (38만명) 등
인종	아랍 족 (인구구성은 대략 요르단계가 40%, 팔레스타인계가 60% 차지)
언어	아랍어
종교	이슬람교 (순니파: 92%), 천주교 및 그리스 정교 등 (8%)
건국(독립)일	1946년 5월 25일 (영국의 위임통치로부터 완전 독립)
정부형태	입헌군주국
국가원수	압둘라 국왕(King Abdullah ibn Hussein al-Hashemi) 취임일: 1999년 2월 7일 임기: 종신(국왕이 실권자임)

자료: 요르단 재무부 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ulletin (2007.8월) 및 통계청

나. 경제지표

GDP (2006, 명목)	JD 10,109 (US\$ 14,278백만)
GDP 성장률(2006, 실질)	6.4% *2005년: 7.2%
1인당 GDP (2006)	JD 1,805 (US\$ 2,549)
실업률 (2006)	13.9% *2005년: 14.8%
물가상승률 (2006)	6.3% *2005년: 3.5%
화폐단위	Jordanian Dinar (JD)
환율	JD 1 = US\$ 1.412 (1995년 이후 대미 달러화 고정환율)
대외 채무 (2006)	JD 5,187백만 (GDP의 51.4%)
외환보유고 (2006)	US\$ 6,103백만
산업구조 (2006, GDP기여도)	제조업(17.6%), 금융 및 부동산(17.0%), 정부서비스 (15.4%), 운송 및 통신 (14.3%), 도소매 (9.1%), 건설(4.0%), 광업 (2.6%), 농업 (2.4%)
교역규모 (2006)	수출: JD 3,668백만 수입: JD 8,115백만 무역수지: JD 4,453백만 (적자)
주요 교역 품	수출: 의류, 제약, 가성칼리, 채소류, 비료, 인광석 수입: 원유, 자동차 및 부품, 기계류, 직물, 철강

자료: 요르단 재무부 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ulletin (2007.8월) 및 통계청

다. 한-요르단 관계

체결협정	무역협정 (1972.11) 문화협정 (1977.10) 경제기술협정 (1977.10) 항공협정 (1978.5) 투자보장협정 (2004.12.25일 발효) 이중과세방지협정 (2005.3.28일 발효) 관광협력협정 (2005.1) KOICA 봉사단 파견협정 (2006.3)
교역규모	○ 2005년 - 우리나라의 수출: US\$ 468백만 - 우리나라의 수입: US\$ 40백만 *US\$ 428백만 (흑자) ○ 2006년 - 우리나라의 수출: US\$ 359백만 - 우리나라의 수입: US\$ 43 만 *US\$ 316백만 (흑자)
교역 품	○ 우리나라의 수출 - 자동차, 영상기기, 냉장고, 자동차 부품, 고무제품, 금형, 합성수지, 인조 장섬유 직물, 금속공작기계류 등 * 자동차가 전체 수출의 56% 차지 ○ 우리나라의 수입 - 석유화학제품, 비금속광물, 정밀화학 원료 등
투자교류	우리나라의 대 요르단 진출 1건, 투자 규모 US\$ 14만 요르단의 대한 투자: 없음
교민(2007. 12월 추정치)	약 310명

자료: 주 요르단 대사관, KOTIS

2. 정치 사회 동향

가. 개관

1) '개혁을 통한 국가 현대화'가 화두

1999.2월, 후세인 국왕의 서거로 즉위한 압둘라 국왕은 선왕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초래된 정국 불안정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무난히 극복하고 국내 정치의 안정화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

그는 선왕의 정치노선을 견지하되, 점진적으로 자신이 신임하는 인물들을 기용, 통치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2004년 이후에는 '개혁 (Reform)'을 국가 과제로 설정하고 국정 전반에 걸쳐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압둘라 국왕의 국가개혁 추진은 1) 범 중동지역 차원의 민주화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고, 2) 내부적으로는 세계화의 진전과 함께 국가의 장기 생존전략으로서 개혁의 필요성을 심분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3) Wise한 CEO를 지향하는 압둘라 국왕의 개인적 성향 등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이 같은 국가 개혁의 기초는 2005년 11월 발표된 National Agenda에 잘 나타나 있는데, 동 National Agenda는 선거법, 정당법, 연금법, 정부 회계 및 사법제도, 노동법 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 향후 총 10년간의 국가 개혁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압둘라 국왕은 2007년 12월 새로이 출범한 제 15대 국회 개원에 맞추어 행한 시정 연설에서도 적극적인 ‘개혁(Reform)’의지를 재천명한 바 있다.

이 같은 개혁기조에 대해 미국은 중동 민주화 구상(GMEI)이 아랍권으로부터 별다른 호응을 이끌어 내지 못함에 따라 선택과 집종의 차원에서 일단 친미 국가인 요르단을 역내 개혁의 전진기지 및 모델로 육성하겠다는 구상 하에 요르단 및 국왕의 개혁 정책을 적극 후원하고 있다.

2) 정치경제적 안정 기초 속 일부 불안감도 상존

2003년 3월 이라크 전 발발 이후 사회 전반에 걸쳐 긴장감이 팽배하였다. 하지만 요르단 정부는 세계 경제 포럼 (WEF) 특별 총회를 주최하고 (2003-2005, 2007),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관계 정상화에도 적극 나서는 등, 중동 평화의 중재자로서 역할을 적극 부각시켜 나감으로써, 정치적 불안감을 해소시켜 나가고 있다.

이 같은 중동평화를 위한 노력은 2007년 11월 27일 미국에서 개최된 중동평화를 위한 아나폴리스 회의에서도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요르단 정부는 거의 사문화되어 왔던 2003년 Road Map을 부활 시키는 것이 긴요하다는 인식 하에, 1) 이-팔 양측이 양자협상을 계속하여 구체적인 Time-table을 마련하며, 2) 동 과정에서 여타 아랍국가들이 전폭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함으로써 이-팔 협상의 공정한 중재자로서 역할을 재차 부각시켰다.

경제적으로는 2000년 4월 WTO가입에 이어 10월에는 미국과 FTA를 체결(2001년 발효) 하고, 국영기업을 과감히 민영화 조치하는 등 국내의 경제 체질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더불어,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법규도 대폭 손질하여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도 배가시켜 나가는 등 개방 폭을 대폭 확대해 나감으로써 최근 3년간 5% 이상의 안정적 고성장세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1948년 이후 요르단으로 이주해 온 팔레스타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60%를 넘고 있고 이들이 무슬림 형제단을 통해 정치세력화를 움직임을 강화해 나가고 있어, 잠재적인 불안요인이 없지는 않다.

요르단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이들의 입장을 어느 정도 대변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하마스 (팔레스타인 과격단체)와의 연계 차단 등 유무형의 통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3) 15대 총선과 Dahabi 내각의 출범

2005년 11월 9일 발생한 암만 시내 호텔 테러 사건으로 전격 출범했던 바킵 (Bakhit) 총리 내각은 2007년 11월 총선 이후 새로운 의회의 출범과 함께 막을 내렸다. 압둘라 국왕은 전 교통부 장관 출신으로서 아카바 경제특구 장을 역임하고 있던 다하비 (Mr. Dahabi를 총리로 전격 발탁하고, 2007년 11월 25일 다하비 (Dahabi) 총리 내각을 새롭게 출범시켰다.

새로 선임된 장관들은 총 28명 (국방부장관을 겸하고 있는 총리 포함)으로서,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최초 입각 13명, 유임 8명, 입각 유경험 6명
- 여성 4명 (기획 및 국제협력부 장관만 유임, 나머지 3명은 최초 입각)

2007년 12월 말 현재 28개 정부부처의 장관은 다음과 같다.

- 총리 (국방부 장관 겸임): Mr. Nader Dahabi
- 내무부 장관: Mr. Eid Fayez
- 정치 발전부 장관 겸 법제처 장관: Mr. Kamal Nasser
- 공보부 장관: Mr. Nasser Judeh
- 의회업무부 장관: Mr. Abdul Rahim Okour
- 농림부 장관: Mr. Muzahim Muhaisin
- 외무부 장관: Mr. Salah Bashir
- 수자원 및 관개부 장관: Mr. Raed Abu Saud
- 기획 및 국제협력부 장관: Ms. Suhair Al-Ali
- 환경부 장관: Mr. Khalid Irani
- 노동부 장관: Mr. Bassem Salem
- 종교부 장관: Mr. Abdul Fattah Salah
- 정보통신부 장관: Mr. Bassem Roussan
- 재무부 장관: Mr. Hamad Kasasbeh
- 복지부 장관: Mr. Salah Mawajdeh
- 관광 및 문화재관리부 장관: Ms. Maha Khatib
- 사회개발부 장관: Ms. Hala Latouf
- 자치부 장관: Mr. Shihadeh Abu Hdeib
- 공공개혁부 장관: Mr. Maher Madadha
- 교육부 장관: Mr. Tayseer Nueimi
- 통상산업부 장관: Mr. Amer Hadidi
- 고등교육 및 과학기술부 장관: Mr. Omar Shdeifat
- 문화부 장관: Ms. Nancy Bakir
- 교통부 장관: Mr. Alaa Batayneh
- 에너지 및 광물자원부 장관: Mr. Khaldoun Qteishat
- 건설부 장관: Mr. Sahl Majali
- 총리실 장관: Mr. Thouqan Qudah
- 법무부 장관: Mr. Ayman Odeh

4) 여성의 권익 신장 문제 이슈화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슬람적 전통이 지배하고는 있지만, 최근 들어 요르단 내 여성들의 권익은 현 라니아 왕비의 적극적인 활동과 후원으로 큰 폭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먼저, 요르단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개인 권리헌장(The Personal Status Code)’ 개정을 통해 여성들에게 이혼할 수 있는 권리를 새롭게 부여하였다. 여성의 이혼 요구 시에는 결혼 당시에 지참금으로 받았던 예물과 재정정보조를 포기하는 조건이 따른다.

둘째, 여성의 최저 결혼연령을 18세로 제한하였다. 15세까지도 가능하지만 이는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1998년 20%에 달하였던 18세 이하 여성결혼 인구가 2007년에는 15% 이하로 감소하였다.

셋째, 요르단 정부는 여성의 권리 신장과 함께 정계진출과 노동시장 진출도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다. 여성의 의회진출 지원을 위해 하원에서 6석을, 지방의회 의석 중 20%를 각각 여성의 몫으로 의무적으로 배정하고 있으며, 기타 교사, 보육, 광고, 은행 등으로의 진출 확대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한편, 최근 실시된 의회선거 과정에서 여성 몫 확대 주장이 일부 제기되기도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의회 선거 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지역구 (마다바 시)에서 당선됨에 따라 여성 하원의원 수가 총 7석으로 늘어나면서 정치 분야에서 여성들의 권익 신장이 중요한 이슈의 하나로 부상되고 있다.

나. 지방 및 의회 선거 실시

1) 지방 선거

지방 선거는 전국 99개 Municipality의 행정 수장 (mayor; 우리나라 식으로 보면 구청장)과 지방의회 (Council)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로서, 가장 최근의 지방선거는 2007년 7월 31일 실시된 지방선거이다.

2007년 7월 31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암만 시장과 11개 주지사를 제외한 (암만 시장과 주지사는 정부가 임명) 전국의 모든 행정 수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투표율은 62%를 기록, 2003년 선거에 비해 10%이상 투표율이 상승하였다. 하지만 이 같은 상승률은 이번 선거에서 투표 연령을 종전의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또한 투표자 등록을 현 거주지, 출생지, 직장 소재지 등에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명의 유권자가 최대 3개의 투표장에서 중복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데 기인 것으로, 이에 따라 약 15만 명의 젊은 층이 추가로 투표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7년 7월 31일 실시된 지방선거는, 결과적으로 부족중심의 투표성향이 뚜렷했고, 또한 일부에서는 선거인명부 조작, 군경 동원 등 부정행위를 둘러싼 공방도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개정 선거법에 따라 처음으로 지방의회 의원 전원 (각 Municipality는 의장 포함 10명의 지방 의원으로 구성되며, 20%는 여성의 몫으로 할당)을 직접투표로 선출 (이전에는 50%는 정부에서 임명하고, 나머지 50%만 선거로 선출)하였다는 점에서, 선거 민주화를 한 단계 앞당긴 의미 있는 선거로 평가되고 있다.

2) 의회 선거

요르단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이루어진 양원제이다. 상원은 총 55명으로 구성되며 국왕이 임명하며, 하원은 110명으로서 국민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하원의 경우 전체 의석의 과반수 이상이 친 국왕 세력인 무소속 의원 (부족 대표)이 점유, 진정한 의회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가장 최근의 의회의원 선거는 2007년 11월 20일 치러진 하원의원 선거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총 110명의 하원의원 중 여성에게 할당되는 6석을 제외한 104석에 총 885명의 후보가 출마하였으며, 여성 출마자는 199명이었다.

선거결과 투표율은 54%로 집계, 지난 7월 31일 지방선거에 비해 8%가 낮았으며, 여성은 할당 의석 (6석)을 포함, 총 7명이 원내에 진출하였다. (15대 의회 정식 개원: 2007.12.5)
국내 정치적 관점에서 금번 의회선거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정당 정치의 퇴조 및 부족중심의 투표경향 지속
 - 2007년 초에 개정된 선거법에서는 군소 정당간 연합을 통해 거대 정당의 출현을 유도하고, 정당정치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정당 발기인 수를 기존의 50명에서 500명으로 대폭 확대한 바 있음.
 - 하지만, 이번 의회 선거에서도 여전히 부족 (tribe) 중심의 출마와 투표행위가 강세를 보였으며, 885명의 출마자 중 IAF (Islamic Action Front, 무슬림 형제단의 요르단내 정치세력으로서 실제 유일 야당으로서 역할 수행) 소속 후보자22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정당 보다는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정당정치는 오히려 14대 때 보다 퇴조함.
 - 이는, 개정 선거법이 2007년 3월에 발효되어 시간적으로 거대 정당을 결성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물리적 한계와 함께, 부족이나 가문 중심의 정치문화가 여전히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됨.
- 이슬람주의 세력의 퇴조
 - 요르단 내 유일한 제도권 야당인 무슬림 형제단 산하 IAF은 15대 의회선거에서 총 7석을 확보하는데 거쳐 14대 때 17석에 비해 10석이 감소함.
 - 이 같은 이슬람 주의 세력의 위축에 대해 현지 전문가들은, 1) 유권자들의 정치 무관심 성향 증대, 2) 팔레스타인 난민 중심의 선동적인 정칙구호로 인한 대도시 유권자들의 심리적 거리감 증대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음..
 - 한편, 요르단 정부 내에서는 이집트에서의 총선 사례를 볼 때, IAF의 원내진출을 완전 봉쇄할 경우 이슬람주의자들이 더욱 과격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IAF의 제도권 내 포용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 제기되고 있음.
- 지역구 재조정 등 정치개혁 논의 활성화 전망
 - 현행 선거법은 1인 1투표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바, 그간 IAF측에서는 1인1투표제가 인구는 적으면서 전통적으로 국왕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지방 부족세력의 정계 진출 확대를 조장하는 제도라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지역구 재조정 및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해 왔음.
 - 최근 15대 의회선거에서도 암만 1지역구에서는 최저 득표로 당선된 후보가 획득한 표가 4,800여 표였던 반면, 지방의 경우 최대 투표로 당선된 후보가 획득한 표는 2,200여 표로 선거구간 표의 등가성 논란이 재연되었음.
 - 이에 따라, 15대 의회 임기 중 선거구 재조정이나 비례 대표제의 도입 등 그간 주요 정치 쟁점화 되어왔던 정치개혁법안에 대한 논의가 재차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임.

다. 정부 개혁 추진

1) 목표와 지향점

1999년 압둘라 국왕 취임 이후 요르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은 지속가능 성장과 복지를 달성한다는 목표 하에 현대적, 관용적, 개방적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압둘라 국왕은 Wise한 CEO형 국왕을 지향하고 있으며, 민간과 공공 부문간의 실질적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민간의 혁신과 창의, 역동성을 국가 행정에 접목시켜 나가는 한편, 아랍 내 개혁 선도국가라는 새로운 국가 이미지 창출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 추진을 통해 새로운 국가 이미지에 걸맞은 실력과 인프라를 갖추어 나감으로써,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와 성장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나가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2) 분야별 개혁 추진 동향

□ 정치 분야 개혁

- 개혁의 최우선 과제이자 최대 관심분야로써, 1) 행정부 쇄신, 2) 정당 및 선거법 개정, 3) 지방 분권화, 4) 언론 자유 보장, 5) 사법권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이 중 핵심이 되는 행정부 쇄신 부분은 1)부실과 정실주의 추방, 2) 효율성 및 경쟁력 제고, 3) 정책결정 과정의 분산, 4) 행정 편의주의 타파, 5) 교육과 훈련을 통한 공무원 자질 향상, 6) 전자정부 구현 등을 세부 목표로 삼고 있다.
- 우선 행정부 쇄신을 위해 각료 수를 늘려 부처 업무를 세분화, 전문화하는 한편, 공공 개혁과 개혁 입법 활동 강화를 위한 전담부처를 신설하고 부총리로 하여금 개혁 전반을 관장토록 하였다. 또한 정보통신부 산하에 PMO (Program Management Office)를 신설하고 PMO로 하여금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청사진과 사업개발, 정보망 구축, 교육 훈련 등의 업무를 관장토록 하였다.
- 둘째, 정당 및 선거법 개정부문은, 지난 2007년 3월 상 하원에서 전격적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야당으로부터의 비난이 가중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 개정 선거법은 1) 투표연령 하향조정 (19세->18세) 2) 지역구 재조정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IAF 등 이슬람 세력에 경도되지 않은 연령층에 선거권을 부여하고, 팔레스타인 출신 국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선거구를 재조정함으로써 IAF의 위상을 약화시킨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 개정 정당법은 1) 정당 발기인 수 확대 (50명->500명), 2) 정당 관리 업무의 내무부 이관 및 발기인에 대한 재정감사권 부여, 3) 정당주최 공공 집회의 사전허가제 신설 등을 주로 골자로 하고 있는데, 동 법안 시행 시 군소정당의 존립기반이 와해되어 거대 정당구조로 재편되는 효과는 있으나, 발기인으로 참가하는 개인에 대해 회계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정당참여를 제한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 이 같은 정당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IAF 등 야당세력은 연판장 서명, 항의시위 실시 등으로 개정 정당법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새로운 정당법을 통해 부족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참된 전국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며, 정치개발부가 아닌 내무부에서 정당을 관리하는 것도 국고로 정당지원금이 집행되므로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 참고) 요르단의 과거 선거법 개정 경과 및 주요 내용
 - 1차(1993): 의석 수 80석, “One person multiple vote ->One person single vote”로 전환
 - 2차(2001): 의석 수 104석, 인구 밀집지역 지역구 확충,
 - 3차(2003): 의석 수 110석, 여성 의석 할당제 도입 (6석)
 - 4차(2007) : 투표 연령 인하(19세->18세), 지역구 재조정
- 한편, 지방분권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12개 주를 3-4개 권역으로 재편성하고, 각 지방 정부가 자체의 내각과 의회를 갖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사법권 강화를 위해서도 재판부의 독립 강화와 통합 정보망 구축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언론 부분에서는 언론사에 대한 정부의 직접 통제 철폐, 일간지에 대한 정부 지분 매각, 언론정책 및 통제를 위한 독립 기관 (BDRTC) 신설, 민간 방송사 설립인가 등의 많은 진보가 있었으나 국왕에 대한 공개 비판 시 언제든지 기소가 가능하다는 일부 비민주적 형법조항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 한편, 지난 2007년 8월에 해산된 제14대 의회는 총 255개의 법안을 처리하였는데, 이중 국내 정치적으로 중요한 2개의 법률은 다음과 같다.
 - 반 테러법: 2005년 11월 암만 시내 호텔 테러사건 이후 중동국가에서는 처음으로 미국 및 영국식의 강력한 테러법을 제정, 동 법에 따르면, 영장 없이 ‘테러 혐의’만으로 최대 30일간 구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증거 없이도 테러관련 자금을 추적 및 자금 동결 조치도 가능
 - 지방선거법: 암만 시장 및 11개 주지사를 제외한 모든 지방조직의 장(Mayor)를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 지방의회의원 전원(10명)을 직접 선거로 선출(종전에는 5명은 직접 선출, 5명은 정부 임명), 지방의회 의원 20%를 여성에게 할당하고, 득표 순에 따라 배정)

□ 경제 분야 개혁

- 요르단 정부의 경제개혁은 1) 대외 개방 및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2) 민영화 추진, 3) 세제 및 연금제도 개혁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먼저 대외 개방과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부문에서는 2000년 WTO 가입에 이어 미국, EFTA, 싱가포르, 아랍 17개국과 연쇄적으로 FTA를 체결하고 EU와는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등 개방과 협력을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대미수출 관세 및 쿼터 면제지구, 아카바 특별 경제구역 등의 지정과 함께, 투자제한 완화 조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 같은 전향적인 투자유치 정책에 힘입어 지난 2003년 1억 달러에 불과했던 외국인 투자 규모가 2006년에는 11억 달러까지 확대되었다.
- 민영화 부문에서는 국영 통신공사, 시멘트 회사, 인광 개발 공사 등 주요 공기업들을 민영화 하였으며, 현재는 국영 발전 및 배전 공사 (Electric Distribution Company) 등의 지분 매각과 우정국 (Jordan Post)에 대한 전략적 파트너 십, 민간항공국 (Civil Aviation Authority) 구조조정 작업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영 Royal Jordanian 항공사의 경우 당초에는 매각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들어 전략적 제휴와 주식시장 상장을 통한 재원 조달 추진으로 방향을 바꾸었으며, 동 방침에 따라 2007년말 현재 암만 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다.
- 세제 부문에서는 현행 판매세 (16%) 제도를 부가세로 전환하고 외국계 금융기관에 대한 법인소득세 인상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연금개혁 부문에서는 그 동안 재정 지원을 받아왔던 공공부문 종사자들에 대한 연금기금을 민간부문과 통합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 사회 분야 개혁

- 사회개혁에서는 인권 신장이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그 동안 요르단 정부는 자국 내 인권 신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자의적 체포와 구금, 불투명한 조사과정, 구금자에 대한 고문, 야당 인사에 대한 탄압 등 풀어야 할 숙제들은 여전히 많다.

- 여성에 대한 차별도 심해 연금과 사회보장, 이혼, 여행의 자유, 명예살인 등 전통과 관습에 의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명예살인의 경우 살인(murder)이 아닌 도축(slaughter)으로 간주되며, 살인으로 인정된다 해도 형이 가장 2년에 불과하다.
- 국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요르단 정부는 지난 2002년 12월 독립기구로서 국가 인권 센터 (The National Center for Human Right)를 설립하였으며, 아울러 여성들의 사회 진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이후 공공, 기술, 교육 등의 분야에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오랜 사회관습으로 인해 개선의 속도는 매우 더딘 편이다.

3. 한국과의 주요이슈

가. 개관

요르단은 1962년 7월 26일 우리나라와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UN등 국제사회에서 우리 입장을 지지하는 등 꾸준히 우호관계를 맺어오고 있다. 특히, 현 압둘라 국왕은 즉위 당해 년도인 1999년 12월에 이어 2004년 7월에도 한국을 방문하는 등 최상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요르단은 한 해에 3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하는 효자시장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우리기업들의 대 이라크, 시리아, 팔레스타인 등 인근국가로의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그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나. 부분별 이슈

1) 무역/통상

요르단은 2000년 1월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하고, 미국, EU 등과 무역자유화를 실현하는 등 개방과 자유무역주의를 채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에 보호할 만한 산업 발달이 미미하여, 무역부문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특별한 제한 혹은 특별한 현안은 없다.

요르단과의 직접적인 무역 이슈는 아니지만, 2005년 9월부터 이라크 정부의 중고차량 연식 제한 조치로 인해 요르단을 통한 대 이라크 우회수출이 커다란 타격을 받고 있다는 점이 최근 들어 중요한 무역 현안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주 요르단 한국 대사관과 KOTRA 등 정부기관이 중심이 되어 수입제한 조치 완화를 요청하고 있으나, 이라크의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려 당분간 조치 완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라크 시장을 겨냥한 우리나라의 대 요르단 중고차 수출은 당분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밀어내기 식 수출 지양, 리비아 등 대체 신시장 발굴 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영사인증제도 부문이다. 요르단은, 국내의 수출업체들이 요르단으로 물품을 수출할 때에 상업송장 (Invoice)과 원산지 증명 등 무역관련 서류에 대해 국내 상공회의소 인증을 받은 후 주한 요르단 영사관 (주한 요르단 대사관은 없으며 현대화재해상보험에서 명예 영사직을 수행하고 있음)에서 별도의 인증을 또다시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주한 명예 영사로부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송장 건당 일정 금액만큼 납부하여야 하며, (영사 수수료와 동일한 개념으로 납부) 이것이 국내의 수출업체들에게는 불필요한 경비발생 요인

이 되고 있다. 요르단 정부는 동 제도가 국제규범에 위배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완전한 개선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2) 정무/문화

현재까지는 한국 내에 요르단 대사관이 부재 (주일 대사관에서 겸임)하여 명예영사가 활동하고 있으나, 최근 양국간의 관계가 심화 확대되면서 주한 요르단 대사관 신설에 대해 긍정적인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이다.

기타, 한-요르단 공동위 개최도 양국간 관계강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2007년 봄학기부터는 요르단 대학 내에 한국어학과가 정식 개설되었고, 아르묵 대학(요르단 제 2의 대학)에서도 한국어 교양 강좌가 개설되면서 양국간 문화교류의 폭도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요르단 대학 한국어학과: 24명 학생이 정식 전공 과정으로 등록)

기타 2007년 5월 (5.15-16)에는 정동극장 문화 공연, 6월 (6.24-30)에는 한국 영화제 등이 개최되었으며, 주 요르단 한국 대사관에서는 현지에서의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 고조에 발맞춰 2008년 중 한국 문화 주간 (Korean Week) 행사를 암만 시와 협력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는 별도로 요르단 내 한류 확산을 위해 요르단 국영 방송사를 통한 한국 드라마 상영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 경제협력 (주 요르단 대사관 자료 인용)

□ 무상 원조

1991-2004년간 우리나라가 요르단에 제공한 무상원조 규모는 약 360여만불에 이르며, 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연수생 초청: 102명 (521천불)
- 태권도 사범파견 및 훈련 지원: 11명 (380.6천불)
- 물자 공여: 435.9천불
- 개발 조사: 1건 (972.3천불)

이외에 2004.2월 특별 무상원조5백만불을 지원, 4개 보건소 건립 및 교통부 등 2개 부처 정보화 사업도 추진하였다. 2007년 말 현재는 바킷 전 총리 방한 (2006.8월) 후속 사업으로 직업훈련원 건립 사업 (3개년, 300만불)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8-2010년 중에는 신규사업으로서 보건분야와 수질개선 분야 등 2개 프로젝트에 약 5백만불을 추가 제공하는 것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 EDCF 차관

우리나라의 대 요르단 EDCF 차관 공여실적은 총 4건, 6,400만불 규모이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992년: Wadi Sir 폐수처리 사업 (현대 엔지니어링) 1,000만 달러 지원
- 2001년: Madaba 폐수처리 시설 (삼성, 코오롱건설) 980만 달러 지원
- 2004년: 암만 남부 폐수처리 시설, 2,400만 달러 지원
- 기타 Naur 폐수처리 시설에 2,000만 달러 지원 예정 (2006.9.6일 시행약정 체결)

□ 건설 진출

1974년 한보 건설이 요르단 시장에 진출한 이래 우리 업체들이 수주한 총 건설공사(토목, 도로 등 포함)규모는 57건에 8억 달러를 넘고 있다.

주요 기업별 최근 수주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 한보 건설: 1974년 진출 이래 관개, 도로 및 기타 토목공사 24건 수주
- 현대 엔지니어링: Wadi Sir 폐수처리 사업 공사 감리 및 Madaba, Ramtha 폐수처리 시설 확장 타당성 조사 사업 수주
- 현대 중공업: 자르카 정유저장시설 공사 수주 (2000. 6월 완공)
- 두산 중공업: Rehab 복합화력 발전소 건설 공사 수주 (2006. 6월 완공)
- LS전선: 암만 시내 송/배전 지중선 공사 수주 (2006.11월 완공)
- 두산 중공업: 암만 인근 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공사 수주 (2007년 수주, 현재 진행 중)

□ 제조업 분야 진출

- 2003년 6월에 현지법인으로 진출한 KYC Jordan (컴퓨터 자수생산업체)가 유일하다.
- 이 외에 과테말라에 진출한 I Texfil사가 2000.12월 암만 근교 사합 공단 내 대미 수출 관세 및 쿼터 면제지구(QIZ)에 진출하여 2001.11월부터 공장 가동에 들어갔으나 2005년 청산하였다.

□ 지상사 진출

- KOTRA가 1977년에 무역관을 개설한 이후 2007년 현재 삼성전자, LG전자, LS전선 등 총 6개사가 지사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 요르단에서 국내에 진출한 기업은 없다.

요르단 진출 국내 지상사

회사명	진출 년도	파견 근무자 수 (명)	비고
대우 일렉트로닉스	1998	3	가전
대우자동차 판매	2005	1	중고차 무역
삼성전자	1991	3	가전, 정보통신
LG전자	1991	3	가전, 정보통신
LS전선	2006	1	전선
현대건설	2005	1	건설

주: 두산중공업 (건설)의 복합화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사무소 별도 운영

II. 경제

1.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가. 연도별 거시경제 지표

지표 명	2002	2003	2004	2005	2006
인구 (천명)	5,070	5,200	5,350	5,473	5,600
GDP (명목, JD 백만)	6,779	7,204	8,081	9,012	10,109
1인당 GDP (경상, JD)	1,337	1,385	1,511	1,647	1,805
GDP성장률 (실질, %)	5.7	4.1	8.4	7.2	6.4
물가 상승률 (%)	1.8	2.3	3.4	3.5	6.3
실업률 (%)	15.3	14.5	12.5	14.8	13.9
수출 (JD 백만)	1,964	2,137	2,753	3,026	3,668
수입 (JD 백만)	3,599	4,072	5,799	7,412	8,116
외환보유고 (US\$ 백만)	3,495	4,750	4,824	4,759	6,103
대외 채무 (JD 백만)	5,350	5,391	5,348	5,057	5,187
제조업 생산 (증감률, %)	6.2	-8.5	12.1	10.2	5.9
경상수지 (JD백만)	386.1	841.6	-1.7	-1,602.5	-1,352.9
세입 (GDP대비 비중, %)	31.5	36.3	36.6	34.0	34.3
세출 (GDP대비 비중, %)	35.4	39.0	39.4	39.3	38.7
대미 달러화 환율 (US\$1)	0.708	0.708	0.708	0.708	0.708
선행금리 (%)	9.85	8.92	7.59	8.10	8.56

자료: 요르단 재무부 및 요르단 통계청

나. 경제정책 동향

1) 재정 정책

2006년 초 네 차례에 걸친 유가인상과 레바논 전쟁, 대외 원조 감소 등의 여파로 재정부문에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는 있지만 이후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요르단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2006년 중 대외 원조를 포함한 종합 재정 수지는 JD 4.4억 (US\$ 6억 3천만)의 적자를 기록, 전년도 JD 4.8억 (US\$ 6억 7천만)의 적자에 비해 미미한 개선을 보였다.

원조 분을 제외할 경우, 세입은 총 JD 32억 (US\$ 45억)을 기록, 전년의 JD 26억 (US\$ 36억)에 비해 23%가 증가하였다. 경기호황에 따른 내국세 급증, 부동산 가격급등에 따른 등록세 증가 등이 주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내국세 수입: JD18억 ('05)→ JD21억 ('06)

* 부동산 등록 및 인지세: JD 4.2억 ('05)→ JD 5억 ('06)

반면 세출은, 연금과 국방 및 안보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가보조금 감축 (△ JD 3억)에 따른 경상지출 감소로 인해 전년대비 10% 증가에 그쳤다. 세입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대외 원조에의 의존도가 높아 재정수지 불안 및 재정 취약성은 여전하며, 이러한 취약성은 커다란 개선 없이 2007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편, 요르단 정부는 지난 2006.10월 이라크와 석유 특혜공급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석유의 안정적인 공급과 재정부담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을 계속하고 있어, 앞으로 그 결과에 따라 재정수지 운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재정수지 현황

(단위: JD 백만)

구분	2005	2006	2007 (예산)
세입 (원조 제외)	2,561.8	3,164.5	3,380.0
세출	3,538.9	3,912.3	4,264.3
수지	-977.1	-747.8	-884.3
원조	500.3	304.2	574.0

자료: 요르단 중앙은행

2) 통화 정책

지속적인 성장과 정부의 강력한 통화 안정정책에 힘입어, 최근 수년간 요르단의 통화는 매우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들어 요르단 디나르 화(JD)를 미 달러화에 고정시키는 달러화 페그(Peg) 정책에 따라 수입물가가 급격히 상승(미 달러화의 가치하락에 따라 유로 지역으로부터의 수입가격이 상대적으로 상승)하면서 미 달러화에의 페그제 폐지 주장도 종종 제기되고는 있으나, 이로 인해 요르단 정부가 안정적 통화정책 기조를 버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달러화에의 페그 정책 지속으로 인해 요르단의 통화정책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이 매우 크며, 이에 따라 재할인율 정책 등 금리정책은 자체적인 조정보다는 앞으로도 계속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행보를 답습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세제 정책

장기간 표류 중이던 개인 소득세법 개정안은 의회를 통과하였으나 2007년 말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발효는 되지 못하고 있다. 개정 소득세법은, 소득공제 가능 범위를 과거 소득에 관계없이 무제한 인정하던 것을 JD 2만 범위 내로 한정함으로써, 고액 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인세제 단일화 (제조업 15%, 은행 등 금융업 35%, 기타 25% -> 20%로 단일화), 일반 판매세 조정 (세율 인상, 규율 범위 확대, 부가세제로 전환 등) 등은 제조업체와 일부 의원들의 강한 반발로 여전히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4) 민영화 및 지역개발 정책

요르단 정부는 민영화 정책을 재정 수입 증대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들어 진행 속도가 크게 빨라지고 있다. 그동안의 적극적인 민영화 정책에 힘입어 2000년 JD 74억에 달했던 대외 채무가 2006년 말 현재 JD 52억으로 감소하는 등 대외 채무여건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요르단 정부는 또 지속가능 경제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낙후 지역개발이 필수적이라 판단 하고 1)총 10억달러 규모의 도심 재개발(압달리 재개발 프로젝트), 2)암만시 내륙 물류 기지 건설과 환상도로 건설, 3)총 7억불 규모의 주거 및 상업단지 건설 등 지역개발 프로젝트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기타 2006년 하반기 이후 발표된 주요 개발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 Siwar Project(1억 5천만불): 두바이 Emmar가 주도, 사해 지역에 종합 레저타운 건설

○ Crystal City (2억불): 두바이 Ormix 그룹이 주도, 사해지역에 고급 주택단지 건설

- Dead Sea Hotel Project(레바논Egar Group)이 주도, 사해지역에 5성급 호텔 건설
- Royal Village (12억 5천만불): 바레인/쿠웨이트의 Gulf Finance가 주도, 암만 중심으로 15km 떨어진 지점에 대규모 고급 빌라 (1,000세대), 쇼핑 몰, 위락시설 건설
- Saraya Aqaba (10억불): 사우디 Oger사와 요르단 Saraya Aqaba간 협력, 남부 아카바 항에 5성급 호텔6개, 종합 위락시설 건립

한편, 압둘라 국왕은 지난 2006년 11월 21일, 총 7억 8천만불 규모의 '마르카 특별 개발 구역 건설 계획'을 직접 발표하였는데, 마르카 지역은 빈곤률이 37.2%에 이르는 요르단 내 극빈 지역으로서, 요르단 정부는 이 지역을 향후 19년간에 걸쳐 대규모 산업 허브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JD 1억 규모의 '마르카 개발 공사'를 신설 (지분 구성: 사회보장 기금 80%, 압둘라 2세 펀드 10%, 마르카 주민 10%)하고, 이 지역을 시리아와 이라크, 사우디를 잇는 물류 및 유통기지로 집중 육성함으로써 2015년까지 총 1만 3천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5) 정책 제약 요인

요르단 정부의 공식 추계에 따르면, 이라크 전쟁 이후 요르단으로 유입된 이라크인의 수는 약 5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30-40만명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요르단에 체류하고 있어, 이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 물가 폭등과 보건, 교육, 범죄 문제, 그리고 이라크인 입국 제한조치에 따른 국가간 갈등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문제점들이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 2003년 JD 938백만 (약 13억불)을 기록한 이래 매년 감소하고 있는 대외 원조도 정책 제약요인의 하나로 꼽힌다. 대외원조 규모는 2004년 JD 811백만 (약 11억 4천만불), 2005년 500백만 (약 7억불)에 이어 2006년에는 JD 304백만 (약 4억 3천만불)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재정 건전성 유지의 핵심 축이 흔들리면서 사회 경제적으로 정책 추진에 애로가 가중되고 있다.

다. 최근 경제 동향

1) 경제 성장 과정

요르단은 1970년대의 급격한 유가 상승 속에서도 아랍국가들의 원조 및 걸프 지역으로 부터의 근로자 송금 확대 등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을 계속해 왔다. 1980년대 들어 요르단 경제는 대외 여건 악화와 국내에서의 경제조정 실패 등에 따라 1989년 두 차례 외환위기를 겪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IMF의 관리체제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1990년대 이후에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 악화, 이라크전쟁 등 지역정세 불안과 그에 따른 관광객의 급감, IMF 구제금융 등 제반 악재들 속에서 경제 성장의 폭이 크지는 않지만 역내국가들 중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을 계속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는 현 압둘라 국왕 취임 이후 추진하고 있는 강력한 경제개혁, 개방 정책과 함께 일련의 세제, 투자관련 법규 개정을 통해 기업들의 비즈니스 환경을 크게 개선함으로써, '중동의 안전지대'라는 지역 프리미엄과 함께, 연 10% 이상의 수출신장과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등을 통해 연 5% 이상의 고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요르단은 2004년 IMF 관리 체제로부터 완전히 벗어 났으며, 이후 매년 IMF와 요르단 정부간 연례 합동 경제회의를 개최, 경제 상황과 진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 거시 경제 지표별 동향

□ 성장 및 산업생산

2003년 이라크 전 발발로 인해, 이라크로부터의 원유 특혜지원이 중단되고, 최대 교역 대상국이었던 이라크와의 중계무역, 구상무역도 타격을 받으면서 경제 전반에 주름 살이 예상되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Iraq & Gulf Effects'로 인해, 2004년 8.4%의 고성장에 이어 2005년 7.2%, 2006년 6.3%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2007년 들어서는 그 동안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건설 부문의 뚜렷한 약세와 함께, 주력 생산품인 인광과 시멘트 생산 등 제조업 부문에서의 부진이 겹치면서 성장 동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2007년 상반기 중 건설, 시멘트 등 주요 분야 생산이 바닥을 치고 있으며, 경제 성장률도 최근 4년간 가장 낮은 5.8%에 그쳤다.

산업생산 부문에서는 정부의 에너지 전략 강화 정책과 그에 따른 전력 분야 시설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전력 분야만이 뚜렷한 호조를 보이고 있다.

성장 및 산업생산 동향

(단위: 전년비 증감률,%)

부문	2005	2006	2007
GDP 성장률 (2007년은 1-6월)	7.1	6.3	5.8
산업생산 (2007년은 1-7월)	10.2	5.9	1.3
- 전력	7.5	-1.4	7.8
- 건설	22.6	5.7	1.8
- 시멘트	3.5	-1.9	-0.5
- 인광	2.4	-7.9	-6.8
- 비료	1.4	9.1	-2.7
- 화학	-2.2	3.4	-11.1
- 정류	6.8	-4.7	-9.2

자료: 요르단 재무부, General Government Finance Bulletin 2007.9월

□ 소비자 물가

1990년 후반 IMF로부터의 긴급구제 조치를 받은 후, 요르단은 IMF 가이드 라인에 따라 강력한 긴축통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결과 2000년대 들어 요르단의 물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2004년 중 이라크로부터의 원유특례 지원이 중단되면서 3%대로 뛰어 오른 소비자 물가는, 2005년 중 두 차례의 유가 인상을 겪으면서 2005년에는 3.5%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2006년에는 연초부터 단행된 4차례의 유가인상 조치 (정부의 유가 보조금 지급 축소)와 부동산 가격의 급등, 주식 자산 가치의 상승 등이 겹치면서 전년비 6.3%가 상승, 물가 불안 현상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물가 불안 현상은 달러화의 가치하락과 함께 2007년에도 이어져 8월말 현재 5.6%의 높은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승률에는 주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 인플레이션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체감 물가는 통계수치 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이라크인 유입 증가, 석유 보조금 감축, 달러화 약세에 따른 생필품 수입가 상승 등과 함께 음식료, 주택, 유가 상승이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양상이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추이

(단위: %, 전년비 증감률)

부문	2004	2005	2006	2007.1-8월
물가 상승률	3.4	3.5	6.3	5.6
-음식료	4.6	5.1	7.5	-
-의류 및 신발	-2.4	-0.4	2.8	-
-주택	1.7	2.1	5.6	-

자료: 요르단 재무부, 통계청

□ 고용

정부의 강력한 고용창출 노력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구 증가율과 고용 창출을 위한 제조업 기반취약 등으로 고용 지표 개선은 더딘 편이다. 2004년 12.5%까지 떨어졌던 실업률은 이후 13-15%의 고 실업률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업해소와 고용 창출이 2007년 12월 새로 출범한 다하비 (Dahabi) 내각의 제일의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실업률 추이

(단위: %, 년/월말 기준)

부문	2004	2005	2006	2007.1-3월
실업률	12.5	14.8	13.9	14.3

자료: 요르단 재무부, General Government Finance Bulletin 2007.9월

라. 향후 전망

1) SWAT 분석

Strengths	-이라크로의 통로 기능 확대, 중동의 안전지대로서 이미지 확산 -관광, 투자유치 노력 결실 단계
Weaknesses	-고용과 빈곤문제 해결 진척 속도 미흡 -산업화를 위한 천연자원 빈곤, 물 부족 현상 심화
Opportunities	-이라크와의 석유 특혜공급 합의로 유가 및 물가불안 해소 가능성 -고유가 지속으로 걸프지역 국가들의 투자 및 관광객 유입 확대
Threats	-사우디아와의 석유 특혜공급 계약 종료로 유가 불안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불안 확산 가능성 -미국의 지원 및 대외 원조 감축

2) 전망

□ 정책

비즈니스 환경 개선, 투자 확대 등을 통한 경제의 안정성장 기조를 지속 유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투자를 제약하는 관료주의 및 각종 Red-Tape개선 노력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National Agenda에 반영되어 있는 강력한 경제 구조 개혁정책을 고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불안한 국내정치 상황을 감안할 때 개혁정책을 강력히 밀어 붙이기 보다는 정치적 안정을 우선시하는 안정적 개혁으로 방향을 선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재정정책 면에서는 유가 인상과 대외 원조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재정 건전화(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한층 배가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하여, 2008년도에는 유가 보조금 지원 완전 폐지를 목표로 유가 보조금을 지속 감축시켜 나갈 것으로 보이며, 공기업 민영화 정책 기조 유지 및 세제 개편을 통한 세원 확대 노력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통화정책 면에서는 요르단 디나르 화의 안정기조와 높은 경제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의 대미달러화 고정환율제 및 미국 금리 연동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최근 들어 걸프지역 국가들을 중심으로 달러화 페그제 폐지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 동 논의 방향에 따라 요르단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2) 성장

2007-2009년 중 요르단 경제는 지난 2년간의 성장률에는 다소 못미치는 5.2%의 성장률에 그칠 전망이다. 부문별로는, 공공투자 분야는 전력과 통신부문을 중심으로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관광 및 부동산 분야에서는 관광객의 유입 확대와 부유한 이라크인들의 주택구입 확대 등이 예상되며, 수출입은 주력 수출품인 석유의 해외시장에서의 경쟁 격화와 미달러 화의 약세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등에 따라 신장률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을 감소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는 비교적 견실한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걸프지역으로부터의 송금 증가, 공무원 급여 인상 그리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증대효과 등이 주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3) 소비자 물가

2007년은 유가 상승과 유가 보조금 지원 축소, 부동산 자산가치 상승과 이라크인 유입 증가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달러화 약세(고정환율제 하에서 수입 물가 하락) 등 물가 불안 요인이 어느 때 보다 많았다.

하지만 높은 실업률과 낮은 노동비용, 이라크 산 원유 특혜 도입 추진 등과 함께 정부의 강력한 긴축정책 기조로 인해 실제 물가 상승률은 전년에 비해 낮은 4.9%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2008년에는 유가 보조금의 완전 폐지 예상에 따라 5%대로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소비자 물가 수준은 점차 하향 안정화 곡선을 그릴 것으로 전망된다.

4) 경상수지

2005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경상수지 적자기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품 교역 부문에서는 높은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계류와 전자, 자동차 등 제조품의 품은 수입의존도 및 원유 수입 증가 등으로 인해 대규모 적자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비해 걸프 지역에서의 경기호황을 바탕으로 한 대외송금액 증가, 관광 수입 호조, 무역 및 운송 서비스 부문에서의 대 이라크 수출입 물동량 증가 등으로 인해 무역외 수지 전망은 다소 밝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2008년 중 이라크와의 원유 특혜공급 양해각서가 이행될 경우, 경상수지 적자폭은 예상보다 훨씬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7-2009년도 거시 경제 전망

지표 (단위)	2007(예상)	2008(전망)	2009(전망)
GDP 성장률 (% , 실질)	5.5	5.4	4.9
산업 생산 (증감률, %)	6.0	6.0	5.5
소비자물가 상승률 (%)	4.9	5.3	3.7
정부 재정수지 (GDP 대비 %)	-9.2	-7.1	-6.8
상품 수출 (10억불)	6.0	6.8	7.4
상품 수입 (10억불)	11.1	11.9	12.7
경상수지 (10억불)	-1.7	-1.6	-1.7
대외 채무 (US\$ 10억, 연도말)	7.5	7.3	7.1

자료: EIU

2. 주요 산업 동향

가. 개관

요르단은 인구 560만 명의 협소한 시장과 취약한 산업 기반으로 인해 제조업의 비중이 20% 이하로 낮은 반면, 서비스 부문이 GDP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금융 및 부동산, 정부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높으며, 광업과 농림수산업의 비중은 2% 이하로 낮다.

2006년 말 현재, 요르단의 주요 산업별 GDP 기여도(비중)를 보면, 서비스업이 70%로 가장 높으며, 이어 제조업 17.6%, 건설 4.0%, 광업 2.6%, 농림수산업 2.4% 등의 순이다.

나. 주요 산업별 동향

1) 제조업

요르단의 제조업은 전통적으로 비료 원료로 사용되는 인광(Phosphates)과 가성칼리(Potash) 등과 시멘트, 석유 및 화학제품 등이 주종을 이루어 왔다. 이들은 그 동안 정부에서 생산을 독점하여 왔으나 최근 들어 민영화 조치와 함께 생산의 주체가 대부분 민간으로 이양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 부문별 생산량

(2006년 기준, 천 톤)

부문	생산량	부문	생산량
인광	5,871	클링커	3,419
석유제품	4,017	가성칼리	1,699
시멘트	3,967	비료	862

자료: 요르단 중앙은행 (2007.9)

최근 년도 주요 제조업 민영화 실적

(2006년 말 현재)

회사명	민영화 실적
Jordan Cement Factories	지분 100% 처분 (대 프랑스)
Arab Potash Company	지분 26% 처분 (대 캐나다)
Jordan Phosphate Mines Company	지분 37% 처분 (대 브루나이)

자료: 요르단 민영화 추진위원회 (2006.12)

요르단에서 민간부문의 제조업 참여는 1970년대 이라크 시장 붕괴와 함께 시작되었다.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과 국제적 제재조치의 여파로 한동안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이후 UN 주관으로 Oil for Food Program이 시행되면서 차츰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요르단에서 민간의 제조업 참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6년 미 행정부가 요르단에 대해 QIZ (Qualified Industrial Zone; 대미국 수출 관세 및 쿼터 면제구역)를 인정하고 QIZ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대미 수출 시 관세와 쿼터를 면제하는 특혜 조치를 제공하면서부터이며, 이후 섬유와 봉제산업이 최대의 제조업 분야로 부상하게 된다. 이외에 제약과 식품가공 분야에서도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내면서 요르단의 민간 제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후 2005년 들어 MFA (Multi-Fiber Agreement)체제 철폐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섬유에 대한 쿼터규제가 철폐되고, 2004년 이집트에도 QIZ가 설치되면서 특히 섬유산업 분야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2000년 WTO가입과 연이은 FTA 체결 등으로 인해 수입관세가 매년 인하되면서 최근 들어서는 제조업 발전 기반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 요르단의 주요 민간 제조업 분야별 개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섬유 및 봉제

요르단 현재 전체 수출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총 고용인력은 5만 5천명에 달하고 있다. 산업발전의 원동력은 1996년 미국의 QIZ 지정에 대한 방침 발표와 함께 1998년 3월 미 USTR이 요르단 북부 이르비드 시에 소재한 알 하산(Al-Hassan) 공단을 세계 최초의 QIZ로 지정하면서부터이며, 이후 13개 공단에 QIZ가 설치, 운영 되면서 섬유 및 봉제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을 하기 시작하였다.

QIZ의 성공으로 2007년 말 현재 섬유산업은 요르단의 최대 수출산업으로 부상하였으며, 1994-2004년간 GDP기여도도 5%이상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제약

2006년 말 현재 제약회사 수는 총 18개이며, 1991년 이후 총 4억불 이상의 투자를 통해 꾸준히 성장을 해오고 있다. 요르단 의약품협회 (JAPM)에 따르면, 2006년 기준으로 요르단의 의약품 총수출 규모는 총 5억불로서, 섬유산업에 이어 요르단 내 제 2의 민간 제조 수출산업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JAPM은 향후 2010년까지 의약품 수출규모가 10억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식품 가공

2006년 현재 총 3,300여 개 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며, 고용인력은 약 3만명에 이르고 있다. 산업 총 매출 규모는 12억불이며, 이중 15%가 수출에 따른 매출로 추정되고 있다.

□ 가정용 전자

1991년 한국의 LG전자가 현지에서 세탁기와 TV, 냉장고 조립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MEC라는 요르단 계 현지회사에서 소규모 조립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 이 외에 중국의 하이얼 사, 우리나라의 대우전자, 삼성전자 등이 냉장고, TV, 세탁기 등을 위탁 조립 생산하고 있는 등 외국기업의 조립 생산 기지 수준에 머물러 있다.

2) IT 및 정보통신 서비스

2006년 현재 요르단 IT산업(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연간 총 매출액은 9억 5천만불을 넘고, 2000년 이후 총 투자규모만 약 10억불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시장 성장률은 매년 20%를 상회하는 등 최근 들어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분야의 하나이다. 이동통신의 경우 2006년 성장률이 69% (요르단 통신협회의 추계치)에 이르고 있다.

요르단 정부는 정보통신 분야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1995년 통신법 개정을 통해 민영화와 경쟁체 도입 등을 통한 산업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 유선통신 부문에서는 1999년 12월, 국영 요르단 통신공사(JTC)의 지분 40%를 프랑스 텔레콤과 아랍은행 컨소시엄에 매각하였고, 이어 2006년에는 정부가 갖고 있던 잔여분(41.55%) 전량을 매각(프랑스 텔레콤, 사회복지청, 바레인 및 쿠웨이트 투자기관 등)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2006년 말 현재 유선통신 시장의 지배자는 프랑스 텔레콤으로써, 전체 주식의 51%를 보유하고 있다.

이동통신 부문에서는 1995년 최초의 이동통신회사인 Fast Link (쿠웨이트 소재 MTC사 소유)가 설립되면서 서비스가 본격화 되었으며, 이어 2000년 10월 제2의 이동통신 회사인 MobileCom (요르단 통신의 자회사)이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경쟁 체제에 돌입하였다. 이어 2005년 6월, Umniah가 새로운 이동통신 서비스를 개시 함으로써 현재는 3개사가 경쟁을 하고 있다.

2006년 말 현재 요르단의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총 220만 명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이중 Fast Link가 14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 (70%의 점유율)한 최대 서비스 제공자에 올라 있으며, 이어 MobileCom이 50만 명, Umniah가 30만 명을 각각 확보하고 있다.

한편, 인터넷 부분에서는 1996년 ISP (Data Communication) 자유화 조치 이후 2006년 말 현재까지 총 10개의 Internet Provider가 운영 중에 있다. 시장지배자는 제 1사업자인 Wanadoo로써, 2001년 요르단 통신 그룹으로 편입되었다

요르단의 인터넷 시장은 협소한 시장과 수익성 문제로 인해 ADSL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Dial-up 방식 이용자도 약 2만 명으로 추산), 이용료도 높은 편이다.

3) 관광

관광산업은 정부 재정과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해 주는 두 번째로 큰 원천이다.(가장 큰 부분은 해외거주 요르단인의 국내 송금액으로 연평균 20억달러에 이르고 있음)

2005년 기준으로 요르단 관광산업은 약 28,000개의 직접적인 일자리와 약 30,000 개의 간접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GDP 대비 관광 수입 의존도 (2004년 기준)도 7%로서 중동국가들 중에서는 이집트와 함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중동국가들의 관광수입 의존도 비교 (2004년 기준)

요르단	이집트	레바논	이스라엘	시리아	사우디
7%	7%	3.4%	2.9%	2.1%	1.7%

자료: World Travel & Tourism Council

요르단 관광청에 따르면, 2006년 요르단을 방문한 해외여행객 수는 총 657만 명으로서, 전년비 13%가 증가하였다. 관광객 증가에 따라 2006년 관광 수입도 전년도의 10억 달러에서 16억 달러로 전년비 14%가 증가하였다.

한편, 관광산업은 1995년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정 이후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외국인 투자(FDI)의 절반 이상이 관광분야에 집중될 정도로 외국인 투자유치 부문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요르단 정부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관광지 개발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 촉진 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국의 관광 프로젝트 개발기금(Siyaha)의 지원으로 와디럼(유네스코에 의해 보존역으로 지정)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개발
- 아즐룬, 케락, 제라쉬 등 주요 관광지 개발에 JD 3천만~4천만을 투자하여 관광시설 및 서비스를 개선
- VOC (직업훈련원)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를 통해 관광산업 종사 인력의 수준을 높이고 향후 5년간 4,20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

4) 금융 서비스

전반적인 금융업의 수준이 낮은 중동의 관점에서 볼 때, 요르단은 금융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발전한 나라이다. 2006년 말 현재 은행 수는 국내 상업은행 6개, 이슬람계 은행 2개, 투자은행 5개, 외국계 은행 8개 등 총 21개이다. 최근 들어 HSBC와 Citi 은행 등 외국계 은행의 진출이 확대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국내 자본에 의해 설립된 아랍은행이 자산규모 면에서 최대 은행으로 자리잡고 있다. (자본금 502 백만달러로 전체 국내 금융자산의 60% 차지)

2위 은행은 HBTF (Housing Bank for Trade and Finance)로서, 자본금 규모 353백만 불로서 아랍은행과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외에도 Jordan Kuwait Bank, Jordan Islamic Bank, Jordan National Bank 등도 요르단 내 주요 은행으로서 활발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5) 기타 산업

□ 건설업

건설업은 지난 2004~2005년간 국내경기 호황을 주도해 온 분야로서, 2006년 현재 건설업 등록업체 수는 약 1,000개에 달하고 있다. 국내 건설업체들은 대부분 가족경영 형태의 소규모 회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대규모 프로젝트는 대부분 걸프 지역 자금과 개발업자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2006년 중 건설 경비 호황을 바탕으로, 전년비 11.1%가 증가, 동 기간 중 경제성장을 실질적으로 이끌었다.

□ 광업

인광(phosphates)과 가성칼리(potash)가 대표적인 광산물이며, 그 외의 광산물은 거의 전무하다. 최대 생산품인 인광의 매장량은 70억톤으로 추정되며, 연 생산량은 500 만톤 내외로 세계 3위의 인광 생산국에 올라 있다. 가성칼리 생산량은 연 2백만톤 내외이다.

대표적인 광산업체는 국영 Arab Potash Company(APC)와 Jordan Phosphate Mines Company(JPMC)이며, 양사 공히 정부의 민영화 조치에 따라 지분 매각을 통한 민영화 과정을 밟고 있으며, 민영화와 함께 앞으로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축소될 전망이다.

□ 농업

주요 생산 농산물은 과일, 채소, 올리브, 밀 등이며, 밀은 자체 생산량 부족으로 수입 또는 원조에 의존하고 있다. 농업생산은 비교적 비옥한 요르단 벨리(평원) 지역에서 주로 이뤄진다

□ 에너지

국내적으로 석유와 천연가스 등의 생산은 전무하며, 석유는 사우디 (이라크 전쟁 전에는 이라크로부터 특혜 공급), 천연가스는 이집트로부터 공급 받고 있다. 2006년 말 현재 요르단의 총 전력 생산량은 약 2,000mw로서, 이중 94%는 CEGCO (Central Electricity Generating Co.; 정부지분 49%)에서, 나머지 6%는 Samra Electricity Co. (정부지분 100%)에서 담당하고 있다. 최근 들어 천연가스로 대체하고는 있으나 발전량의 70%이상을 석유에 의존할 정도로 석유 의존도가 높아 최근의 국제 유가 급등에 매우 취약한 구조이다.

한편, 요르단 정부는 장기적인 에너지 확보 차원에서 2003년 7월, 이집트와 광역 가스 파이프라인 연결 프로젝트 (270 km)에 합의한 바 있는데, 이 프로젝트가 완성될 경우에는 전체 발전시설의 75%가 가스로 전환되어 향후 에너지 생산 및 소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들어서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가. 개관

요르단의 지역무역 협정 체결은 제조업 육성 정책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과거 요르단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은 국내 산업 보호라는 소극적인 정책 수단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즉, 만성적인 재정 애로로 인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제조업을 육성하기 보다는 관세율 조정 등을 통해 국내 제조업 피해를 방지하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졌던 것이다.

하지만, 2000년 WTO 가입과 2001년 미국과의 FTA 체결 등 요르단 경제는 2000년대 들어 급속히 국제경제질서로 편입되고 그 결과 국내산업 보호 목적의 제조업 육성정책에 한계가 노정되기 시작하였다. 재정애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르단 정부가 채택한 제조업 육성 정책의 방향은 ‘개방 확대’와 ‘수출 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이었다. 즉, 소극적인 대응 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입장에서 경제의 개방 폭을 넓힘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고 외국과의 이중과세 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 등의 체결을 통해 국내 투자유치를 활성화 하는 한편, QIZ로 대변되는 특혜무역지대와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겠다는 전략이 그것이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요르단은 2000년대 들어 중동지역에서는 보기 드물게 미국과 EU 등에 석유, 농산물, 인광 등의 수출을 확대하면서 비 석유 제품 수출주도의 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성장하였다. 일례로, 2005년 요르단 수출의 70% 가까이가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제조업 수출비중이 평균 10%수준에 머물고 있는 여타 중동지역 국가들과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국 요르단은 ‘개방국가’를 지향하면서 인근 아랍국가를 비롯, 외국과의 다양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자국 제조업을 육성하고, 수출품의 대외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외국인 투자유치 증대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도 거두고 있는 것이다.

나. 요르단의 경제개방 (지역무역협정 체결 포함) 주요 일지

- 2000.4월: WTO회원국 가입
- 2000.10월: 미-요르단 FTA 체결 (2001.12.1일부 발효)
- 2001.6월: EFTA-요르단 FTA 체결 (2002.9.1일부 발효)
- 2002.5월: EU-요르단 특혜무역협정 체결 (2002.5.1일부 발효)
- 2004.5월: 싱가포르-요르단 FTA 체결 (2005.8.22일부 발효)
- 2005.1월: 범 아랍자유무역협정 (GAFTA) 발족
- 기타 Agadir 협정 추진 등

다. 지역 무역협정 체결 현황

1)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FTA)

요르단은 중동지역에서 첫 번째이자 세계적으로는 멕시코와 캐나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이어 네 번째로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이다. 2001년 9.24일 미국 상원의 인준을 거쳐 동년 10월 24일 당시 클린턴 미 대통령과 압둘라 요르단 국왕간의 서명 후 2001년 12월 1일부로 공식 발효되었다.

협정문은 총 19개 조항과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원칙은 WTO 및 GATT 94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및 GATS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국제 규범을 준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관세는 협정 체결 후 10년간 (2001-2010) 4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하되, 단 요르단의 대미 수출 주관품목 250개에 대해서는 협정발효와 동시에 관세를 철폐하는 것으로 하였다. A부터 M까지 총 9개의 상품 카테고리 별 관세인하 및 철폐 일정은 다음과 같다.

상품 카테고리	기존 관세율	인하계획
A	<5%	2년 내 철폐하되 매년 50%씩 감축
B	5%-10%	4년 내 철폐하되 매년 25%씩 감축
C	10%-20%	5년 내 철폐하되 매년 20%씩 감축
D	>20%	10년 내 철폐하되 매년 10%씩 감축
E	-	WTO관세 양허안 준수 대상 품목
F-M	-	술, 섬유제품, 농산물, 가금류, 자동차, GSP 품목 등 특별단계로 설정해 놓은 품목

자료: 미-요 FTA 협정문

기타 미-요르단간 FTA 협정의 주요 특징은 1) 특허, 의장 등 지적재산권에 대해 특히 많은 조항을 두고 있으며, 2) 당시 미국이 협정을 맺은 국가 중 유일하게 노동과 환경 그리고 e-Commerce 분야를 협정문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 (당시 클린턴 행정부의 노동, 환경 중시 정책기조를 반영) 그리고 3) 미 의회가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신속처리 권한 (Fast Track)이 없는 상태에서 의회가 수정 또는 거부권을 가졌음에도 원안으로 통과시켰다는 점 (정책적 고려에 의한 협정체결임을 시사) 등을 들 수 있다.

2) 범 아랍 자유무역협정 (GAFTA)

GAFTA는 1950년대 무역촉진 협약이 체결된 이후 1960년대 ‘아랍공동시장’ 설립 구상이 있는 후 거의 50년 이상을 허공에서 표류하다 1997.2.17일 아랍리그 소속 17개국이 협정문에 서명함으로써 1998.1.1일부로 공식 발효되었다. (요르단 참여)

22개 아랍연맹 회원국 중 모리타니아, 알제리, 소말리아, 코모로 등 저개발 5개국을 제외한 17개 회원국이 협정문에 서명을 하였다. 핵심 내용은 2004년 말까지 농산물을 제외한 전체 교역 품목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협정 발효 일정에 따라 2005.1.1일부터 17개 회원국간 무역거래에서는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었다.

- 참고: GAFTA 협정 참여국가: 요르단, UAE, 바레인, 튀니지,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시리아, 이라크, 오만, 팔레스타인, 카타르, 쿠웨이트, 레바논, 리비아, 이집트, 모로코, 예멘

GAFTA 협정은 총 6개 파트 2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정의 (1조), 일반 조항 (제 2조-3조; 협정의 기본원칙 및 보편적 적용 원칙), 실질 조항 (제 6조-10조; 관세 및 비관세 철폐, 인하계획, 원산지 규정, 아랍권 제품 우선구매, 금융기관의 지원 등), 이행 감독 (제 11조-12조; 협의회 역할, 연차보고서 제출 등), 분쟁해결(제13조) 및 기타조항 (제 14조-25조; 협정운용, 발효 및 개정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3) 기타 지역무역협정

협정 명	주요 내용
EFTA-요르단 FTA	- 2002.9월 발효 - 발효일로부터 4년 내 (요르단 내 유사 제품이 없는 경우), 12년 내 (기타 제품) 각각 관세 철폐
EU-요르단 특혜무역협정	- 2002.5월 발효 - 협정 발효일로부터 12년 내에 단계적 관세 철폐 (FTA와 유사한 성격의 특혜 무역협정)
싱가포르-요르단 FTA	- 2005.8월 발효 - 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 10년 되는 해에 무관세 달성
Agadir 협정	- 현재 추진 중 - EU-지중해 국가간 파트너십 일환으로 2004.2.25일 서명 (현재 국가별 인준 과정을 거치고 있음) - 참여국: 요르단, 튀니지, 이집트, 모로코

자료: 요르단 통상산업부

4) 대미수출 관세 및 쿼터 면제 구역 (QIZ)

□ 연혁

- 1995.10월, Amman Economic Summit에서 역내 기업인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Regional Business Council(RBC; 미국 주도로 결성된 요르단,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기업인 간의 상공회의소 성격) 창설
- 1996.3월, 미국 상.하원 의결로 이스라엘과의 FTA 이행법을 개정, 대통령에게 West Bank와 가자 지구, QIZ 내 생산품에 대해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1996.11월, 미 클린턴 대통령은 포고 6955호를 통해 West Bank와 가자 지구, QIZ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미국-이스라엘간의 FTA 협정을 적용하여 무관세, 무 쿼터 혜택을 부여한다고 발표
- 1997.1월, 요르단-이스라엘간 QIZ 운영에 관한 협력의정서 서명
- 1998.3월, 미국USTROI 요르단 북부 이르비드 시에 소재한 AL-Hassan 공단을 세계 최초의 QIZ로 지정, 발표
- 2004.12월, 이집트에게도 QIZ 혜택 부여

□ 원산지 규정

- 무관세, 무 쿼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 West Bank와 가자 지구, QIZ 및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2) 미국으로 직접 수출되는 제품이어야 함.
- 수출 물품은 West Bank와 가자 지구, QIZ 및 이스라엘에서 전적으로 (wholly) 제조되거나 혹은 이들 지역 내에서 새로운 제품으로 변형된 제품이어야 함. (단, 섬유나 의류 제품의 원산지 규정은 우루과이 라운드 원산지 규정 적용)
- 구체적으로는 1)수출물품 평가가치의 최소 35%가 QIZ에서 생산되거나 또는 2) 요르단 및 이스라엘 생산업자가 각각 20%의 생산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3) 최소요건 35% 중 11.7%는 요르단 내 QIZ에서, 8%는 이스라엘에서(고급기술을 요하는 제품의 경우는 7%), 그리고 나머지 15.3%(고급기술을 요하는 제품의 경우는 16.3%)는 요르단 내 QIZ, 미국, 이스라엘, West Bank, 가자 지구에서 생산되어야 함. 단,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미국산 요소의 비중은 15% 이내로 제한함.

III. 무역

1. 수출입동향

2006년 요르단의 총 수출은 JD 36억 7천만을 기록, 전년동기비 20%가 증가하였다. 2005년 10% 증가에 이어 수출 증가 폭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 내용면에서는 재수출이 전년 동기비 59%가 증가하여 전체 수출증가를 주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동 기간 중 수입은 JD 81억 2천만으로 전년 동기비 9%가 증가하였다. 수출 증가율에 비해 수입 증가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입 절대금액의 차이로 인해 무역수지 적자폭은 JD 44억 5천만으로 전년 동기비 2%가 확대되었다.

요르단의 수출입 동향

(단위 : JD백만, %)

구분	2005	2006	증감률
순 수출	2,570.2	2,902.7	+12.9
재 수출	479.3	760.4	+58.6
총 수출	3,049.7	3,668.1	+20.1
수입	7,442.9	8,115.8	+9.0
무역수지	-4,393.4	-4,452.7	+4.1

자료: Economic Business Monitor (2007.3월)

2006년 수출입을 지역별로 보면, 우선 수출의 경우 미국이 31%의 점유율로 최대 수출 대상국에 올라있으며, 이어 이라크, 인도, 사우디 등의 순을 보이고 있다.

수입은 원유수입 급증으로 인해 사우디가 전체 수입의 26%를 점유하는 최대 수입대상국이며, 이어 중국, 독일, 미국 등의 순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JD 2억 6천만으로 7위의 수입 대상국에 올라있다.

2006년 주요 국가와의 수출입 동향

(단위: JD백만, %)

수출				수입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미국	905.1	+14.5	31.2	사우디	2,080.1	+18.3	25.6
이라크	326.6	-14.0	11.3	중국	848.1	+23.5	10.4
인도	279.9	+13.6	9.6	독일	631.6	+5.8	7.8
사우디	251.0	+45.7	8.6	미국	385.4	-7.6	4.7
UAE	173.0	+80.5	6.0	이집트	342.0	+31.0	4.2
시리아	110.3	-2.5	3.8	이탈리아	297.8	+19.3	3.7
이스라엘	85.2	+12.6	2.9	한국	255.7	-3.5	3.2
쿠웨이트	66.0	+32.5	2.3	일본	252.8	+20.1	3.1
레바논	46.8	+4.5	1.6	터키	215.6	+18.7	2.7
이집트	34.2	+16.9	1.2	영국	184.7	-11.7	2.3

자료: Economic Business Monitor (2007.3월)

품목별로는 주요 광물인 인광석과 가성칼리, 의약품 등 원료와 기초소재가 전통적인 주요 수출상품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 QIZ지역에서의 대미 섬유 수출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의류 등 섬유 제품이 최대 수출품으로 등장, 주력 수출품의 구조가 바뀌고 있다.

수입측면에서는 원유의 비중이 18%로 압도적으로 높으며, 이어 자동차 및 부품, 전기 및 통신기기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전국적인 건설 붐을 반영하여 기계 건설장비, 철강 제품 등의 수입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6년 주요 품목별 수출입 동향

(단위: JD백만, %)

수출				수입			
품목	금액	증감률	비중	품목	금액	증감률	비중
섬유류	1,086.1	+17.4	37.4	원유	1,196.5	+20.1	17.9
제약	211.0	+6.2	7.3	자동차 및 부품	607.6	+18.8	9.1
가성칼리	181.2	-7.6	6.2	기계류	595	+17.9	8.9
채소류	162.1	+2.1	5.6	직물류	591	+6.5	7.7
비료	151.4	+23.6	5.2	철강	312	-1.6	4.7
인광석	112.8	-5.4	3.9	제약	208	+11.8	3.1

자료: 요르단 통계청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가. 교역 개황

우리나라의 대 요르단 수출은 2004년 5억 3천만불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부진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라크 정부의 연식 제한조치로 인해 이라크로의 중고차 재수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이 주요인이다.

2007년 9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대 요르단 수출은 전년 동기 비 2%가 감소한 2억 7천만불을 기록, 2005년도 11%, 2006년도 23%에 이어 3년 연속 수출 감소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 순위도 계속 하락, 2004년에는 54위를 기록하였으나 2007년 9월말 현재에는 76위를 기록하고 있다. 수입은 작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2000년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요르단내 수출산업의 미발달로 규모는 여전히 미미하다. 수출 물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2004년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대 요르단 무역수지 흑자폭 (약 5억 달러)도 2007년 9월말 현재 2억 2천불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우리나라의 대 요르단 교역 동향

(단위: US\$백만)

구분	2003	2004	2005	2006 (증감률)	2007.1-9 (증감률)
수출	321	526	468	359 (-23.2%)	269(-1.9%)
수입	15	30	40	43 (+8.0%)	43 (36.2%)
무역수지	306	496	428	316	226

자료: KOTIS

나. 대 요르단 수출

2005년에 이어 대 요르단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의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2006년 중 수출은 전년 비 23%가 감소하였다. 2007년 1-9월 중에도 자동차 수출부진(-8.8%)로 인해 전년비 2% 감소하였다. 이 같은 자동차 수출 부진은, 자동차 수입연식 제한 조치로 인한 대 이라크 우회수출 길 봉쇄, 2006년 중 3차례에 걸친 유가인상의 여파로 인한 저소득층의 중고차 수요 위축, 자동차 세제 변경 (배기량 기준 → 전 차종 동율, 7년이상 중고차에 대한 고가 등록세 부과) 등으로 인한 중 소형 차량 및 중고차 시장 위축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자동차 수출 감소가 지속되면서, 착실히 시장 확대를 거듭해 왔던 자동차 부품 수출도 2006년 이후 (-)증가율로 전환되었다. 자동차 수출 부진의 여파가 부품시장에도 본격 여파를 미치고 있는 것이다.

국내 L사의 송전선 가설공사 종료 후 급감하였던 전선 수출은 2007년들이 국내업체의 송배전 공사 수주가 재개되면서 2006년 63% 감소에서 2007년에는 92% 증가로 반전되었다. 이외에 최근 들어 첨단 디지털 제품 마케팅이 강화되면서 PDP 등 영상기기, 고급 냉장고 및 세탁기 등의 수출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반면, 지난해 회복기미를 보였던 무선통신기기와 건설광산기기, 섬유기계, 종이제품 등의 수출은 2007년 들어 부진세로 전환되었는데, 부문별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다.

- 무선통신기기: 시장 지배자인 NOKIA의 시장장악력 확대
- 섬유기계: 해외에서의 경쟁 격화에 따른 요르단 내 산업 위축
- 건설 기계: 국내 건설 경기 위축 전망

우리나라의 대 요르단 20대 수출품목별 수출 실적

(단위: US\$백만, %)

품목	2006 (증감률)	2007.1-9 (증감률)
자동차	200 (-26.4)	138 (-8.8)
영상기기	11 (+12.3)	12.7 (+86.1)
냉장고	8 (+5.3)	11.3 (+60.3)
자동차 부품	13 (-21.1)	8.8 (-10.2)
전선	4 (-63.4)	7.9 (+92.4)
가정용회전기기	14 (+3.0)	7.8 (-35.3)
고무제품	11 (+17.6)	7.2 (-6.3)
편직물	8 (+55.2)	6.7 (-10.3)
합성수지	3 (-46.5)	6.5 (+156.0)
알루미늄	0.2 (-14.7)	5.7 (-)
건전지 및 축전지	5 (+7.8)	4.3 (+5.6)
난방 및 전열기기	6 (+58.4)	3.6 (-17.0)
건설광산기계	5 (+53.4)	3.4 (-14.1)
기타석유화학제품	9 (+267.5)	3.2 (-43.3)
금형	0.5 (+537)	2.9 (+424.2)
인조장섬유직물	4 (-43.6)	2.8 (-29.0)
공기조절기	7 (-66.8)	2.7 (-14.9)
플라스틱 제품	3 (+13.4)	2.5 (+18.3)
섬유 및 화학기계	6 (+13.8)	2.2 (-61.4)
종이제품	3 (+20.2)	1.7 (-31.0)
무선통신기기	4 (+33.7)	0.4 (+22.7)

자료: KOTIS, MTI 3단위 기준

참고: 20대 품목은 2007년 기준

다. 대 요르단 수입

요르단의 수출산업 기반이 넓지가 못해 우리나라의 대 요르단 수입은 나프타 등 기타석유 제품과 칼륨비료 등 원부자재에 집중되고 있다.

2007년 들어서는 칼륨비료 (비료원료)의 수입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최근 들어서는 올리브 오일, 초콜릿 등 주요 작물의 대한 수출 가능성을 타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은 미흡한 수준이다.

주요 품목별 대 요르단 수입 실적

(단위: US\$천, %)

품목	2006 (증감률)	2007.1-9 (증감률)
기타 석유화학제품	14,103 (+5.2)	12,895 (119.1)
칼륨비료	5,187 (-53.4)	11,111 (+114.4)
기타 비금속 광물	13,219 (+2,767.2)	9,938 (-13.0)
알루미늄	4,244 (-38.7)	3,213 (-1.9)
동 제품	1,954 (+167.3)	1,781 (-5.8)

자료: KOTIS, MTI 3단위 기준

3. 수입규제제도

가. 개관

요르단은 2000년 WTO 가입 이후 2001년 수출입 법령 (Imports and Exports Law No.21) 을 WTO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재정비, 원칙적으로 자유무역을 지향하고 있다. 동 수출입 법령 정비에도 불구하고 2007년 9월 현재 수입이 규제(Prohibited) 혹은 제한 (Restricted) 되고 있는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수입 규제 품목
 - 마약 및 향 정신성 약품, 폐 플라스틱, 디젤용 승용차
- 수입 제한 품목
 - 요르단 정유공사 수입 독점 품목: 원유 및 동 제품, 가정용 가스 실린더
 - 요르단 시멘트 공사 수입 독점: 시멘트
 - 요르단 인광공사 수입 독점: 화약, 폭발물
 - 타이어 재생공장 보유 및 인가업체 수입 독점: 중고타이어
 - 국방부 수입 독점 품목: 무기 및 방산제품

나. 수입관련 제도

1) 원산지 규정

요르단 정부는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다. 한국 내에서 수출을 하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받아 수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2) 세이프가드

2002년 관련 법령 정비(National Production Protection Law No.50) 이후 세이프가드 발동실적은 카세트 테이프, 파스타, 위생복 등 3회로 미미하다.

3) 반덤핑, 상계관세

2003년 반덤핑 및 보조금관련 규정 (the Anti-Dumping and Anti-Subsidies Regulation No. 26)을 개정, 시행 중에 있으나 발동실적은 없다.

4) 환경 관련 규제

기존의 유연 차량을 무연 차량으로 바꾸어 나간다는 계획 하에 우선적으로 2007.1.1일부터 촉매변환 장치 (Catalytic converter)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 기타 수출규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시리아 및 이라크로의 (재)수출금액이 JD 1,000을 넘을 경우 수출승인 필요
- 철, 알루미늄, 동 등 금속 스크랩 수출 시에는 톤당 JD 25의 수출과징금 납부

4. 대한수입규제 동향

2007년 9월 현재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는 없다.

5. 관세제도

가. 개관

요르단은 1997년 3월 2일, 통합 관세법 개정 발효를 통해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일괄적으로 재정비 하였으며, 이후 2000년 4월 WTO에 가입하면서 관세제도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졌다.

요르단 정부는 WTO 가입과 함께 2000.4.1일부로 최고 관세율을 종전의 35%에서 30%로 인하하는 한편, WTO와의 관세 양허 일정에 따라 2005년에는 25%로, 그리고 2010년까지는 20% (담배, 술 등 특별소비용품 제외)까지 인하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관세 측면에서의 시장접근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요르단의 세번은 한국과 같이 HS를 사용하고 있다.

나. 관세관련 제도

1) 관세평가

WTO의 관세평가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CIF 인보이스 가격이 관세율 산정의 기준이 되고 있다. 수입물품의 가치는 통관 시 중앙은행에서 환율(JD; JD1=US1.41)을 적용하여 요르단 디나르화로 전환되어 산정되며, 특별한 예(Under Value 물품 등)를 제외하고는 세관의 자의적 관세 적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2) 품목별 세율

세율은 품목별로 0%, 5%, 10%, 15%, 20%, 25%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07년 1월 현재 전체 품목의 가장 평균 세율은 13%이다. 수출용 원자재와 생산요소 투입용 원부자재, 의약품, 긴급 생필품 등의 수입에 대해서는 영 세율이 적용되며, 기타 소비용품은 대개 2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술과 담배 등은 50-180%의 고 세율(특별소비세 포함)이 부과된다.

요르단과 자유무역협정 혹은特惠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 (미국, 싱가포르, EU, EFTA, 아랍국 등)에 대해서는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년 관세율이 인하되고 있으며, 그 외의 국가는 공통적으로 WTO 양허 세율이 적용된다. 품목별 수입관세는 관세청 웹사이트 www.customs.gov.jo 를 통해 검색이 가능하며, 제품명 (Key word) 및 Hs code 입력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3) 부가 세제

모든 수입상품에 대해서는 일반 판매세(General Sales Tax)가 부가세 형식으로 부과되는데, 부과방식은 (CIF 수입가 + 수입관세) X 일반 판매세율이다. 2007년 1월 현재 통상적인 물품의 일반 판매세율은 16%이다. 단 석유제품, 의약품, 농산품 (기초 농산품이 아닌 경우는 4%)등은 판매세가 면제된다.

6. 주요인증제도

가. 개관

요르단은 국제표준을 넘는 과도한 인증 및 표준제도는 없지만, 개도국들 중에서 일부 운영하고 있는 영사 인증제도, 선적적 검사제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필요하다. 표준규정과 관련해서는 특이사항이 없으며, 관련 사항은 Jordan Institute of Standards and Metrology의 웹사이트 (www.jism.gov.jo)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나. 주요 인증관련 제도

1) 영사 인증

요르단은 해외의 수출업체들이 요르단으로 물품을 수출할 때에 상업송장 (Invoice)와 원산지 증명 등 무역관련 서류에 대해 국내 상공회의소 인증을 받은 후, 각국 주재 요르단 대사관에서 별도의 영사 인증을 받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 제도 도입 배경

- 1940년대 초반, 본격적인 무역활동이 시작되면서 요르단 수입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혹은 작성된 서류와 다른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제품 수입 전에 상업송장이 실제와 동일한지 여부와 함께 송장에 기재된 서명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1947년 동 제도를 도입함.
- 동 제도는 1947년에 도입된 후 1989년 (수수료 인상)과 2000년(수수료 부과방법 개선)에 일부 개정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제도 운영 주체

- 재무부 관세국에서 운영을 총괄하며, 실제 수수료 징수 업무는 해외 소재 요르단 대사관 (영사관)에서 집행하고 있음.

□ 적용 범위

- 요르단으로 수입되는 전체 수입품

□ 수수료 부과 기준

- 법령 제 20호 (관세법) 제 31조 및 영사 수수료 징수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
 - WTO 회원국: 송장 건별로 수수료 부과 (일반 상업송장의 경우 JD 21 수준)
 - WTO 비회원국: 송장 금액별로 수수료 부과
- 인증 서류 없이 수입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관세청장 재량으로 물건 가액의 2%를 넘지 않는 범위 내 현금이나, 4% 범위 내 유가증권 예약을 통해 통관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인증서류 제출 시에는 60일 이내에 예탁금을 환불 조치함.

□ 기타 조항

- 2005.1.1. 일부 범 아랍 자유무역협정 발효와 함께 협정가입 16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영사 수수료를 면제함.
- 영사인증은 수출업자가 소재한 국가의 요르단 대사관 (영사관)에서 받아야 하며, 한국에서는 주한 요르단 명예영사(현대화재해상보험) 혹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아랍국가 대사관에서 확인을 받아야 함.

2) 선적 전 검사 : 상품 적합성 인증프로그램

요르단 정부는 소비자 보호 및 국내 제조업체 보호를 위해 2003.9월부터 요르단으로 들어 오는 모든 수입 품목에 대해 선적 전 검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명 “DAMAN Program (상품 적합성 검사; product conformity certification program)” 으로 알려진 동 제도는 수출국에서 상품을 선적하기 전에 정부에서 지정한 국제공인 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검사에 따른 소요비용은 인보이스가격의 1%이며 최소비용은 JD200 이다.

선적 전 검사 대상 품목이 아닌 경우는 RSS(ROYAL SCIENTIFIC SOCIETY; 공산품) 혹은 보건부 및 국공립 병원(의약품)에서 규격, 성분, 안전도 테스트 등을 받도록 규정한 예도 있다. 요르단 정부는 동 제도 운영에 따른 수입업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2007년 중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 현 요르단 선적전 검사제도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운영 목적

- 환경 및 건강 보호, 요르단 및 국제규격에 부합되는 기준을 설정하여 안전조치 강화
- 규격 미달 제품 수입금지, 제품 품질 향상 및 저가품 덤핑방지, 모조품 색출

□ 검사 대행기관

- Bureau Veritas (프랑스 사)

□ 검사 방법 및 조치

- 수입품에 대해서는 수출국에 주재하는 Bureau Veritas 사무소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불합격 시 수입 금지 조치

□ 검사 절차

- Inspection Order (IO)
 - 수입업자는 Bureau Veritas 암만 지사를 접촉하여, 수입물품 상세내역이 포함된 IO를 신청하고, Bureau Veritas 암만 지사는 IO를 수출자가 소재하는 국가의 Bureau Veritas 사무소에 통보
- 수출업자 접촉
 - 연락을 받은 CRE는 해당제품 수출업자에게 수출품 품질검사 장소 및 시간 통보
- 서류 심사
 - CRE는 수출업자가 제공한 물품 상세내역을 통해 요르단 기준 부합여부를 평가
- 실질 검사 (Physical Verification)
 - 선적물품과 서류상의 제품의 동일성 여부를 검사하고, 의심이 가는 물품에 대해서는 샘플테스트 실시
- 인증서 발급 및 전달
 - 품질검사 후 CRE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인증서(Certificate of Conformity) 발급
 - Bureau Veritas 암만 지사는 인증서를 전달 받아 당해 수입업자에게 전달
 - 수입업자는 인증서 수령 후 통관절차 이행

□ 대상 품목

- 품목별로 Group 1-4까지 분류하고 있으나 절차는 동일
 - 주요 대상 품목: 중고 차량(승용차, 버스, 트럭 등), 차량용 타이어, 전자 제품(냉장고, 오븐, 컴퓨터, TV, 진공청소기 등), 통신기기 (유무선 전화기, 안테나 등), 완구류(인형, 자전거, 자동완구 등), 개인 안전용품 (헬멧, 마우스, 마스크 등), 식품류 (육류, 우유, 채소 등)
 - 특기사항: 중고차의 품질검사는 수출 당사국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요르단 내 “Zarqa Free Zone”에서 이루어지며, 검사수수료는 대당 US\$47.5
 - 상세사항은 ' www.daman-program.com.jo ' 참조

3) 검사 제도

요르단 세관은 음식료품, 농산품, 동물성 제품, 위성 수신기, 전화기기 등에 대해 세관 통과 시 유관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특별 수입허가증 (검사증)을 요구하고 있는 바, 주요 정부 기관별 허가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다.

정부기관명	품 목 명	비 고
통상산업부	밀가루 및 동 부산물	Import License
농림부	냉동 동물, 산 동물, 신선/냉동/냉장육, 부패 방지 처리 야생 동물, 우유 및 유제품(유제품은 요르단과 양자 간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수입을 할 경우는 제외)	Permit
농업 마케팅 공사	감자, 양파, 마늘, 신선 과일 및 채소류(신선 과일 및 채소 류는 요르단과 양자간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수입을 할 경우는 제외)	Permit
내무부 공공 안전국	무기 및 군수품, 폭약, 유류를 사용하는 장난감 차량, 원격 조정 장난감 비행기, 상업용 전기 및 전자게임, 자위용 전기기기	Permit
국방부	군용 의류	Permit
통신규제위원회	무선 수신기, 방송장비, 무선경보장치, 원격 조절용 기기(TV와 비디오는 제외), GPS 장치, 휴대전화기, 무선 마이크로 폰, 통신 터미널, 이동용 TV수신기, 원격조정 장난감 비행기	Permit
국영 라디오 및 TV 공사	디코더, 위성수신기	Permit
중앙은행	칼라 복사기	Permit
보건부	의약품, 향생물질, 건강용 식품첨가물, 진정제, 식품표백제, 석면 파이프 및 패널, 냉동 아이스크림, 어린이용 음식 및 분유, 산소 및 질소 산화물	Permit
환경부	할로겐 사용 물질, 프레온 가스	Permit
정보통신부	우편계기	Permit
수력관개부	지하수를 끌어 올리는데 사용하는 드릴류	Permit
군 정보부	소형 모니터용 카메라	Permit

7. 지적재산권

가. 개관

요르단은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에 서명하고 국제지적재산보호기구 (WIPO)에 가입하고 있어, 제도적으로는 이미 국제 수준에 도달해 있다. 하지만 특허, 저작권 등의 시행이 엄격하지 못해 실효성 있는 집행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나. 부문별 운영 현황

1) 특허권

특허와 관련한 파리협약에 가입을 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집행은 국제 기준에 미달하고 있다.

현재 특허권과 관련하여 근간이 되고 있는 법률은 “특허 및 디자인법 (Patents and Design Law)이며, 대다수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출원주의를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채택된 특허는 관보에 게재되며, 관보 게재일로부터 2개월 동안 이해 당사자의 이의청구가 없거나, 혹은 이의청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관련 기관으로부터 기각될 경우 채택된 특허에 대해 특허권이 주어진다.

인정된 특허는, 1) 특허인정과 함께 등록비를 납부하고, 2) 매 4년마다 갱신 수수료를 납부하였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를 받는다. 특허권한은 타인에게 자유로이 이관될 수도 있는데, 동 내용은 반드시 관보에 게재되어 제 3자가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상표권

상표의 경우 국제기준에 맞추어 보호를 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서비스 관련 상표권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 출원주의, 관보게재, 이해관계자 이의제기, 의장권 인정 등은 특허권 관련 제도와 동일하다. 운영의 근간이 되는 법률은 상표법 (Trade mark Law)이다.

상표권은 출원일로부터 7년간 보호를 원칙으로 하며, 건 별로 최대 14년까지 추가 보호 연장이 가능하다.

3) 저작권

1992년 제정, 발효된 저작권 법 22호 (Copyright Law No.22)가 운영의 근간이 되고 있으며, 문학과 예술, 과학 등의 분야에서의 창작물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서면, 소리, 그림, 사진, 영화, 책, 연설문, 연극, 작곡, 응용예술, 3차원 예술작품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이 모두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저작권 보호에 있어서 내외국인 차별은 없으며, 보호기간은 저작자 생존 기간과 사후 50년이다. 공동 저작물의 경우는 공저자 중 가장 마지막까지 생존한 자 사후 50년이다. 주무부처 (문화부)의 저작물 발간 혹은 재발간 권고 이후 6개월 이내에 발간 혹은 재발간이 없을 경우에는 문화부에서 관련 저작물을 발간 혹은 재발간 할 수 있다. (일정액 보상)

8. 통관/운송

가. 개관

요르단 만의 특별한 통관 절차는 없으며 통상적인 국제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공항은 암만 소재 퀸 알리아 국제 공항 (QUEEN ALIA INT'L AIRPORT, AMMAN CIVIL AIRPORT)과 아카바 국제공항 (AQABA INT'L AIRPORT) 등 3개가 소재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국제공항으로서 역할을 하는 곳은 퀸 알리아 국제공항이 유일하다. 동 공항은 1982년 완공되었으며 수도 암만에서 남쪽으로 약 40킬로미터 지점에 위치해 있다.

국제항구는 아카바(AQABA) 항구가 유일하다. 수도 암만에서 남쪽으로 350Km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자동차로는 암만 에서 약 4시간 소요된다. 아카바 항의 연간 물동량은 40만 TEU이며, 최근 들어 항구 확장 및 시설 현대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 하고 있다.

나. 통관 절차 및 운송

우선 요르단 내에서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들은 다음과 같다.

- JD 2,000 이상의 비상업적 목적의 화물
- 모든 종류의 비스킷 류 (국내 제조업체 보호 목적)
- 생수 (Mineral water)
- 제조용 건유 (Dried milk)
- 중고 타이어
- 기타 부 기관으로부터 사전 허가 혹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정한 품목

요르단 내에서 수입을 하고자 하는 내국인 및 외국 무역업체는 공히 통상산업부에서 수입업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물품 통관 시 제시하여야 한다. 수입업 증명서가 없을 경우에는 (개인 자격으로 수입을 할 경우) 수입 물건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수입 벌과금 성격; 수입업자가 물품 수입 후 정부에 납부하는 제세에 상응하는 수준의 금액)을 세관에 납부하여야 통관이 가능하다, 단, 병원과 은행, 호텔 등에 대해서는 Limited Card를 발급하여 특정 목적 물품수입에 대해 수입 벌과금 부과를 면제해 주고 있다.

한편, 요르단으로의 선적을 위해서 수출업자가 준비해야 할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다.

- AWB 혹은 B/A 원본 1매 (선사 인증 원본) 및 복사본 2매
- 상업송장(수량과 제품에 대한 상세내역명기), 필요한 경우 Serial Number(원본 2, 복사본 3)
- 포장 리스트 (원본 2매, 복사본 3매)
- 원산지 증명 및 영사인증 (원본 1매, 복사본 3매)
- Shipping Agent의 운송 요구서 2매

요르단 도착 후 통관은 반드시 등재된 Forwarding Agent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수입업자는 수입통관 전에 통관업체를 지정하고 동 업체에 물품통관 및 수령을 의뢰하여야 한다. 인보이스가 영어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아랍어 번역본을 반드시 첨부 (통상 수기로 이루어짐) 하여야 한다. 서류가 완전히 구비되고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졌을 경우, 세관은 인보이스에 근거 하여 품목별로 관세 및 판매세(16%)를 부과하며, 관세와 판매세 납부 후에 통관과 물품 이관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지게 된다.

통상적으로 수입물품이 도착하는 곳은 암만의 쿤 알리아 국제공항 (Air인 경우)과 아카바 항 (Shipping인 경우) 등 2곳 이며, 아카바 항의 경우 최근 들어 개선은 되고 있지만 항구규모에 비해 물동량이 많아 화물 적체 시간이 다소 길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카바 항구에서 통관한 물품은 시리아와 이라크, 사우디 아라비아 등지로 육상 교통을 통해 이동가능하며, 도로사정은 양호한 편이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로 가는 경우에는 도로사정은 좋지않지만 심한 국경 검문으로 운송에 시간소요가 많은 편이다.

한국에서 물건을 실어 보낼 경우 항공의 경우 대략 5-7일, 해상의 경우 3주-1달이 소요된다. 요르단 도착 후 통관소요 기간은 항공의 경우 일주일, 해상의 경우 2주가 각각 소요된다. 한국에서 요르단으로의 운송 비용은 서비스의 범위와 운송 조건 등에 상이하나 대략적인 기준가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해상 운송 (FOB, 부산 -> 아카바 컨테이너 기준)
 - 20foot: US\$1,600 (통관/처리/운송 \$850 + Documentation \$150)
 - 40foot: US\$2,800 (통관/처리/운송 \$1350 + Documentation \$150)
- 항공 운송 (FOB 기준)
 - 1 CBM: US\$180 내외 (100 ~120 handling + documentation)

요르단 내 주요 운송업체

업체 명	사장	담당자	전화	팩스	E-mail	주소 (P.O. BOX)
Salam shipping & Forwarding agency - Al Naouri Group	Ibrahim Naouri. (Group Chairman)	Hanadi Shraideh	(962-6) 5650893	(962-6) 5698602	salam@naouri.com	1445 Amman 11953 Jordan.
Jordanian coast cargo services	Tarik Diab	Alaa Ghatasheh	(962-6) 5515754	(962-6) 5515752	info@jordaniancoastco.com	82 Amman 11953 Jordan
Eastern shipping company	Husam Samandar	Maher Droubi	(962-6) 4621775	(962-6) 4656270	eastern@go.com.jo	815408 Amman 11180 Jordan.
Horizon freight services est.	Jalal Shamasneh	Ayman Haddad	(962-6) 5623661	(962-6) 5685831	airfreight@horizon.com.jo	330322 Amman 1133 Jordan
Global Logistics Freight Services and Shipping Agencies Co.(GLFS)	Husam Salah,	Husam Salah	(962-6) 5662836	(962-6) 5662830	www.glfsgroup.com	6702 Amman, 11118 Jordan

IV. 투자

1. 투자환경

요르단 정부는 현 압둘라 국왕 취임 이후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경제개혁의 핵심과제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관련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정보통신과 관광, 서비스 분야에서 많은 개혁과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강력한 공기업 민영화 조치와 경제개방 정책과 함께 철도운송, 전시 컨벤션, 유통, 수자원 및 유전 개발, 송유관 건설 등 다양한 분야로까지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의 전략적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낮은 국민 소득과 작은 소비 시장, 원거리, 주변 지역정세 불안 등으로 인해 우리기업들에게 요르단은 아직까지 크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지는 못하다.

하지만, 2005년 1월 1일부로 16개 아랍 국가를 공동시장으로 묶는 범 아랍 자유무역지대가 출범하였고, EU와의 특혜 무역협정 체결, 서부 중동지역에서 차지하는 요르단의 지정학적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EU 시장과 아랍 시장진출을 심화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그 역할에 대한 기대 및 투자진출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걸프 지역 국가들로부터 중동의 안전지대로서 특히 각광을 받고 있는 요르단의 투자환경을 우리의 입장에서 장점과 단점으로 나누어 간략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장점
○ 1995년 투자촉진법에 의한 다양한 세제 인센티브 제공 - 지역에 따라 최고 20년간 법인세 면제 ○ 투자 규제 분야 대폭 완화 - 주식시장, 보험, 은행, 통신, 농업부문 투자에 대해 50% 실링 (제한) 해제 - 최소 투자금액 한도 인하: JD 100,000 → JD 50,000 ○ 지정학적 위치 - 이라크, 시리아,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가는 관문 - 홍해를 통해 유럽과 아시아, 북아프리카를 연결 ○ 정치적 안정과 뛰어난 인프라 - QIZ, Free-zone ○ 양질의 노동력 - 낮은 문맹률(9%) - 전 인구의 17%가 고등 교육 이수 - 낮은 임금수준 ○ 개방, 자유시장 주의 지향 - 미국 등 20여 개국과 FTA 체결
단점
○ 관료주의, red tape, 제도 및 법 집행 과정의 불투명 등으로 인한 “Hidden Cost”가 곳곳에 상존 ○ 좁은 국토와 적은 인구(500만 명을 조금 넘는 수준)로 인한 자체 시장 규모 미미 ○ 전문 분야에서의 숙련공 확보 미흡 ○ 노동자 중심의 노동법 - 장기 휴가, 병가, 소송 등 ○ 라마단 (1달간), 종교휴일 (이드 등) 비근로 공휴일과 종교 휴일 다수 ○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 - 온정주의, 부족국가 전통으로 인한 낮은 근로 의욕 - 여성 노동 이용의 한계(결혼 후 직장 생활을 이어가기 힘들) ○ 세계 5위의 물 부족 국가로 선정될 정도의 만성적인 물 부족 국가 - 2005년 1인당 물소비량 90리터(세계 평균의 1/15) - 제한 급수로 제조업 투자 활동 제약 ○ 산업 기반 미흡으로 연관산업 인프라 취약

2. 외국기업 투자동향

2006년도 요르단의 총투자 규모는 건수로는 578건, 금액 면에서는 25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2005년 총 투자 규모가 10억 달러를 돌파한 이래 2006년에는 전년비 140% 이상 증가하는 등 최근 3년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투자 동향

(단위: US\$ 백만)

연도	외국인투자	국내 투자	총 투자
2003	118	250	368 (-13.2%)
2004	192	398	590 (+60.3%)
2005	389	670	1,059 (+79.5%)
2006	1,191	1,392	2,583 (+143.9%)

자료: 요르단 투자청 (JIB), ()내는 전년비 증감률

2006년도 투자를 부문별로 보면, 국내 경기호조를 바탕으로 제조업 투자가 전체의 90% (건수)와 81%(금액)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호텔, 농업, 컨벤션 투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투자원 별로는 국내투자가 전체 투자규모(금액)의 54%를,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 46%를 기록, 국내투자가 다소 앞서는 모습을 보였다.

2006년도 전체 외국인 투자를 지역별로 보면, 아랍권 국가들의 비중이 전체의 92%를 차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국가별로는 사우디아라비아 (66%), 이라크 (11%), 쿠웨이트 (8%) 등이 대표적이다. 2006년 중에는 이라크 이주민들의 증가에 힘입어 이라크인들의 투자가 크게 늘어난 것이 돋보인다.

2006년도 지역별/부문별 투자 실적

(단위: US\$ 백만)

투자 원		지역별		부문별
국내투자	1,392	국내	1,329	제조업 : 2,099 호텔 : 342 농업 : 81 병원 : 33 컨벤션 및 전시 : 28
외국인투자	1,191	아랍	1,090	
		미국 및 캐나다	30	
		유럽	13	
		기타	58	
계			2,583	

자료: 요르단 투자청 (JIB)

2007년 9월 현재, 산업 분야별로 요르단에 투자하고 있는 주요 외국인 투자기업은 다음과 같다.

산업 분야	주요 외국인 투자기업
정보통신	France Telecom (불), Motorola (미), Fastlink, Umniah (이상 쿠웨이트)
제조업	Lafrage (불; 요르단 시멘트에 자본투자), Saskatchewan (캐; 국영 가성 칼리공사에 자본투자), Kamil Holding Ltd (부루나이; 국영 인광공사에 자본투자), The Invested Co. for Building Materials (사우디; 요르단 시멘트에 자본투자)
서비스업	Aldeasa (스페인; 공항 면세점), Alpha (영; 비행기 기내식), Kuwait Public Warehousing Co. (아카바 항 창고시설), UAE Tourist Inv. (호텔)
부동산 개발	Saraya Aqaba (레바논; 아카바 항 인근 대규모 주거시설), Oger (사우디; 압달리 재개발 프로젝트), Gulf Finance House B.S.C. (바레인; 암만 시내 대형 Office 건물 및 주거시설), Grand Real Estate Co. (쿠웨이트; 사해 인근 호텔 및 위락시설 건립)

기타, QIZ 지역 내 주요 투자진출을 하거나 혹은 사무소로 진출한 예는 다음과 같다.

구분	주요 투자진출 사례
QIZ 진출	South Asia Clothes, Falcon (이상 중국; Woven Government) Oasis Garment, Formosa (이상 대만; Garment) Crystal Ready Made Garment (파키스탄; Garment) Honorway (홍콩; Knitted Garment)
사무소	Mitsubishi, Itochu, Marobini (이상 일본), Altop, Amecke Fruchtsaft, Deutsche Unilever (이상 독일), IBM, Microsoft, Cisco (이상 미국)

3. 우리기업 투자동향

2007년 9월 현재 대 요르단 투자업체로는 KYC Jordan이 유일하다. KYC Jordan은 2003년 수도 암만 인근의 사합 공단에 공장을 설립, 운영 (투자액 14만달러)하고 있으며, 주 생산 품목은 컴퓨터 자수제품이다. 주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섬유업체에 납품하고 있으며, 종업원 수는 50명이다. 이외에 국내 대기업의 지사로서는, LG전자, 삼성전자, 대우 일렉트로닉스, LS전선, 대우자동차판매, 현대 건설 등 6개사가 요르단에 진출하여 활동을 하고 있다.

4. 주요 투자법 내용

가. 투자법 개요

외국인 투자관련 기본 법규는 ‘1995년 투자촉진법’(1995.10월 법률 제 16호로 발효)이며, 2000년 일부 개정 (IT 산업, 은행, 보험, 통신 등 분야에 외국인 지분을 100%로 상향 조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투자 관련 기구로는 투자촉진 최고회의 (The Higher Council for Investment; 최고 의결 기구)와 투자청(Jordan Investment Board; 실무 기구) 등 2개 기관이 있다. 투자청 내에는 투자허가 관련 민원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One Stop shop (OSS)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OSS의 주요 지원사항은 회사 설립, 투자 허가 획득, 투자자의 장기체류 허가 및 노동인력에 대한 비자 획득 지원 등이다.

‘1995년 투자 촉진법’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외국인 투자가의 권리 보장
 - 법에 따라 요르단 내 투자회사의 완전 소유, 동업 및 지분참여 가능
 -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내국인 대우
 - 공공 이익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가의 재산을 수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도 정당한 보상 실시
 - 투자 원금 회수 및 과실송금 인정
- 외국인 투자가의 의무
 - 영업 또는 생산 개시일을 투자청에 서면으로 제출
 - 고정자산 목록 기재 및 관리, 공인 회계사에 의한 정기 회계감사 수감
 - 투자청의 정보 요청 (자산, 인력 등)에 제공 의무

- 투자자산의 권리 변동
 - 투자자산에 대한 면세기간 중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후임자가 전임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사업을 계속 수행하며, 면세기간은 잔여기간에 한정
 - 면세장비의 판매, 이전, 재수출 시에는 투자촉진 최고회의로부터 승인을 획득
 - 면세장비는 제세 부담을 전제로 타인에게 매각 가능 (투자촉진 최고회의에 통보)
 - 면세자산을 담보로 은행대출도 가능하나 이 경우 투자청이 동 사실을 관보에 게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 및 장부열람 허용
- 투자관련 기구
 - 투자촉진 최고회의 (최고 의결기구)와 투자청 (실무 기구) 설치 운영
- 분쟁해결
 - 투자자와 정부기관과의 분쟁은 당사자간 합의로 해결 가능
 - 분쟁 발생 후 6개월간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요르단 사업 당국 혹은 국제투자 분쟁 조정위원회 (The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 에 분쟁조정을 의뢰, 해결 가능

나. 투자 장려/제한/금지분야

1) 장려 분야

○ 요르단 투자청 제시분야

분야	산업 상황
전자 및 가정용 기기	- 1998-2005년간 200% 수출신장 (2005년 수출액 6억 달러) - 이라크, 시리아가 주요 타깃 시장 - 2005년 8월,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표준 규정 채택
자동차 및 부품	- 2개의 자동차 조립공장 운영 중 (버스와 군용 사륜구동 차량) - 8개의 부품공장 (라디에이터, 배터리, 유리, 필터 등) 운영 중
섬유 및 의류	- 최근 요르단 내에서 성장이 가장 빠른 산업 분야 - 고용인력 5만 명, 수출 13억 달러 - 최근 수년간 수출 200%, 고용 20% 신장, 주요시장에 무관세 수출 - 요르단에서 소싱 중인 주요 바이어: JC Penney, Levi's, Liz Claiborne, Gap, Gloria, Vanderbilt, Victoria's Secret 등
관광	- 2006년 관광객 657만 명, 관광수익 16억 달러 - 기독교 성지, 와디럼, 사해, Petra 등 세계적인 관광지 다수 - 의료 및 국제회의와의 연계 관광 확대 전망
제약	- 총 투자규모 4억 달러 - 아랍 최고의 수출규모 (2005년 3억 달러, 2010년 10억 달러 수출 전망) - 16개 제약회사에서 5,200명의 우수인력 고용 - 훌륭한 인프라 (약학 전문학교 8개, 연구소 4개, 병원 96개) - 연구개발 투자 장려 (Clinical Trial Law)
의료	- 아랍국가 중 최고의 의료 경쟁력(Arab World Competitiveness Report 2005) - 최우수 분야 : 심장외과, 콩팥이식, 안과 등 - 국민 1000명당 의사 수 22.4명 - 연간 의료 관광객 수 10만 명
정보통신	- 220개의 기업에서 1만 6천명 고용 - 최고 투자신장률 기록 분야(2000년 이후 총 15억 달러 투자) - 2005년 수출 1억 달러 - IT육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 2004년 통신업종 완전 자유화 - 투자유망 분야 : Call Center, Education platforms, e-learning, Arabic language content, Animation

- 주요 개발 프로젝트 분야
 - 쿤 알리아 국제 공항 확장 프로젝트 (3-5억 달러)
 - 암만-자르카 경전철 설치 프로젝트 (1억 5천만 달러)
 - 아카바 항만 재배치 및 개발 프로젝트 (8억 3천만 달러)
 - 요르단 정유공사 시설 확장 및 개선 프로젝트 (7억 달러)
 - Disi Water Conveyance 프로젝트 (6억달러)
 - 기타, 4개 화력발전소 신설, 가스 배송망 구축 프로젝트 등

2) 제한 및 금지 분야

- 외국인 투자 100% 지분 가능 분야
 - IT산업, 리스, 은행금융 서비스, 병원, 호텔, 통신, 보험, 환경, 케이터링, 선박 소유, 비행기 유지 보수 등
- 외국인 투자지분 50% 한도 분야
 - 건설, 도소매, 운송 (해상, 항공 및 기차) 및 부대 서비스, 폐기물 처리, 식당 등 음식료 서비스, 여행사, 수출입 서비스, 광고 서비스 등
- 투자 금지 분야
 - 보안 및 사설 탐정, 스포츠 클럽 (헬스클럽 제외). 건축용 석재 및 골재 채취, 통관 서비스, 택시/트럭/버스 등을 포함한 여객 및 화물 육상 운송 서비스

다. 투자 인센티브

1) 신규 및 추가 투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 혹은 감면조치

요르단은 지역 등급과 산업, 투자 성격 그리고 신규/추가 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인세율 (15-35%, 주식회사의 경우 15%) 감면 폭을 차등화 하고 있다. 지역 등급 분류는 일반적으로 수도 암만을 비롯하여 대도시인 자르카, 이르비드에 가까울 수록 A급지로, 대도시와 원격지 일수록 B, C급 지역으로 분류된다.

지역 등급	산업 및 투자 성격	신규 투자	추가 (시설 확장) 투자
A급	사해 주변 호텔 및 관광 시설 건립, 위락 전시 및 컨벤션 센터 건립	생산 및 운영 개시 후 10년간 25% 면제	생산 및 시설 확장 후 2년간 25% 면제
B급	QIZ 지역 투자 (특별히 지정된 지역은 제외)	생산 및 운영 개시 후 10년간 50% 면제	생산 및 시설 확장 후 3년간 25% 면제
C급	농업, 해상운송, 철도	생산 및 운영 개시 후 10년간 75% 면제	생산 및 시설 확장 후 4년간 25% 면제

이와는 별도로 정부에서 특별히 육성을 하고자 하는 지역과 산업에 대해서는 최고 20년 동안 법인세 일체를 면제해 주는 제도도 운영 중에 있다. (투자청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

2) 수입관세 면제

요르단 정부는 투자기업의 고정자산 수입 및 부품 수입 시 일정액의 수입관세 부과 (부가세 포함)를 면제해 주고 있다.

구분	내용
고정자산 구입	투자 승인 후 3년간 고정자산 수입에 대해 3년간 수입 관세 면제
부품 수입	고정자산 가액의 15%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수입 관세 면제

5. 진출형태별 절차

가. 진출 관련 기본제도

1) 외국인의 요르단 내 시설 설치와 자산 취득

통상적으로 요르단의 투자관계법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요르단 내에서 자신의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투자하는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군사적 목적의 시설이나 국가안보와 관련한 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련 특별법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다.

비 아랍계 외국인들이 요르단 내에서 재산을 취득하고 리스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특별한 규제가 없다. 다만, 이 경우에는 외국인의 자국 내 법률이 요르단 인들의 현지 재산 취득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야 하며 (상호주의 원칙) 또한 당해 외국인이 취득한 자산이 5년 내에 개발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외국인의 요르단 내 자산 취득과 승인에 관한 사항은 총리실에서 관장하고 있다. 농업용지는 원칙적으로 비 아랍계 외국인의 자산취득이 불허되나 다만, 당해 외국인이 농업부문에 투자하여 요르단 회사로 등록을 할 경우에는 농지 소유 등 모든 면에서 내국민 대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공통 투자진출 절차

먼저, 소정양식에 따라 투자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 시에는 투자금의 은행 송금 증명서 또는 현물 출자 시 통관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변호사를 고용하는 단계로, 외국인 투자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투자허가 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에 변호사 고용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다. (단, 회사 등록은 변호사에 위임하거나 혹은 투자가 개인이 직접 할 수도 있음)

세 번째는 투자를 허가하는 단계로서 주무부서인 통상산업부에서 투자자금의 적정성, 투자분야의 적합성 등을 심사한 후 허가서를 발급한다.

마지막으로 각종 등록 및 신고와 관련한 절차로서, 주요 등록/신고 내용 및 주무부서는 다음과 같다.

- 상호 및 상표 등록: 통상산업부
- 회사 설립 등록: 공장(회사)의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 (매 1년마다 갱신)
- 파견자의 거주 허가서 취득: 외무부
- 파견자의 근로허가서 취득: 노동부
- 회원 등록: 거주지 상의회의소 혹은 산업회의소 (영업점일 경우에만 한정)
- 세금 납부: 국세청 (영업점일 경우에만 한정)
- 사회보장세 납부: Social Security Corporation (종업원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 한정)

3) 투자 허가 신청

투자를 허가하는 주무부서는 통상산업부이지만, 이 경우 많은 정부부처를 돌아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요르단 정부는 외국인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투자청 내에 OSS (One Stop Shop)를 설치하여 투자자들을 위한 인허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관련 정부부처를 본인이 일일이 접촉할 필요가 없다는 점과 함께 신청 후 14일 만에 인허가 업무를 완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OSS에는 관련 정부부처의 연락관들이 파견 근무하고 있으며, 내부에서의 업무처리 과정을 통해 투자 심사가 완료되면 민원인에게 공한으로 이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절차가 완료된다.

- OSS에 직원 파견 정부 부처: 통상산업부, 내무부, 환경부, 도시개발부, 암만 시, 노동부, 보건부, 관광부 등

특별경제구역과 자유무역지대 (아카바 경제특구, 자르카 자유무역지대), 특별 산업단지 (QIZ) 등에 입주할 경우에는 회사 당해 구역 또는 산업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투자 민원 창구에서 직접 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장 부지 확보 절차만 다를 뿐 OSS에 신청하는 경우와 절차가 큰 차이 없다.

한편, 투자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연락 사무소 등 간단한 형태의 투자진출일 경우에는 자력 설립도 가능하나 지사와 법인, 공장설립 등 보다 복잡한 형태의 투자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현지 법에 정통한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투자 진출 형태 및 세부내용

1997년 개정 회사법 (Company Law No. 22)에 따르면, 요르단 내에서 설립 및 운영이 가능한 회사의 형태는 크게 다음의 8가지이다.

- General Partnership
- Limited Partnership
- Limited Liability Company
- Limited Partnership in shares
- Public Shareholding Company; 한국의 주식회사
- Public Shareholding- One Person
- Offshore Company
- Foreign Company (영리 및 비영리)

하지만, 외국계 회사의 현지 진출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다음의 4가지의 형태로 인가된다.

- Non-Operating Foreign Companies (Regional Office)
- Foreign Operating Companies (Branch or Project Office)
- Offshore Companies
- Joint Ventures

1) Non-Operating Foreign Companies (Regional Office)

연락사무소의 성격으로서, 요르단 내에서의 영업활동 및 그에 따른 이익창출 행위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 어디서든 비즈니스 활동이 가능하다. 요르단 내에서의 활동은 비즈니스와 특정 프로젝트와 관련 정보 수집활동에 한정된다. 인가시 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관련 법에 의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제공된다.

- 법인세, 지방세, 사회보장세 등 제세 면제
-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 및 사회보장세 면제
- 사무실용 기기, 가구, 샘플 수입 시 무세 통관
- 차량 수입관세 은행 예치 시 5년간 면세 차량 보유 (이후 국외 반출 혹은 세금납부 후 현지 시장에 판매)
- 상공회의소 및 기타 협회 등록 면제, 관련한 모든 회비 등의 납부 면제
- 본사 파견인력의 경우 고용 허가 취득 (본사파견 직원 수 < 현지 고용원수)
- 해외에서의 자금송금 확인이 가능한 경우 요르단 내에서 달러화 및 현지화 구좌 개설 가능하며, 본사로의 과실송금도 인정

연락사무소 설치 등록을 위해서는 설립 신청자 (Owner 혹은 위임 받은 자)의 서명과 공증을 받은 소정의 신청 서류 (아래 참조)를 통상산업부 기업 관리국 (Controller of Companies)에 제출하여야 한다 (투자청의 One-stop shop과 산업단지에 직접 신청을 할 때에는 별도로 기업관리국으로 갈 필요가 없음)

- 신청서 (소정 양식)
- 변호사 위임장 (변호사를 통해 신청할 경우)
- 투자기업의 자국 내 사업자 등록증
- 대표자
-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
- 회사의 정관 및 내규

상기 모든 서류는 투자자 주재국 외무부 및 요르단 대사관으로부터 사전 인증을 받아야 하며, 신청서류는 모두 아랍어 (요르단 내에서 공증)로 작성되어야 한다.

연락 사무소 등록 시 등록 수수료는 없다.

2) Foreign Operating Companies (Branch Office)

Branch Office는 다음의 두 가지 형태로서 인가된다.

우선, Permanent Branch Office로서, 은행과 항공사, 기타 제한된 분야에서 요르단 기업과의 Partnership 형태로 진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전자 제조업체인 국내의 삼성전자는 요르단 정부에서 인가한 부분에서 요르단 기업과의 Partnership을 갖지 못한다면 Branch Office를 설립할 수가 없다.

다음은 Non-Permanent Branch Office로서, 대개는 요르단 내에서의 프로젝트 공사 등을 수행하기 위해 인정되는 회사의 형태이다. 인가는 통상산업부 내 기업관리국 소관사항이며, Branch Office (지사)로 인가 받는 회사는 프로젝트가 지속되는 동안에 한해 법적으로 유효

하다. 해당 프로젝트가 완료되고 새로운 프로젝트 수주가 없을 경우에는 청산과정을 거쳐 지사 기능은 폐지된다. 요르단 진출 외국계 건설회사의 경우는 건설공사 시 자기 명의를 사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 지사의 형태를 띠고 있다

지사 등록 수수료는, 투자자가 소재하는 본사의 총 주식 가치가 JD 1백만 이하인 경우 JD 1,000, 그 이상인 경우에는 JD 2,000 이다.

지사의 경우 투자자가 자국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호를 그대로 사용 (상표법에 하자가 없을 경우)하며, 통상적으로 상호 뒤에 “Jordan”을 추가하는 형태를 띤다. (요르단에서 지사와 법인을 별도로 분리하지 않음)

지사는 등록과 노동허가를 취득한 후에 요르단 내에서 상업 행위를 할 수가 있으며, 주소지 상공회의소 혹은 산업회의소 등록과 함께, 법인세와 소득세, 사회보장세 납부 및 지방 정부의 영업허가를 매년 1차례 갱신하여야 한다. 또한 영업활동과 부대적으로 각종 세금 납부 및 재무제표 제출의 의무가 뒤따른다.

지사 설치 등록을 위해서는 설립 신청자 (Owner 혹은 위임 받은 자)의 서명과 공증을 받은 회사의 관련 정보(아래 참조)를 통상산업부 기업 관리국 (Controller of Companies)에 제공하여야 한다. (투자청의 One-stop shop과 산업단지에 직접 신청을 할 때에는 별도로 기업 관리국으로 갈 필요가 없음)

- 상호, 형태 (Permanent or non-Permanent), 회사의 자본금
- 요르단 내에서의 활동 목적
- 설립자, 파트너 사 (있을 경우), 주식 수 등

상기 정보 제출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회사의 정관 및 내규
- 요르단 내 활동과 관련한 정부의 인가 및 투자 자금에 대한 서면 증빙자료
- 이사진의 이름과 국적, 대표자
- 요르단 변호사 위임장
- 최근 1년치 본사의 재무제표

상기 모든 서류는 투자자의 주재국 외무부 및 요르단 대사관으로부터 사전 인증을 받아야 하며, 신청서류는 모두 아랍어 (요르단 내에서 공증)로 작성되어야 한다.

한편, 건설회사의 경우 지사 설립 후 요르단 내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 등록증 (요르단 회사법에 의한 신규 등록회사)
- 현장 도면
- 토지 소요 (임차) 증명
- 토지 대장
- 신분증 (여권)
- 투자사업계획서

3) Offshore Company

외국인 투자자금을 끌어들이 주시 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 자금 투자회사로 인가하는 회사의 형태이다. 요르단 내에 등록은 되었지만 국내에서의 영업활동은 불가하다.

Offshore Company는 민영 혹은 공영 모두가 가능하며, 대개 Limited partnership, Limited Liability shareholding company의 형태를 띈다.

인가형태별 최소 자본금 규모는 다음과 같으며, 등록을 위한 구비서류 및 절차는 연락 사무소 등록 시와 동일하다.

- Private Shareholding Company with limited liability: JD 30,000
- Public Shareholding Company: JD 50,000
- 금융기관 (은행, 보험, 재보험 등): JD 1,000,000

4) Joint Venture

법인 혹은 두 명 이상의 개인들이 상호 합의하여 설립하는 회사의 형태로 요르단 내국인에 준해서 관리되며, 외국인 투자를 위한 별도의 서류나 등록절차는 없다. Joint Venture시에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은 50%를 넘을 수 없다.

6. 투자입지여건

가. 개관

통상적으로 요르단의 외국인 투자유치 (공장 건설)는 전국적으로 산재하고 있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들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혜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요르단 정부는 산업단지 조성 및 입주기업 지원 등을 위해 1984년 요르단 산업단지 공사 (Jordan Industrial Estates Corporation: JIEC)를 설립하고, 동 공사에 공영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전권을 위탁하고 있다. 2007년 현재 전국적으로 공영 산업단지는 총 5개 (3개는 QIZ로 운영, 1개는 QIZ 신청 중)가 운영 중에 있다.

이 같은 공영 산업단지 조성 이외에 요르단 정부는, 수출 특화산업단지 (Export Processing Zone ; EPZ)의 변형인 QIZ를 설치하여 수출용 제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QIZ는 1996년 미국 의회에 의해 요르단에 최초로 적용된 제도로, 일반적인 EPZ와는 달리 미국이 요르단에게 일방적으로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1985년 미국-이스라엘 간 FTA의 효력을 요르단에게도 역외 적용시킴으로써 처음으로 탄생하였다. 현재 QIZ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대미 수출 시 관세 및 쿼터가 면제되는 특혜가 제공되며, 현재 공영 3개, 민영 10개 (건설 인가 공단 1개 포함)등 전국적으로 총 13개가 운영 중에 있다. 이 외에 요르단의 지정학적 위치를 이용하여 제 3국으로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2개의 자유무역지대 (아카바, 자르카)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나. 산업단지 및 QIZ

1) 산업 단지

- 운영 주체: 요르단 산업단지 공사 (JIEC)
- 단지 수: 5개 (3개는 QIZ로 운영, 1개는 QIZ 신청 중)
- 입주기업에 대한 특혜: 2년간 법인세 및 사회보장세 면제, 건물 및 토지세 면제, 지방 자치세 감면, 프로젝트 소요 고정 자산에 대한 제세 면제, 공장 확장 시 소요 원부자재 수입 및 고정 자산에 대한 제세 면제
- 특이사항: 전체 산업단지 공단은 JIEC 통합 관리 체제로 운영

- Abudllah II Ibn Al-Hussein Industrial Estate (AIE) Amman – Sahab
 - 암만 동쪽 20km지점에 위치한 요르단 최초의 산업단지로써 1985년에 발족
 - 총 면적은 2,530천s/m이며 2006년 현재 98%의 입주율 기록
 - 입주 업체 수는 약 400개이며, 입주업체 총 자본금은 JD 927백만 (US\$ 1,309백만), 종업원 수는 1만 5천명으로 추계
- Al-Hassan Industrial Estate (HIE-QIZ) – Irbid
 - 암만 북쪽 8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스라엘과의 근거리 이점으로 1991년 요르단 최초의 QIZ로 지정
 - 총 면적은 1,178천s/m에 개발 면적은 1,005천s/m 이며, 입주율은 63%
 - 입주 업체 수는 약 80여 개이며, 입주업체 총 자본금은 JD 288백만 (US\$ 407백만), 종업원 수는 2만 명으로 추계 (순수 QIZ 지정업체는 17개)
- Al-Hussein Bin Abdullah II Industrial Estate (HUIE-QIZ) – Al-Karak
 - 암만 남쪽 118km 지점에 위치, 2000년 요르단 내 두 번째 QIZ로 발족
 - 총 면적은 1,856천s/m에 개발 면적은 786천s/m 이며, 입주율은 41%
 - 입주 업체 수는 순수 외국업체 6개사이며, 입주업체 총자본금은 JD 43백만(US\$ 60백만), 종업원 수는 5천명 수준으로 추계 (순수 QIZ 지정업체는 4개)
- Aqaba International Industrial Estate (AIIE-QIZ) – Aqaba
 - 암만 남쪽 350km 지정 아카바 자유무역지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3년 QIZ로 발족
 - 총 면적은 275천s/m에 개발 면적은 57천s/m
 - 2007년 1월 현재까지 입주업체를 모집 중에 있으나 입주업체는 없음.
- Ma'an Industrial Estate (MIE-QIZ ; QIZ 신청중) – Ma'an
 - 암만 남쪽 25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6년 발족 (중국정부 차관으로 건설)
 - 현재 QIZ 신청 중이며, 2007년경 QIZ 지정 예상
 - 총 면적은 70천s/m, 개발 면적은 49천s/m이며, 현재 입주업체는 1개

2) 대미 수출 관세 및 쿼터면제 지역 (QIZ)

- 운영 주체: 지정 받은 각 산업단지 공단
- 단지 수: 13개 (공영 3개, 민영 10개; 준비 중인 Mafraq 공단 1개 포함)
 - 공단 내 순수 QIZ 지정업체는 63개
- QIZ 내 기업에 대한 특혜: 고정자산 및 원부자재에 대한 수입관세, 수출 수입에 대한 소득세(최소 35%) 및 사회보장세 (최고 10%) 면제, 소유권 및 외국인의 100% 지분을 보장, 과실송금 보장, 대미 수출 시 관세 및 쿼터 면제
- 특이사항: QIZ 생산품은 미국 세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수출품 HS Code 앞에 "N"을 표기

- Ad-Dulayl Industrial Park
 - 암만 북쪽 45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면적은 720천s/m
 - 공단 내 순수 QIZ 지정업체 수는 10개이며, 지정 기업의 총 자본금 규모는 JD 50백만 (US\$ 70백만)
 - 연락처
 - Contact Person : Ms. Dena Khayyat (Marketing Manager)
 - 전화 : 962-6-462-4290
 - 팩스 : 962-6-462-5701
 - e-Mail : info@dulayl.com
 - Web-site : www.ad-dulayl.com
- Al-Tajamouat Industrial Park
 - 암만 동쪽 26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면적은 300천s/m
 - 공단 내 순수 QIZ 지정업체 수는 25개로 요르단 내 QIZ 중 가장 많은 수의 QIZ 지정 기업이 소재
 - 이들 QIZ 기업의 총 자본금 규모는 JD 150백만(US\$ 211백만)으로써, 요르단 전체 QIZ 지정기업(총 63개 기업) 총 자본금의 39%를 차지
 - QIZ 지정기업 종사 근로자수는 6,800명으로, 공단 별 QIZ 지정 기업간 비교시 요르단 내 최다
 - 연락처
 - Contact Person : Mr. Haleem Salfeeti (CEO)
 - 전화 : 962-6-402-7525
 - 팩스 : 962-6-402-7535
 - e-Mail : info@altajamouat.com
 - Web-site : www.altajamouat.com
- Cyber City Park
 - 북부도시 Irbid 인근에 위치한 정보기술 중심 QIZ (요르단 과학기술대학과 UAE의 Al Boutain Group 등이 공동 출자)
 - 총 면적은 4,000천s/m이며 현재까지 개발 면적은 1,000천s/m
 - 현재 5개 요르단 기업 (주로 정보통신 분야) 에서 700명의 근로자 고용
 - 연락처
 - Contact Person : Mr. Khaldoun Awamleh (CEO)
 - 전화 : 962-6-592-3891
 - 팩스 : 962-6-592-3895
 - e-Mail : info@cybercity.com.jo
 - Web-site : www.cybercity.com.jo
- Al-Qastal Industrial Park
 - 암만 남쪽 20km 지점 쿤 알리아 국제공항 인근에 위치 (총 면적 4,000천s/m)
 - 연락처
 - Contact Person : Mr. Mohamad Khurma (CEO)
 - 전화 : 962-6-411-1712
 - 팩스 : 962-6-411-1717
 - e-Mail : mkhourma@prime-five.com
 - Web-site : www.prime-five.com

- Al-Hallabat Industrial Park
 - 암만 북쪽 15km 지점의 자르카 인근에 위치 (총 면적 441천 s/m)
 - 연락처
 - Contact Person : Mr. Hazim Abddel Latif (General Manager)
 - 전화 : 962-6-566-9954
 - 팩스 : 962-6-566-7419
 - e-Mail : latif@hallabat.com
 - Web-site : www.hallabat.com
- Al-Mushatta Qualifying Industrial Estate
 - 암만 남쪽 20km 지점에 위치 (쿤 알리아 국제공항 인근)
 - 총 면적은 4,300천 s/m이며, 2006년 12월 본격 가동
 - 여타 QIZ와 달리 섬유 보다는 제약, 정보기술 분야 기업 집중 유치 예정
 - 연락처
 - Contact Person : Mr. Mohammed Turk (CEO)
 - 전화 : 962-6-560-6505
 - 팩스 : 962-6-569-3297
 - e-Mail : almushatta@al-mushatta.com
 - Web-site : www.al-mushatta.com
- 기타 - 소규모 혹은 건설 중인 QIZ

Al-Zay Ready Wear	위치	암만 북쪽 15km 지점에 위치 (1개 회사 전용)
	Contact Person	Mr. Burhan Darwish (CEO)
	전화	962-6-374-0200
	팩스	962-6-374-6001
	e-Mail	b-darwish@al-zay.com
	Web-site	www.alzay.com
Jordan Gateway Park	위치	암만 북서쪽 40km 지점에 위치 (4,300천 s/m 규모로 현재 건설 중)
	Contact Person	Mr. Hani Rabee (Manager)
	전화	962-6-568-6293
	팩스	962-6-568-6293
	e-Mail	gateway@go.com.jo
	Web-site	www.jordan-gateway.com
Resources Co. for Development & Investment	위치	사합 공단 인근에 위치 (1개 회사 전용)
	Contact Person	Mr. Ramzi Moushar
	전화	962-6-568-5530
	팩스	962-6-568-5553
	Web-site	www.reqiz.com

다. 자유무역지대

- 운영 주체: 자유무역지대 운영공사 (The Free Zones Corporation)
- 단지 수: 공영 6개, 민영 23개
- 운영: 자유무역지대 내 모든 물품에 대해 보세 인정 (구역 내 도소매, 수출활동 가능)

1) 공영 자유무역지대: 6개

자유무역 지대	현황
Zarqa Free Zone	- 1983년에 설립, 5,200 km ² 규모 - 대 이라크 중고차량 수출 기지
Sahab Free Zone	- 1997년 설립, 70 km ² 규모 - 인근 사합 산업공단 지역에 창고시설 제공
The Queen Alia Int'l Airport Free Zone	- 1998년 설립, 35km ² 규모 - 항공화물 관련 서비스
Al-Karak Free Zone	- 2001년 설립, 150km ² 규모 - 인근 알 후세인 빈 압둘라 산업단지 배후 지원
Al-Muwaqar Free Zone	- 2004년 설립, 122 km ² 규모 - 인근 사합공단 지원 시설 제공
Al Karama Free Zone	- 2004년 설립, 2,000km ² 규모 - 물류 중심

2) 민영 자유무역지대: 23개

민간 회사에 대해 자유무역지대 규정을 적용, 수출입 활동의 편의를 제공

□ 자유무역지대 지정 기업 현황 (2007.9월말 현재)

- The Jordan-Indo Chemicals Company, Jordan Magnesia Company, Jordan Bromine Company, Kamira Arab Potash Co., Jordan Planes Catering Company, Jordan Maintenance of Planes Company, International Diamond Investment Co., Jordan Gateway for Multi-Projects Co., Middle East Australian Trading Company Ltd., Jordan Manufacturing & Development of Planes Co., Hejazi & Gousheh Co. Jordan Company, Trans-Jordan for Sheep Co., Jordan Media City, .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ial Parks Co. (Cyber City), King Abdulla for Design and Development Centre (KAADB), Jordan Repairing of Planes Engines, Jordan Flight Training & Simulation, Slovochem Holland B.V., Japan Fertilizers Company, . Jordan Duty Free Shops Co., Duty Free Shops at Jordanian Airports, Jordan Aeronautical Systems, Economy world Investment

라. 아카바 경제 특구

- 명칭: 아카바 경제특구(ASEZ: AQABA SPECIAL ECONOMIC ZONE)
- 설치 연도: 2001. 2. 15
- 설립목적: 외국인투자유치 증대 및 민간부문 활성화
- 관리부서: 아카바 경제 특구청 (ASEZA : AQABA SPECIAL ECONOMIC ZONE AUTHORITY)
- 관련 기본법: AQABA SPECIAL ECONOMIC ZONE LAW
- 위치: 요르단 남단, 아카바시
- 면적: 375 km²
- 구성: 산업, 산호 해변, 항구, 공항, 타운시설, 위락지구 등 총 6개 지구로 구성

1) 입주 기업 특혜

- 모든 수입품에 대한 관세 면제
 - 단, 경제 특구 내에 공식적으로 등록되는 차량을 제외한 전 차량은 관세 납부
 - 면세품의 국내 반출 시엔 관세납부

- 판매세 (sales tax) 감면
 - 판매세를 인하적용 (16% → 7% ; 소비제품, 호텔, 식당에 한정)
- 법인세 (Corporate income tax) 감면
 - 기존 법인세율 15%를 5%로 인하 적용 (은행, 보험, 운송 등의 분야는 제외)
- 관광, 제조업 분야에서 100% 외국인 소유 인정, 기존 자산에 대한 건물 및 토지세 면제

2) 특구 내 투자유망업종

- 관광: 호텔, 골프장, 컨벤션 센터, 면세점, 기타 레저시설 등
- 서비스: 해운, 화물운송, 창고업, 컨설팅, 선박수리 등
- 부동산개발: 산업단지, 복합주택단지, 상업센터, 테마 파크 등
- 제조업: 섬유, 의류, 비료, 농 화학품, 전기전자조립공장, 의약품, 사해 화장품 공장 등

3) 특기 사항

아카바는 요르단 내 유일한이다. 이라크 전쟁 발발 이후에는 대 이라크 수출품의 90% 이상이 아카바 항을 이용하여 해상 및 육상 물류기지로서의 중요성이 높았으나 최근 들어서는 아카바-이라크 국경-바그다드를 연결하는 교통로가 테러의 위협에 많이 노출되면서 점차 그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다.

7. 노동관리

가. 개관

요르단 노동관계법의 기본이 되는 법률은 '1996년 노동법 (Labor Law No. 8 of 1996)'으로 총 138조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유럽의 노동관계법을 준용하여 만들어졌으며, 근로자에 대한 보호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근로자 월 평균 급여는 비 숙련 노동자는 JD 95JD- JD 150, 숙련 노동자 및 기술자는 JD 200- JD 400, 대졸 사무직은 JD 350 - JD 600, 고급 기술 엔지니어와 영업 매니저 등은 능력에 따라 JD 500 - JD 1,500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나. 노동법 주요 내용

1) 고용 계약

고용 계약서는 아랍어로 2부 작성하여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고용 계약서가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모든 법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서면 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고용 계약서 상에 고용 계약기간을 명기하지 않은 경우, 고용 계약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계속 되는 것으로 보며, 만일 기간을 명기하였을 경우에는 명기한 기간 동안 유효한 것으로 본다.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주와 근로자간 합의에 의해 고용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고용 계약 갱신이 가능하며, 다만, 이 경우 갱신 고용 계약기간은 설정 할 수가 없다.

고용계약은 1) 고용주와 근로자간 상호 합의 혹은 2) 고용계약 기간 만료 시 해지된 것으로 본다. 어느 일방이 고용계약 해지를 희망할 경우에는 해지일 한달 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 계약 기간이 설정되어있지 않으면서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근무연수 1년에 1달 분의 급여를 Terminal benefit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외국인 고용

요르단 내 사업장에서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대 고용허가 가능 인원은 전체 근로자의 30% (QIZ의 경우 50%)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노동부로부터 Work Permit을 받아야 하며, 동 Permit는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불법 고용기업에 대해서는 JD 50/1일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정부는 해당 불법 근로자에 대해서 고용자 부담으로 추방 명령을 내릴 수 있다.

3) 근로 시간 및 임금

법정 근로시간은 일주일에 6일간 4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는 125% (평일) 혹은 150% (휴일)의 급여를 지불하여야 한다. 비상시를 제외하고 일일 근무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로자의 임금은 계약서에 명기되어야 한다. 고용주는 법에서 정한 부분 혹은 법원의 명령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근로자의 급여에서 금액을 자의적으로 공제할 수가 없다. 통상적으로 근로자에 제공되는 급여 및 비급여성 혜택은 1) 급여, 2) 사회보장세 (기본급여의 16.5%; 고용주 11%, 근로자 5% 분납), 의료보험 등이다. 이 외에 지급 가능한 혜택은 보너스 (1-2회 급여/1년), 교통비, 중식비 기타 관리 운영비 등이다. 기타 지급가능 혜택은 권장사항이며 의무사항은 아니다.

4) 병가 및 휴가

요르단 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는 연간 14일의 병가가 허용되며, 병원입원 시에는 14일 추가연장이 가능하다. 병가기간은 근무기간으로 인정된다.

모든 근로자들은 연간 14일 (1-5년 근무자)과 21일 (5년 이상 근무자)의 휴가가 인정된다. 이 외에 동일 사업장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경우, 메카 순례를 위한 14일간의 성지 순례 휴가(1회)가 인정된다.

5) 기타 사항

2007년 9월 현재 요르단의 법정 최저 임금은 JD 110/월 이며, 법정 최저 근로 가능연령은 16세이다. 20명 이상의 여성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는 4세 이하의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탁아시설을 구비하여야 하며, 상시 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은 사회보장법에 따라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요르단 내 근로자들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으나, 파업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정을 따른다. 현재 요르단의 전체 노동인구 중 노동조합 가입자는 30%이며, 이들 대부분이 전문직 종사자 중심의 조합이라는 점에서 일반 회사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률은 매우 낮다.

다. 업종별 평균 임금 수준

(단위: JD)

업종	평균임금	업종	평균임금
Office Boy	120-200	Sales/Marketing	200-400
Driver	120-150	Engineer	250-600
Unskilled Laborer	100-150	Accountant	300-700
Skilled Laborer	150-250	Financial Manager	500-1,500
Secretary	150-500	Senior Engineer	600-1,500
Technician	200-400	Manager	800-1,500
Administrator	200-350	General Manager	1,500-3,000

자료: 요르단 투자청

참고: 임금 수준은 순수한 급여를 말하며, 사회보장세와 보험료 등은 제외

라. 노동관리 유의사항

1) 외국인 노동자 고용

요르단 노동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어느 누구도 외국인을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다만, 작업 특성상 요르단 근로자로부터 필요한 숙련도와 능력을 구할 수 없는 경우나 필요한 인력이 요르단으로부터 충분히 공급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QIZ의 경우는 외국인 고용비중을 50%까지 인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내국인 근로자 확보가 불가할 경우 50% 이상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도 한다. 외국인 고용 시에는 아랍 지역 근로자에 우선권을 주고 있다.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부로부터 사전에 Work Permit을 받아야 하며 기간은 1년 단위로 갱신을 해야 한다.

참고로, 2006년 말 요르단 내 외국인 노동자수는 25만-35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외국인 근로자의 대부분은 인근 이집트와 동남아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로 공단 노동자, 주유소 직원, 건설현장 일용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이라크인들의 불법 입국이 늘어나면서 요르단 정부의 불법 외국인 근로자 단속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 투자기업의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요망된다.

2) 인력 채용 시 고려 사항

요르단의 노동 인력들은 우리에게 비해 상대적으로 근로 의욕이 현저히 낮을 뿐 아니라 근로 자로서의 근무 자세가 크게 떨어진다는 점에 따라 상당수의 투자 기업들이 중국인 혹은 필리핀, 스리랑카 등 제 3국 인력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비용의 관점에서 고용 인력 선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인력 채용 시 참고를 위해, 미숙련 근로자를 기준으로 내국인과 외국인 채용 시 예상되는 비용을 비교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현지인 채용 시 소요 비용 : 200불/월	외국인 채용 시 소요 비용 : 230불/월
- 최저임금(비 숙련공): 미\$ 120 /월 - 출퇴근 지원, 사회보장세 납부 등 기타 부대경비: 미\$ 80/월	- 기본 임금: 미\$ 120/월 - 비자수수료, 기숙사 제공비용, 왕복항공임 등 : 미\$ 100/월

3) 일반 관리

요르단 노동법은 유럽 법제를 근간으로 만든 법으로써, 노동자 중심의 법체계를 갖고 있지만 근로자들의 일반적인 근로 윤리는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슬람력 관련 각종 휴일이 많고 라마단, 이드, 성지순례 등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각종 휴일이 많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여성들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해가 진 이후에는 일을 하지 않고 귀가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요구가 용이치 않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근로자 위주의 노동법으로 인해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많다는 점도 고려사항이다. 소송은 주로 해고와 관련된 사안이 많으며, 특히, 근로 현장에서 종종 발생하는 직원들간의 싸움, 절도, 무단 결근 등에 대해 해당 직원을 해고할 경우 고용주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예도 많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철저한 기록관리와 함께 근로 현장에서의 철저한 규범 유지가 필요하다.

8. 조세제도

가. 개관

요르단 조세제도를 통괄하는 기본법규는 ‘1985년 소득세법 (Income Tax Law No.57)’이다. 소득세법은 1985년 제정 후 수 차례 개정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의 소득세법은 1995년 개정되어 1996년부터 발효된 ‘개정법 14호 (Amending Law No.14)’이다.

납세자들은 자신의 회계연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내에 세금을 필히 납부하여야 한다. 세금을 납부하는 시기에 따라 세금감면 혜택도 주어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내 납부 시: 6% 감면
-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 납부 시: 4% 감면
-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 납부 시: 2% 감면

하지만,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매월 2%의 벌과금이 부과되며, 총 벌과금 규모는 당초 세액의 24%를 넘지는 못한다.

나. 주요 세제

1) 법인세 (Corporate Income Tax)

업종	세율
Mining, industry, hotels, hospitals, transportation, contracting and other sectors approved by the Council of Ministers	15%
Banks, financial and finance companies, exchange companies and brokerage companies	35%
All other companies	25%

2) 개인 소득세 (Personal Income Tax)

연 소득	세율 적용
JD 6,000 이하	- 개인 소득세 면세
JD 6,000 – 10,999	- JD 6,000: 0%, JD 4,999: 5%
JD 11,000 – 15,999	- JD 6,000: 0%, JD 5,000: 5%, JD 4,999: 10%
JD 16,000 – 20,999	- JD 6,000: 0%, JD 5,000: 5%, JD 5,000: 10%, JD 4,999: 15%
JD 21,000 이상	- JD 6,000: 0%, JD 5,000: 5%, JD 5,000: 10%, JD 5,000: 15%, - 초과분: 20%

주: 기타 소득공제: 부양가족 JD 5,000, 개인 JD 2,000, 교육비 최대 JD 5,000까지

3) 일반 판매세 (General Sales Tax)

한국의 부가 가치세와 특별 소비세를 결합한 개념의 세금으로, 표준 세율은 2004.4.1일부로 16% (종전: 13%)가 적용되고 있다. 단, 수출용 재화와 서비스는 0%, 고가 사치품은 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아카바 경제특구의 경우는 호텔, 식당 및 일부 지정품목(7%)을 제외한 모든 최종 소비 물품에 대해 판매세를 면제해 주는 특혜가 제공되고 있다.

9.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가. 개관

요르단 정부는 외환의 거래와 송금, 외국기업의 현지 자금 조달 등에 대해 특별한 제약을 두지 않고 있다. 비거주자(일반적인 외국인으로서의 자연인 또는 법인)의 경우 아무런 제한 없이 현지 은행에서 외화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요르단 내외로 자유로이 송금할 수 있다. 외국계 회사의 과실송금에 대한 제한도 없다.

요르단의 외환 보유고는 2006년 월 말 현재 61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외국으로부터의 송금액은 매년 25억 달러를 넘고 있는데, 이 같은 해외로부터의 송금과 관광 수익 등이 요르단의 주요한 외화 조달원이 되고 있다. 대미 달러화 환율은 1995년 이래 US\$ 1 = JD 0.708로 고정되어 있다.

나. 금융 관련 제도

1) 은행

2007.9월 현재 요르단 내 은행 수는 총 21개이다. 국내 상업은행이 6개, 이슬람계 은행이 2개, 그리고 투자은행과 외국계 은행이 각각 5개, 8개이다. 이외에 농업과 주택, 도시개발 등을 전담하는 특별 금융기관도 5개가 있다. 자본금 규모 면에서 최대 은행은 요르단계 아랍은행(Arab Bank)이며(자본금 규모: 502백만 달러) 이어 HBTF(Housing Bank for Trade and Finance; 자본금 규모 353백만 달러), Jordan National Bank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2001년 국내 자본시장 육성법이 통과된 이래, 뮤추얼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들이 선을 보이고 있으나, 경직된 금리정책과 2차 금융시장 발달 정도가 낮아 회사채 시장은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2) 현지 금융 및 과실송금

국내 은행을 통한 대출 및 파이낸싱의 경우 내외국계 기업간의 차별은 없다. 다만, 대출 시 장기 대출보다는 1-3년, 신디케이트 론의 경우 7년이 최장 기간이다. 과거에는 중앙은행에서 민간은행의 대출에 대해 간섭하는 정도가 높았으나 최근 들어서는 지준율 등 법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상당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요르단 내 외국계 기업들은 국내 투자와 투자에 따른 이익금의 해외 송금 등에 있어서 아무런 제약이 없다. 비거주자의 외화구좌 개설 및 송금에도 제약이 없으며, 과거 중앙은행 보고사항의 하나였던 투자 관련 자금의 이체 및 이관의 경우도 중앙은행 보고 없이 이체 및 이관이 가능하다.

V. 기타 유용한 정보

1. 시장 특성

가. 개관

먼저, 요르단은 인구 5백만 명을 조금 넘는 수준의 소규모 시장이다. 이들 인구도 암만과 이르비드, 자르카 등 3대 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전국적 규모의 대단위 유통망 구축 및 발달은 낮은 편이다.

둘째, 요르단은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홍해를 면하고 있는 아카바 항을 기점으로 시리아, 이라크, 팔레스타인 등을 잇는 서부 중동지역 물류중심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같은 교통로 역할은 이라크 전쟁과 최근의 레바논 전쟁 등을 통해 그 진가가 크게 발휘되기도 하였다.

셋째, 인공과 칼륨비료 등 일부 광산물을 제외하고는 부존자원이 거의 부재하며, 제조업 및 수출 기반도 취약하여 채소류 등 농산품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제품을 수입에 의존 (만성적 무역적자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전세계 유수의 제품들이 모두 들어와 경쟁을 하고 있을 정도로 경쟁의 강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넷째, 소득분배의 불균형이 심해 계층간 소비수준과 성향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통상적으로 볼 때 1백만 명의 고소득층과 4백만 명의 극빈 소득층이 확연히 분리되는 이원적 시장구조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유럽 국가들과 근거리에 위치하고 역사적으로 오랜 관계로 인해 유럽산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이나, 점차 개방이 확대되면서 유럽 제품 중심의 소비 성향은 많이 희석되어 가고 있다.

여섯째, 한국산 브랜드 및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높다. 현대, LG, 삼성 등 대기업들의 역동적인 현지 활동과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협력 및 문화홍보 확대 등에 기인하고 있다.

나. 부문별 특성

1) Order 관행

작은 시장 규모를 반영, 소량 주문이 일반화 되어 있다. 이는 품목별, 회당 주문량이 크지 않아 대량 생산 및 대량 수출에 익숙한 국내업체에는 다소 불리하다. 하지만, 요르단이 이라크와 시리아 배후시장을 잇는 물류기지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시장진입 초기의 소량 주문 처리 자세에 따라 시장을 인근지로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든지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시장에서의 경쟁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하여 거의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가격 중심의 시장 형성과 함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낮아 수입시장에서의 경쟁은 치열한 편이다.

3) 도소매 유통

요르단은 북단과 남단의 거리가 서울, 대구간 거리 정도 밖에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주요 도시가 위에서 아래로 거의 일직선으로 형성되어 있고, 또한 수도 암만으로의 집중도가 높아 전국적 유통망 발달수준은 낮다. 도소매 유통구조도 전통적인 수입과 도소매 미분화형 구조가 지배적이며, 따라서, 한 바이 어가 유사한 여러 품목을 동시에 취급(수입)하면서 도소매를 겸하는 예가 많다. 수개의 에이전트 심을 갖고서 이름만 걸쳐 놓은 예도 종종 있다는 점을 감안, 에이전트 심을 제공할 때 특히 주의를 요한다.

4) 중소기업 진출 유망 품목

요르단은 소득분배의 불균형이 심해 부유층과 일반인들의 소비가 확연히 구분되어 있다. 또한 대졸자의 초임이 월 400-600달러 수준에 불과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2천 불을 조금 넘는 수준임을 감안할 때, 생필품과 가전 제품 등 범용제품이 아닌 경우 극단적으로는 소비층이 1백만 명의 부유층에 한정 (재수출용은 제외)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 개인을 대상으로 한 단순 소비용품보다는 수출 제조용 원부자재(섬유원료, 섬유기계 등)와 요르단 정부의 정책적 육성분야(의료, IT, 환경설비 등), 그리고 경기 활황 분야(건설 중장비 및 건자재 등)에 초점을 맞추어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최근 들어서는 여성의 권리 신장과 함께, 이른바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레저 용품, 가발 및 가늌뿔, 화장품 등 개인 기호품 소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바, 이러한 변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주 요르단 미국 대사관에서 선정한 현지 시장 참여 유망 분야는 다음과 같다.

- 건설 분야: 건축자재, 건설장비, 관련 서비스
- 에너지 분야: 석유, 가스 및 전기 발전
- 환경 분야: 환경설비, 오염방지 시설, 용수 개발 기기 및 서비스
- 보건 분야: 보건 및 의료기기, 관련 서비스
- 정보통신 분야: IT, 컴퓨팅, 네트워크, 통신장비 및 관련 서비스
- 농업 분야: 옥수수, 쌀 생산

2. 물가정보

□ 도시 : 암만(요르단)			- 환율 : US\$1 = 0.7082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1. 의복			7. 잡화	
1.1	남성양복(1벌, 순모 100%)	600	7.1	구두(1켤레, 소가죽)	150
1.2	넥타이(1개, 실크 100%)	40	7.2	치약(150g, 1개)	5
1.3	와이셔츠(1벌, 면 100%, 긴팔, 흰색, 현지브랜드)	30	7.3	칫솔(1개)	5
1.4	양말(1켤레, 면 100%, 현지산)	5	7.4	면도기(1세트)	8
1.5	코트(1벌, 롱코트, 추동)	500	7.5	건전지(1세트, 1.5V AA)	3
1.6	스타킹(1켤레, 밴드타입, 현지브랜드)	10	7.6	화장지(1통, 300매)	1.5
1.7	청바지(Levi's)	70	7.7	비누(1개)	0.80
	2. 식료품			8. 사무용품	
2.1	쇠고기(1KG, 안심)	7	8.1	복사용지(1권, 250매, A4)	7
2.2	양고기(1KG 구이용)	8	8.2	볼펜(12개)	6
2.3	닭고기(1KG, 생닭)	3	8.3	연필(12개, HB 사무용품)	4
2.4	쌀(1KG, Short Grain)	1	8.4	공CD(1통, 12개입, 700MB)	8
2.5	밀가루(1KG)	0.6	8.5	휴대폰(범용형)	315
2.6	설탕(1KG, 백설탕)	0.6	8.6	휴대폰사용료(1개월, 기본)	17
2.7	계란(10개)	1.0	8.7	인터넷가입비(1회최초, 1회설치)	150
2.8	감자(1KG, 현지산)	0.7	8.8	인터넷사용료(1개월, 기본)	113
2.9	미네랄워터(1.5ℓ, Evian 1Pet)	0.9		9. 자동차	
	3. 한국식품		9.1	자동차(2000cc, 기본, A/T)	25,000
3.1	고추장(1Kg)	N/A	9.2	엔진오일(1L)	4.2
3.2	된장(1Kg)	N/A	9.3	휘발유(1L)	0.85
3.3	라면(1개)	N/A	9.4	자동차등록비(2,000cc)	150
3.4	설탕탕류(1인분, 설탕탕, 곰탕등)	N/A	9.5	자동차보험료(2,000cc, 1년, 신규종합보험)	900
3.5	불고기(1인분, 200g)	N/A		10. 대중교통	
3.6	삼겹살(1인분, 200g)	N/A	10.1	지하철(1구간)	N/A
3.7	김치찌개(1인분)	N/A	10.2	시내버스(1구간)	0.60
	4. 기호식품		10.3	택시(기본요금)	0.25
4.1	햄버거(1개)	5.5	10.4	택시(추가요금/Km)	0.30
4.2	피자(1판)	12		11. 공공서비스	
4.3	코카콜라(1캔, 250ml)	0.42	11.1	전화개통비(1회선, 가입비, 장치비 포함)	85
4.4	맥주(수입산, 1캔, 355ml)	3	11.2	전화사용료(월 기본요금)	8
4.5	담배(수입산, 1갑)	2.2	11.3	전화사용료(3분, 시내평상)	0.1
4.6	위스키(1병, 750ml)	60	11.4	공중전화(3분, 시내평상)	N/A
4.7	커피(1병, 175g)	10	11.5	국제전화(현지-서울, 3분, 평상)	2.5
	5. 주택(150㎡)		11.6	국내우편(일반편지, 1통, 2~3페이지)	0.35
5.1	[임차] 중급아파트 (침실 3개미만, Semi-furnished)	1,400	11.7	국제우편 (일반편지, 1통, 10g이하, 현지-서울)	0.9
5.2	[임차] 중급단독주택 (대지 500㎡ 및 침실 4개미만)	3,000	11.8	특급우편 (DHL, 1개, 1Kg 이하, 현지-서울)	60
5.3	중개수수료(월 임차료의 %)	10%	11.9	전기요금(1KW/h, 가정용)	0.44
5.4	임차보증금(월 임차료의 %)	No	11.10	수도요금(1㎡, 가정용)	0.5

	6. 가전제품		11.11	가스요금(1㎡, 가정용)	6
6.1	TV(29인치, 칼라, 범용)	600			
6.2	VTR(6헤드, 범용)	140			
6.3	DVD Player(범용, 비디오콤보)	120			
6.4	전자레인지	100			
6.5	냉장고(500L급, 가정용)	750			
6.6	에어컨(400W급, 가정용)	650			

□ 도시 : 암만(요르단)			- 환율 : US\$1 = 0.7082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12. 교육			18. 노동여건	
12.1	외국인학교(주재국내 외국인학교 수)	3	18.1	법정최저임금(월급여)	134
12.2	외국인학교(등록금,American School)	300	18.2	상여금(월급여대비%,연간)	100~300%
12.3	외국인학교(기부금)	3,000	18.3	사회보장부담금(월급여대비%,연간)	5.5%
12.4	외국인학교(수업료, 초등1년간)	8,375	18.4	법정휴가일수(연간)	14~21days
12.5	외국인학교(수업료 중등 1년간)	9,615	18.5	출산휴가일수(연간)	70 days
12.6	외국인학교(수업료 고등1년간)	11,145	18.6	연간국경일	15
	13. 레저·오락		18.7	토요휴무(실시여부)	working
13.1	골프장그린피(비회원,18홀,1라운드)	정규 골프장없음	18.8	노동쟁의시 냉각기간일수	N/A
13.2	골프장회원권(18홀,매매가능,종신양도가능)	N/A	18.9	주당 법정근무시간	48hrs.
13.3	골프공(1타)	N/A		19. 사업여건	
13.4	골프채(Callaway, 드라이버 1개)	N/A	19.1	법정최저자금	70,000
13.5	DVD 타이틀(1개, 최신영화)	30	19.2	회사설립 변호사 비용	3,000
13.6	영화관람료 1회(개봉관, 성인최신)	7	19.3	외국인업체 세제혜택(법인세)	25~75%
	14. 의료·약품		19.4	외국인업체 세제혜택(개인소득세)	0
14.1	의료보험료 (4인가족,Full Cover,치과제외)	1,700	19.5	법인은행대출금리(1년)	8%
14.2	병원진료비(의료보험×,몸살감기,내과초진)	50			
14.3	병원진료비(의료보험○,몸살감기,내과초진)	5			
14.4	치과(스켈링,1회)	35			
14.5	약품(해열제,아스피린,10정)	1.5			
	15. 신문·방송·잡지				
15.1	현지신문(1개월,현지유통지)	14			
15.2	한국신문(1개월)	N/A			
15.3	케이블TV(1개월,기본시청료)	N/A			
15.4	잡지(1부,Time 혹은 Newsweek)	2.1			
	16. 호텔				
16.1	특급호텔 (정상요금,싱글1박, 시내중심지)	170-250			
16.2	특급호텔 (할인요금,싱글1박, 시내중심지)	110-170			
16.3	중급호텔 (정상요금,싱글1박, 시내중심지)	100			
16.4	중급호텔 (할인요금,싱글1박, 시내중심지)	60			
16.5	조식 (특급호텔,Continental Breakfast)	25			
16.6	조식 (중급호텔,Continental Breakfast)	15			
	17. 임금				
17.1	사무실직원(월급여, 대졸초임)	700			
17.2	사무실비서(월급여, 학력불문)	422			

자료: 암만 무역관 실사 (2007.1월)

참고: 서식은 KOTRA에서 연 1회 발간하는 “세계 주요도시 물가수준” 자료 작성 양식 활용

3. 바이어 발굴

가. Off-line을 통한 발굴

요르단은 업종별 협회 또는 조합 결성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이에 업종별 협회와 조합을 통한 적정 바이어 발굴은 쉽지가 않다. 제한적이거나 활용이 가능한 바이어 발굴선은 암만 상공회의소(Amman Chamber of Commerce: www.ammanchamber.org)와 산업 회의소(Amman Chamber of Industry: www.aci.org.jo), 그리고 요르단 국영무역진흥기관인 Jordan Enterprise (www.jedco.gov.jo) 등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 ‘자동차 에이전트 및 부품 무역업자 협회’, ‘정보통신협회’ 등 협회가 일부 조직되어 있는 곳도 있으나 활동이 활발하지 않아 협회를 통해 바이어를 물색하는 데는 어려움을 많다. 전시박람회의 경우는 연간 50여 회가 개최되는데 대부분 소규모이며, 국제적인 규모의 전시회장이 없어 이 또한 활용이 극히 제한적이다.

암만 무역관에서는 요르단 내 적격 바이어 발굴을 위한 바이어발굴 조사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처: KOTRA본사 고객센터 및 국내 무역관)

나. On-line을 통한 발굴

On-line으로 요르단 내 바이어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는 대략 다음과 같다.

- 산업회의소: www.aci.org.jo
- 암만 상공회의소: www.ammanchamber.com
- Tejari (UAE 소재 바이어 서비스 기관): www.tejari.com
- BuyKorea (KOTRA): www.buykorea.org

상공회의소 웹사이트를 통해서는 업체별 기본적인 정보를 취득할 수 있으나 회원이 아닌 업체의 경우 검색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BuyKorea의 경우는 한국제품 수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바이어의 인콰이어리 정보를 게재하고 있어 등록된 바이어에 한해서만 품목별 바이어 검색이 가능하다. 하지만, 요르단 바이어들은 e-Commerce 사이트에 직접 등록하는 예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무역관을 통해 원하는 바이어를 발굴하고, 무역관의 도움을 받아 e-mail/전화/팩스/직접 방문 등의 형태로 접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가. 역사적/문화적 금기사항

요르단은 헌법(2조)에서 이슬람을 국교로 정하고 있고, 전 국민의 92%가 무슬림일 정도로 이슬람이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 194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기 전까지 독자적인 민족국가를 형성했던 경험이 전무한 상태였던 요르단은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오랜 동안 부족과 씨족 사회를 형성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 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국가’ 보다는 ‘종교’가 앞서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종교와 부족사회의 관습이 상충하면서 가끔 사회적인 문제를 만들기도 한다.)

따라서 비즈니스 측면에서 문화적 금기사항은 주로 이슬람 율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거의 유사하며, 이는 민족 혹은 국가적 정통성 보다는 종교적 정통성이 보다 강한 인근 아랍 국가들도 대부분 대동소이하다.

실제로, 요르단을 비롯한 많은 아랍국가들에서는 헌법 이외에 ‘샤리아(Shariah)’라는 이슬람 법이 일반 국민들의 생활(특히 결혼과 종교문제)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명예 살인 (가족의 명예를 더럽힌 구성원에 대해 가족의 이름으로 살인을 행하는 행위)이 여전히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요르단은 국가체제 운영 면에서 종교적인 색채가 아랍국가들 중에서는 약한 국가들 편에 속한다.)

요르단 인들은 명예와 체면을 소중하게 여긴다. 아무리 먹고 살기가 힘들더라도 허드렛일은 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들의 명예 혹은 품위를 손상시키는 모욕적인 언사는 자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관행으로 인해 자신이 아무리 실수를 하더라도 “미안하다” 혹은 “잘못 되었다” 라는 말을 하는데 지극히 인색하며 (인정 시에는 자신이 속한 가족이나 부족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동료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특정인의 잘못을 지적, 예를 들어 무슬림들이 동석한 가운데서 특정인이 술을 마신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조차도 개인적으로는 매우 큰 불명예로 느낀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알라와 이슬람을 비난하거나 헐난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된다. 알라와 이슬람은 사회 전반에 뿌리 깊이 박혀있을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생활 그 자체라는 점에서, 자칫 문화와 사회를 무시하는 형태로 비추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상적인 대화 시에도 종교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요르단에서는 합법적인 결혼 이외의 남녀간 성 접촉은 중죄로 처벌되며, 이슬람의 5대 의무 (신앙고백, 예배, 희사, 금식, 성지순례)를 행할 때 이를 방해하는 행위와 꾸란 (이슬람 경전) 위에 다른 물건을 올려놓는 행위도 금지된다.

국민의 대부분이 무슬림인 요르단 인들은 이슬람 사원 (모스크)을 가장 신성한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 무슬림이 아닌 경우에는 가능한 한 사원 출입을 자제하고, 만약 출입을 원할 경우에는 사전에 양해를 얻는 등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는, 무릎 이상의 노출이 심한 의상, 알라를 모독하는 것으로 오해 받을 수 있는 글씨나 문양 등의 옷이나 신발은 착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여성에 대한 문화적·종교적 차이가 크므로 여성의 경우 복장에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통상적으로 요르단 여성들의 경우 머리카락이 노출되는 것을 금기 시 하고 있으나, 점차 서구화되어 가면서 히잡 (여성들이 머리를 감싸는 천)을 벗고 다니는 여성들도 늘어나고 있으며, 외국 여성들이 히잡을 사용하지 않는데 대한 반감은 없다.

식생활에서는, 이슬람 식으로 도살하지 않은 고기는 일절 금하며, 돼지고기, 행, 개고기, 등을 나누어 먹거나 선물로 제공하는 것도 금기사항의 하나이다.

초대를 받아 집을 방문할 때 음식을 갖고 가는 것은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주의하여야 한다. 식사를 할 때에 가끔 맨손으로 식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오른손을 사용하여야 하며(악수할 때와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오른손을 사용해야 한다) 왼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왼손은 화장실에서 용무를 볼 때와 신발을 닦을 때, 코를 풀 때 사용하는 등 다소 불결하다는 이미지가 강하므로 사용을 삼가 하는 것이 좋다.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여성의 나체 혹은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여성 모델의 사진을 담은 카탈로그의 제작, 구란의 구절을 곡해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 선전 문구의 사용, 술과 돼지고기 등 금기대상 물품과 관련된 상품(오프너, 돼지고기 햄)등을 선물용품으로 제공하는 것 등은 해당 기업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이 외에 인종 구성과 관련해서도 요르단은 여타 중동국가들과는 달리 다소 특이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요르단 중 토착 요르단인(베드윈족)은 전체의 35-40%에 지나지 않고, 팔레스타인 계통이 전체 인구의 55-60% 서 다수를 점하고 있다.

이들 팔레스타인들은 과거 요르단 영토였던 요르단 강 서안 지역에 거주하였으나 1967년 중동전쟁 이후 이스라엘이 이 땅을 점령함에 따라 요르단으로 이주해 온 이주민들, 그리고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이후 쿠웨이트에서 요르단 땅으로 이주해온 (당시 요르단 정부가 이라크 정부를 지지한데 대한 반발로 쿠웨이트 정부는 자국 내 거주 요르단 국적 팔레스타인 인을 강제 출국조치 하였다) 이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 외에 체첸족, 아르메니아족, 쿠르드족, 코카서스족 등이 약 5% 내외의 인구구성을 보이고 있다.

팔레스타인 계통의 사람들은 요르단 국적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공직으로의 진출이 사실상 억제되어 있어 대부분 비즈니스에 몸을 담고 있으며 (요르단에서 만나는 비즈니스맨의 90% 이상은 팔레스타인 계통이며, 최근 들어서는 이라크에서 이주해온 이라크 비즈니스맨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공통적으로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한 강한 반발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요르단에서 비즈니스 상담 시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정치 문제 등에 대한 언급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혹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어 참여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팔레스타인 편에 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르단 인들은 왕에 대한 충성심도 대단하다. 길거리나 공공장소, 식당 등에는 예외 없이 국왕과 가족의 사진이 큼지막하게 걸려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으며, 일부는 차량에도 국왕의 사진을 걸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대화 시 국왕에 대한 비난은 자제하여야 하며, 손가락 또는 물건으로 국왕의 사진을 가리키거나 비웃는 것은 절대 삼가야 하며 가급적 화제로 삼지 않는 것이 좋다.

나. 비즈니스 에티켓

1) 약속

대체로 요르단 인들은 시간관념이 한국 사람들만큼 강하지가 못해 약속 시간에 늦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늦더라도 약속 장소에는 반드시 나오므로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 약속시간이 되어서 전화를 하면 5분 후에 도착한다고 해도 30~40분씩 더 지체되는 경우가 다반사인 점을 감안하여 타이트하게 약속 시간을 잡기 보다는 시간을 넉넉히 조절하는 것이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약속을 잡을 때에는 가급적 1주일 정도의 여유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간은 오전 시간대를 잡고, 목요일 오후부터 토요일까지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요르단의 경우 관공서와 은행 등은 금요일과 토요일을 쉬는 주 5일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민간 기업은 아직까지 목요일 오후 및 금요일 전일 휴무제를 시행 (토요일 근무)하는 곳도 많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점차 금, 토요일 휴무제로 이동 중에 있다)

2) 식사

가정으로 초대를 받으면 ‘멘샴’이라 불리는 전통음식을 준비하는 예가 많은데, 이는 찐 안남미를 쟁반 위에 깔고 그 위에 삶은 양고기 또는 닭고기를 얹어서 ‘라반’ (요구르트와 유사)을 부어 손으로 먹는 음식이다. 이 경우 손으로 먹는 것이 불편하면 스푼을 달라고 해도 되지만 손으로 식사해 보는 것도 서로간의 친밀도를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아랍식 식사는 빵과 함께 전채 요리가 먼저 나오고, 이어 주식이 나오고 그리고 과일과 차 (혹은 아랍식 커피)가 순서대로 제공된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식사량은 대단히 많은 편이므로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 식사 시간은 통상적으로 9-10시(아침), 3-4시(점심), 8-10시(저녁)로 조금 늦은 편이다. 가정에서 식사를 할 때에는 손님과 가족 전체가 어울려 식사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음식을 남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하므로, 식사량에 대한 부담은 가질 필요가 없다.

식사 시간은 대개 점심의 경우 오후 1시에서 3시, 저녁의 경우 8시에서 10시 정도로 늦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술을 마시거나 요구하는 것(특히 가정 방문 시)은 실례이므로 삼가는 것이 좋다. 식사 자리에 집안의 남자들(특히 장남)이 함께 하는 경우는 많으나 여자들은 동석하지 않는 것이 현지의 관습이므로, 여성 동석 권유는 자제하여야 한다.

초빙하여 식사를 할 경우에는 돼지고기, 개고기, 햄 등 금기 음식은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혹 개인별로 금기시 하는 음식도 있다는 점을 감안,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식당과 식단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는 맵고 짭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요르단인들의 한국에 대한 높은 인식 수준을 감안할 때, 한국 방문자 접대의 경우에는 사전에 의향을 확인한 후 전통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좋은 접대방법의 하나이다.

3) 선물

고가의 제품 보다는 한국의 전통 건강식품이나 차, 전통 제품 등 선물하면 매우 좋아한다. 단, 술 또는 돼지고기가 가미된 식품 (예: 돼지기름을 사용한 라면 등) 등은 금기하는 식품이므로 나누어 먹거나 선물로 제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요르단에서의 한국제품의 성가를 감안할 때, 일부 VIP 급 인사들에 대한 선물로서는 한국산 핸드폰, MP3, DVD 등도 매우 유용한 선물의 하나이며, 혹 향수 등 개인 취향의 제품을 선물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개인적인 취향을 확인하고 제품을 고르는 관심도 필요하다.

무슬림이라 하더라도 가끔씩 술을 마시는 사람도 있으나, 이들에게도 가급적 술을 선물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가 술을 마신다거나 혹은 술 선물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4) 인사

가벼운 아랍어를 구사하면 분위기를 더욱 좋게 할 수 있다. 요르단 인들이 인사를 할 때는 악수를 한 후 오른쪽 뺨을 맞대고 다시 왼쪽 뺨을 맞대는데 오른쪽 뺨은 한번 왼쪽 뺨은 1~3회 맞대기도 한다. 뺨을 맞댈 때에는 뽀뽀를 하듯이 입으로 소리를 낸다. 이러한 인사법은 친밀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는 대개 악수로만 끝나며, 조금 더 관계가 진전될 경우 아랍식 인사법을 사용해 보는 것도 서로간의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수단의 하나이다.

무슬림들은 인사를 할 때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고개를 숙이는 것은 알라에게만 가능한 일이므로 상대방에게 고개를 숙이도록 하는 행동은 자제하여야 한다. 또한 악수를 할 때 왼손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여성과 인사할 때는 여성이 먼저 인사 또는 악수를 권할 때만 가볍게 악수 등을 하며 상대를 지그시 쳐다보거나 지나친 관심을 보이는 것은 삼가야 한다. 일부 보수적인 무슬림들은 한국의 비즈니스 우먼들이 악수를 위해 먼저 손을 내밀 때에 악수를 거부하는 예도 있으나, 이는 종교상의 이념일 뿐 결례가 아님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5) 복장

무릎 이상으로 올라가는 바지 혹은 나시 티, 가슴이 파인 상의 등 노출이 심한 복장을 착용하지 않고, 호텔 밖을 가볍게 외출 할 때도 과다한 노출은 삼가야 한다. (최근 들어서는 반바지를 착용하고 조깅을 하는 예도 가끔 볼 수 있으나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문화이며, 반바지를 입고 운동을 할 경우에는 실내 운동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인들의 경우 복장에는 제한이 없으나, 비즈니스 목적의 방문일 경우에는 반드시 양복을 착용하는 것이 좋으며, (반드시 양복을 착용해야 하는 것은 아님) 현란하거나 화려한 색상은 금하는 것이 좋다.

6) 바이어 상담/거래 시 유의사항

바이어 상담을 위해 업체를 방문할 때에는 대개 음료(대개는 '차'와 '아랍식 커피', 여름에는 음료수도 제공)는 무엇을 들 것인가를 묻는데, 이 경우 마시지 않겠다고 해도 무방하나 여러 번 권할 때에는 선택 가능한 음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문하는 것이 예의이다.

자리에 앉을 경우에도, 한국에서는 주로 회의실을 이용하나 이들은 대개 자신의 집무실을 이용하며, 자신은 자신의 책상 앞에 앉고 방문자들은 책상에 놓여있는 의자나 소파 등에 앉도록 권유한다. 또한 상담 중에도 전화를 받거나 결재서류에 서명한다거나 하는 등 일상적인 업무도 종종 병행한다. 이는 보기에 따라서 방문자를 무시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으나 현지의 일상적인 접견 관행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담자리에서 첫 번째 얘기는 비즈니스 그 자체 보다는 날씨와, 문화, 사회 등 가벼운 주제로 대화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요르단 인들은 축구 등 스포츠를 좋아하므로 요르단과 한국의 스포츠 이벤트 등이 있으면 이러한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한국 드라마에 대한 인식은 낮음)

실전 거래와 관련, 요르단 비즈니스맨들은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 장사를 배우면서 자란 타고난 장사꾼들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들에게는 주요 계약을 할 경우 자신의 맏아들을 참석시키고, 집안에 손님을 맞을 경우에도 맏아들이 심부름을 하고 같이 동석 하는 등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가계터를 떠나지 않는 것이 체질화 되어 있다. 따라서 물건 값을 흥정할 때도 절대로 자신의 가격을 먼저 제시하지 않으며 상대의 약점이 있으면 집요하게 파고든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으므로 요르단에서의 비즈니스 상담 시에는 한국 상품에 대한 자부심과 인내심을 가지고 느긋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은 가능한 한 큰 회사를 만들지 않는다. 큰 회사를 경영하다 망할 경우 사회적으로 용서가 없으며(이슬람의 영향) 따라서 상당규모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들도 대부분 'Com

pany' 보다는 청산이 쉬운 'Est'를 선호하므로, 회사 명칭만으로 회사의 규모를 판단하는 것은 금물이다.

요르단 비즈니스맨들은 가격을 협상한 후 다음날 계약할 것처럼 행동하고, 상대를 집으로 초대하는 등의 친밀감을 보인 후 계약 직전에 다른 조건을 이유로 다시 가격을 협상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계약금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

거래 시 간혹 수표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수표에 이상은 없는지 확인해야 하며 별도의 단서 조항이 있는 수표는 받지 않아야 한다. 수표에는 발급일자와 발급인 서명 받는 사람의 이름 이 외에 다른 것이 써 있다면 조심해야 한다. 잘 모르는 사항은 경험자에게 세밀하게 물어 보도록 한다.

간혹 실제 거래 당사자가 아닌 소개비를 목적으로 접근하는 커미셔너가 있다. 이럴 경우 소개자를 상대로 협상을 진행해야 할 지 당사자를 상대로 협상을 진행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요르단에서는 커미션을 받고 사람 또는 상품을 소개 하는 것은 관례로 되어있으므로 개의치 않아도 되나, 소개를 빌미로 커미션을 요청한다면 단호히 거절하는 것이 좋다.

단 바이어가 소개자에게 커미션을 지불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모른 척 하는 것이 좋다. 혹시 바이어를 잃을까 걱정스러울 때가 있어도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면 바이어는 반드시 오게 되어있다. 소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상품을 사고자 하는 바이어라면 어떤 방법으로든 직접 거래 하고자 할 것이다.

큰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 시에 변호사를 배석시켜 공증을 받는 것이 좋다. 간혹 계약을 하고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지 실정을 잘 아는 사람과 함께하고, 변호사를 배석시키면 만약의 경우에 적절한 대비책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외에 요르단 비즈니스맨들과의 실전 계약 시 주요 참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첫 번째 거래에서 절대 배타적 에이전트를 주지말자(이들은 통상 처음 만나면서부터 자신의 능력에 관계없이 배타적 에이전트를 요구한다)
- 지나치게 빨리 거래 결정을 하지 말자 ('빨리 빨리'가 판매자일 경우 백전백패)
- 최종 가격은 가능한 끝까지 숨긴다. (이들은 통상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하여 판매자를 혼란에 빠뜨리기도 한다)
- 상대방의 허풍에 속지말자 (아랍인들은 대부분 허풍이 심하다)
- 돈을 받아야만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다 (계약 단계까지 너무나 조건이 많다)
- 현지 유통과정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아이템에 맞는 바이어를 찾자 (중국산 저가품 취급 바이어를 배제하고, 한국산 제품의 높은 인지도를 심분 활용하자)
- 이들이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IBM(인살라: 신의 뜻에 따라, 부크라: 내일, 무쉬 무쉬질라: 문제 없음)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자.

5. 무역, 투자진출시 애로사항

가. 무역 관련 애로 사항

시장의 특성과 역사적, 문화적 금기사항, 비즈니스 에티켓에 유의한다면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다.

나. 투자 관련 애로 사항

대외적으로 개방의 가치를 내걸고 많은 제도를 바꾸어 가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실무선에서의 red tape와 관료주의가 많아 Hidden Cost가 곳곳에 상존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자 중심의 노동법과 고용주를 상대로 한 교묘한 소송, 장기간의 종교 휴일, 낮은 근로 윤리 등 투자진출을 위해서는 모든 부분에서 여전히 부족한 면이 많다.

산업기반이 미흡하여 연관산업 발달이 저조하다는 점, 그리고 물 부족 문제와 숙련공 확보의 어려움 등은 제조업 투자를 제약하는 가장 중요한 장애물이다.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가. 성공 사례

1) 사례명 : 아랍판 바비 인형 'Fulla (풀라)'

- 마케팅 Concept: 아랍적 가치를 제품에 접목
 - 덴마크 언론의 무함마드 풍자사건으로 인해 이슬람과 아랍의 공통적 가치에 대한 정서가 고조되는데 발맞춰 이러한 지역 정서를 제품에 접목
 - 최근 아랍국가들의 개방풍조 확산을 반영하여 전통적인 외투 (abaya)와 히잡의 색상을 밝고 연한 톤으로 바꾸는 등 소비자들의 정서 변화에도 민감하게 대처
- 생산 및 수출 업체명: 미국 New Boy사
 - 제품 및 디자인 개발: UAE 소재 New-Boy Design Studio
 - 제품 생산 및 수출: 중국
- 주요 성과
 - 2007년 상반기 중 아랍권 국가들에서 최고의 어린이용 선물로 부상
 - 제품 출시 2년 만에 풀라 인형 단독 매출액 US\$ 200만 돌파

2) 사례명: 휴대폰 단말기의 절대강자 Nokia

□ 마케팅 Concept : 소비자 기호의 기술혁신 접목 및 대대적 홍보

- 지인들과 가까워서 담소하기를 좋아하는 요르단 소비자들의 특성을 브루투스 기술에 접목시켜 단말기로 파일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Sensor제품 출시 ("New way to Communicate" 광고 카피 강조)

- 10개의 모델을 한꺼번에 출시하고 일방적인 프로그램 적용 대신 소비자들이 입맛에 맞게 자신만의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모델 및 프로그램 선택권을 강화하는 한편, 현지 유통업체들에게 대대적인 마케팅 활동비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에서의 붐을 조성
- Nokia는 타 단말기 업체들과는 달리 매 6개월마다 JD 10만~20만(US\$ 14만~28만)의 마케팅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마케팅 광고 시 Nokia와 로고만을 광고할 경우에는 100% 예산을 지원해 주는 등 마케팅 광고부문에서 타 경쟁업체를 압도

□ 생산 및 수출 업체명: 핀란드 Nokia사

- 제품 및 디자인 개발: 핀란드 소재 Nokia 본사
- 제품 생산 및 수출: 핀란드/중국/불가리아

□ 주요 성과

- 시장 점유율 70%로서 휴대폰 단말기 시장에서 절대강자로 확고히 자리매김

요르단의 업체별 휴대폰 단말기 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

업체명	2003	2004	2005
노키아	70	69	70
소니에릭슨	9	11-12	11
삼성	12	10	11
지멘스	3-4	3-4	3-4
모토로라	2-3	3-4	3-4
기타	2-4	1-3	1-3

자료: BIS Sharpnel (Jordan Telecom Market 2006)

3) 사례명 : 요르단 국민 브랜드를 지향하는 LG전자

- 마케팅 Concept :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감성 마케팅
 - Social Marketing : 국민과 함께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마케팅 활동
 - 축구경기 (Peace Cup), 마라톤 (사해 마라톤) 행사 → 병원에 수익 기증
 - 의료 봉사 활동 (언청이 수술) → 가난한 자와 나누는 활동
 - SOS, 고아원 정기적 방문 활동
 - 장학 마케팅 : 요르단 국립 대학과 산학 협동
 - 년 4인의 학생에 장학금 (Marketing/Engineering), 요르단 Medical Center와 학술 교류, 한국 연수 기회 부여 (Round ticket), 요르단 국립대학과 인재 Pool운영
 - Media Club 운영 : 요르단 Press/기자들에 LG Media Club을 운영하여 제품 구입의 혜택을 주고, Pro-LG화
 - 요르단 경제발전 및 고용창출 : 현지 생산 및 수출기지 확보
 - 1992년 생산 조립 공장 (거래선 투자)을 설립하여, 생산 및 최초 수출 개시
 - 현재 시리아, 레바논, 이집트 등지로 수출

- 생산 및 수출 업체명: LG전자
 - 주력 제품군: TV, 냉장고, 세탁기, DVD 및 각종 디지털 제품
 - 최근 들어 휴대폰 시장에도 본격 진출, 성가를 높여가고 있음.
- 주요 성과
 - 요르단 시장에서 가전분야 독보적 지위 획득
 - 2005년 Gallup조사 결과 압도적 브랜드 인지도 확보
 - 비보조 Brand Awareness : 70% 이상으로 단연 1위
 - Top of the mind (최초 상기도) 29.1%로 1위
 - 가장 사고 싶은 Brand 제품: TV, 냉장고, 에어컨

나. 실패 사례: (특이사례 없음)

7. 이주정착 가이드

가. 출국 전 참고사항

1) 식품

요르단에는 한국 식품점과 한식당이 없다. 따라서, 라면, 된장, 고추장, 건어물, 고춧가루 및 젓갈류(단, 액젓은 구입 가능)등 한국산 식품류는 미리 준비해 오는 것이 좋다. 돼지고기는 금기식품으로서 구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최근 들어 햄 종류는 조금씩 선을 보이고 있는 추세이다. 간장과 참기름 등은 일본과 중국산 제품 코너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2) 의복 및 가정용품

요르단은 반 건조 지중해성 기후로 겨울(12월~2월)에는 평균 4~10도, 여름(7~9월)에는 18~35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다. 겨울은 우기로서 비바람이 잦다. 특히 수도 암만은 해발 800m의 고지에 위치하여 산등성이 바람이 거세며, 밤낮의 기온 차가 심하다. 집은 대부분 돌집(석재로 지은 집)으로써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는 춥다. 따라서, 한국에서 이주를 할 경우에는 한국에서 입던 옷가지를 그대로 실어 보내는 것이 좋으며, 특히 중동 지역이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겨울 의복 준비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한편, 요르단은 집의 규모가 한국보다는 크고 보온상태가 썩 좋지가 못하다. 집은 대부분 개별 난방 형태로서 등유를 사용하나 최근 들어 유가가 급등하면서 일반인들의 겨울나기가 점차 어려워 지고 있다. 가능하면 전기장판이나 소형 전기 히터 등을 준비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의 하나이다. (전기 요금은 상대적으로 저렴함)

3) 이사 화물

이사화물은 현지에서 임차하는 주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가구 등이 구비된 집(Furnished)을 구한다고 한다면 짐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집(Unfurnished)을 구한다면 이사 화물의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Furnished House의 경우는 기본 가구와 TV, 냉장고, 침대, 주방시설을 대부분 갖추고 있다.

전기 제품의 경우는 현지의 시스템이 220V/50로서 한국에서 쓰던 제품은 대부분 그대로 쓸 수가 있다. (헤르츠에 영향을 받는 일부 민감한 제품이나 모터 사용 제품은 사용에 주의) TV는 PAL방식으로서, 한국에서 TV를 가져올 경우에는 Multi형 제품이 아니면 사용이 불가능하다. 자동차는 한국산 차량이 많고 또한 최근 들어 수입관세율이 점차 낮아지면서 국내에서의 시판가격과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굳이 이사 짐으로 싣고 올 필요성은 적다.

4) 기타 사항

한국산 운전면허증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현지 운전 면허증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 운전 면허증 준비가 필수적이다. ID카드 발급 등 초기 사진소요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출국 시 30매 정도의 증명사진을 준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나. 이주 정착

1) 집 구하기

통상적으로 부동산을 통해 집을 구할 경우 연간 임차료의 5%를 중개수수료로 지불해야 하며, 집을 둘러 보는 횟수 제한은 없다. 집은 대부분 한 건물에 5-6가구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공동주택 (요르단에서는 이를 '아파트'라고 통칭; 현지어로는 Iskaan 혹은 Amaarah)이 일반적이며, 한국에서와 같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는 없다. 그리고 가구의 비치 유무에 따라 Furnished 와 Unfurnished로 구분되며, 동일 규모일 경우 Furnished house가 상대적으로 비싸다.

집 계약 방식은 연간 계약 (1년치 선불) 방식이 보편적이며, 집 주인에 따라 6개월 단위 계약 혹은 Diplomatic Clause (계약기간 중 해외로 이주할 경우 나머지 기간 임차료 환불)를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으나 그 예를 찾기가 쉽지는 않다.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자 보관하여야 하며, Furnished House의 경우에는 주요 가구와 비품 목록을 사전에 작성하고 상호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계약 종료 시 발생 가능할 수도 있는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의 하나이다.

집을 구할 때 주요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심각한 물 부족국가 → 물탱크 시설 확인
- 돌집의 특성상 겨울에는 실내가 상당히 추움 → 거실과 방이 남쪽을 향하는 남향집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
- 30도를 넘는 더운 여름이 3-4개월간 지속 → 건물 맨 위층은 대상에서 제외

집값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많으며, 대체로 한국 주재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Abdoun, Uthaynah, Sweifiyah; 암만 서부 지역)의 경우 연 US\$ 12,000-25,000 수준(방 3개, 아파트형 집 기준) 이다.

2) 체류

요르단에서 장기간 체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거주 허가 신고
- 기업체 관계자의 경우 통상산업부(기업관리국)에서 요르단 공식 체류 허가증명 (여권에 Stamp) 획득
- 내무부(이민국)에서 개인 신분증(ID) 획득

통상산업부에서 받는 공식 체류허가증명서와 내무부에서 받는 개인 신분증은 매 1년 단위로 갱신하여야 한다.

3) 은행 계좌 개설과 신용카드

정상적인 체류신분을 갖고 있다면 요르단 현지 은행 또는 외국계 은행에서 현지화 계좌 혹은 미화 계좌를 간단히 개설할 수 있다. 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을 수령하고 송금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은행 계좌 개설 시 필요한 경우 현금카드와 수표 (개인 당좌 수표 성격)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신용카드는 그 동안 통용이 용이하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사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계좌를 개설한 은행을 통해 마스터, 비자 등 신용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4) 전화 신청

신규 가설의 경우 Jordan Telecom으로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소정 양식의 신청서와 함께 가설비 (JD 60) 및 보험료 (JD 150; 외국인에 한정)를 납부하여야 한다. 보험료는 계약 해지 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전화선이 이미 연결되어 있는 집을 구할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다. 이는 주택의 소유주 명의로 전화가 기 가설되어 있는 경우로써, 입주자는 매월 전화 사용료만 납부하면 된다.

5) 인터넷 신청

일반 가정에 인터넷 라인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전화 신청이 우선이다. 전화를 가설하고 난 후 ADSL 라인을 가설할 경우에는 다음의 두 회사를 접촉하여야 한다.

- ISP(Wanadoo가 가장 보편적): ADSL 라인 가설 및 서비스 제공
- Jordan Telecom: Modem 설치

가설 비용은 ISP의 경우 JD 60, Jordan Telecom의 경우 JD 40이 소요되며, 이들은 모두 환불되지 않는 금액이다.

6) 자동차 구입

신차와 중고차 구입이 모두 용이하다. 신차의 경우 암만 시내에 소재한 신차 매장에서 구입하며, 중고차는 대개 자르카 자유무역지대(암만 북쪽 30km 지점에 위치)에서 구입한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차량이 수입 판매되고 있어 구입에 특별한 애로가 없다. 한국 주재원들이 가장 많이 찾는 현대 소나타 (NF)의 경우 JD 20,000-22,000 (옵션에 따라 차이) 수준이다.

참고로, 현지에서 판매되는 차량은 대부분 유연 휘발유 차량이나, 점차 무연차량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7) 의료 시설 및 보험

2007.9월 현재 요르단 내 총 의료 관련시설 수는 1차 진료소 (보건소, 의원 등) 1,245개, 국영병원 27개, 군 병원 11개, 대학병원 및 민간 종합병원 56개 등이다. 아랍 국가들 중 의료분야 경쟁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현지에서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치료를 받는데 특별한 제약은 없는 편이다.

전 국민 의료보험은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군인 등 공무원들과 원하는 개인만 가입) 서비스에 비해 보험료가 턱없이 비싸 주재원들에게도 의료 보험가입이 불편적이지 않다.

8) 자녀 교육

수도 암만에는 American Community School (ACS), American Modern School, Lebanese International School 등 다수의 International School과 프랑스계, 영국계 학교 등이 산재해 있어 자녀 교육여건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입학의 경우도 학생들의 수가 많지가 않아 타 지역보다는 비교적 수월하여 현지 도착 후 입학 신청만으로 언제든지 입학이 가능하다.

요르단의 학제는 초, 중, 고가 각각 6-4-2의 학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비해, 한국 상사 주재원들의 자녀들 대부분이 다니고 있는 American Community School (ACS)의 경우는 5-3-4년으로 되어 있다. 주 5일 (일-목) 수업이며, 수업 시간은 08:00-14:40이 보편적이다.

신학기는 8월 말에 시작되며, 익년 6월 초에 학년이 종료된다. ACS로의 편입학 절차는 소정 신청 양식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가능)과 함께 재학 혹은 졸업 증명서, 성적 증명서, 생활 기록부 (영문 번역 공증 본 포함)를 제출하고, 학교에서 지정한 날짜에 구두 및 Level Test를 거친 후 편입학 여부가 결정된다. (대부분 적정학년을 결정하기 위한 Test임)

학비는 초등학생의 경우 연간 8,400불, 중학생 9,600불, 고등학교의 경우 11,000불 수준이며, 처음 편입학 시에는 기부금 3,000불과 등록금 300불을 별도 납입하여야 한다. School Bus 이용료는 1인당 연간 1,000 불이다. (상세 내용은 www.acsamman.edu.jo 참조)

한편, 요르단 내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자녀들을 위해 한글학교가 운영 중에 있으며, 수업시간은 매주 금요일 14:00-18:00까지 이다. 수업 장소는 암만 시내 Baptist School (임차)이며, 수업은 학년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9) 레저 활동

요르단에서 즐길 수 있는 레저는 많지 않다. 수영, 테니스, 헬스클럽, 사우나 등은 이용이 가능하나 낚시, 등산, 캠핑, 하이킹 등은 현지 자연 여건으로 인해 즐기기가 어렵다. 골프장은 잔디가 아닌 광야를 이용한 준사막 골프장이 유일하다. (암만 시내에서 20분 소요)

10) 쇼핑

한국의 백화점과 같은 대규모 매장 대신 소규모 전문점 위주로 산재해 있어 쇼핑하기가 쉽지는 않다. 하지만 최근 들어 Mall 산업이 새로운 산업으로 부상하면서 암만 시내 혹은 외곽지역에 대단위 쇼핑 Mall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 쇼핑의 편의성이 훨씬 높아지고 있다. (Mecca Mall, Abdoun Mall, City Mall 등)

한국계 주재원 등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슈퍼마켓(한국의 중소형 백화점과 유사)은 COZMO와 Safeway가 대표적이며, 대규모 할인매장은 2006.12월 개장한 카르푸가 유일하다.

11) 종교 활동

요르단은 이슬람 국가이기는 하나 기독교 등 타 종교에 대해서도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타종교의 포교활동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종교법을 어길 경우 최고 추방까지 가능하다. 한인 교회는 2개가 있으며, 예배는 금요일 10:00-12:00까지 이다.

12) 언론 이용

2007년 9월 현재 일간신문 6개, 주간지 14개 등이 있으며 영자지로는 Jordan Times가 대표적이다. 방송사는 국영 JRTV가 유일(채널 수 4개) 하나, 위성을 통해 BBC World, CNN, KBS World, Arirang TV 등 전세계 방송 대부분의 방송 프로그램 수신이 가능하다.

8. 출장가이드

가. 기후

1) 기후 특성

고온 건조한 기후로 여름에는 기온이 섭씨 40도까지 올라가며, 겨울철에는 섭씨 0도 수준까지 내려가기도 한다. 한국과 유사한 기간에 사계절 구분이 있으며 (봄과 가을이 상대적으로 짧음) 봄이 시작되는 4월경부터 겨울이 시작되는 11월경까지는 비가 거의 오지 않아 매우 건조하다. 겨울에는 비가 오기는 하나 양이 적으며 가끔 눈이 내리기도 한다. 연간 강수량은 200mm 미만으로 매우 적다.

2) 주요 도시의 기후

수도 암만은 해발 800m의 고지에 위치하고 있어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다. 여름에도 저녁이나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고 바람이 많이 불어 환절기 감기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에 비해 사해(Dead Sea) 인근 저지대 및 사막 지역은 매우 더운 지역(암만과 평균 5-8도 차이) 이므로 이동 시 이를 감안해야 한다.

3) 출장 시 복장

한국에서 입던 복장으로 현지에 와도 거의 무방하다. 겨울철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비도 많이 내리는 관계로 방한복과 스웨터, 우산이 필수적이다.

나. 사증 및 출입국

1) 사증

우리나라와는 사증 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출국 전에 주한 요르단 명예영사관 (현재 대사관 및 영사관은 없음)에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신청시에는 여권과 증명사진 1매가 필요하며, 사증 발급 수수료는 3개월 유효 단수 사증은 JD 10(14불), 복수 사증은 JD 20 (24불)이다. 사증은 통상 1-2일 내에 발급 받을 수 있으나 단체신청의 경우에는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주한 요르단 명예영사관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 주소: 서울시 종로구 계동 현대화재해상보험 해외영업부
- 전화: (02)732-1133
- 팩스: (02)732-5682
- 명예 영사: 정몽운 (1997.11.29-현재)

한편, 단순 관광 목적의 입국일 경우에는 요르단 입국 시 공항과 항만에서 즉석 입국사증을 발급 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사증 발급 수수료는 JD 10 이며 1개월간 유효하다. (단, 아카바로 입국할 경우 아카바 시내 거주 조건 하에서 수수료 면제) 공항에서 1개월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근 경찰서 신고 후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2) 공항 출입국

요르단에는 QUEEN ALIA INT'L AIRPORT, AMMAN CIVIL AIRPORT, AQABA INT'L AIRPORT 등 3개의 공항이 있다. 수도 암만으로 들어오는 국제공항은 쿤 알리아 국제공항(1982년 건립) 으로서 터미널이 2개인 작은 공항이다.(통상적으로 국적 항공사인 Royal Jordanian을 이용할 경우에는 1 터미널을, 외국 항공사를 이용할 경우에는 2 터미널을 이용하나 일부 그렇지 않은 노선도 있는 바, 사전에 확인이 필요함)

입국 시에는 특별한 절차가 없으며 입국 시 예방접종 등과 관련해서도 특별한 절차가 없다. 요르단 입국비자만 있으면 여권심사 등 입국절차가 간단히 종료된다. 샘플 등을 많이 휴대한 출장자들의 경우 관세 납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입국절차 완료 후에는 공항 내에 대기하고 있는 흰색 공항 택시를 이용하여 암만 시내 원하는 호텔로 쉽게 들어올 수 있다. 소요시간은 30분 가량이며, 미터기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요금을 기사와 탑승 전에 정할 필요가 있다. 암만 시내까지의 대략적인 요금은 JD15 (약 U \$21) 수준이다. (암만 시내에서 공항으로 갈 때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함)

출국절차에서도 특별한 어려움은 없다. 다만, 지난 2005년 테러사건 발생 이후 보안이 대폭 강화되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 시차 및 근무시간

1) 시차

우리 나라와의 시차는 KMT-7(GMT+4)로 요르단이 한국보다 7시간이 늦다. 가령 한국이 오후 4시일 경우 요르단은 오전 9시가 된다. 여름철에는 썸머 타임을 실시하는데, 통상적으로는 매년 3월 마지막 주 금요일부터 시작하여 10월 마지막 주 금요일까지 계속 된다. 썸머 타임을 실시할 경우 한국과의 시차가 6시간이 된다.

2) 근무 및 영업 시간

대부분의 민간 회사들은 목요일 오후부터 금요일까지 쉬고 토요일에는 정상적으로 근무한다. 하지만 관공서 및 금융 기관은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을 쉰다.

관공서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별도 중식 시간 없이 오후 2시까지이다. 관공서의 경우 주로 오전에 업무가 이루어지고 퇴근 무렵에는 업무 추진이 다소 느슨해지므로 오전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

민간 회사들은 오전 9시경부터 오후 5시까지 일을 하는데 2-3시간의 별도 점심시간(오후 1시부터 3시경까지)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마단 기간 동안 예는 대개 오후 2:00-2:30경까지만 근무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은행과 우체국, 박물관, 상점 및 식당의 영업 시간은 다음과 같다.

- 은행: 08:30-15:00
- 우체국: 08:00 - 14:00
- 상점: 08:00-20:00
- 박물관: 09:00-17:00 (화요일 휴무)
- 아랍 식당: 09:00-23:00 (금요일은 14:00 이후 영업)
- 중국식당 등 외국 식당: 12:00-15:30, 18:00-23:30 (휴무일 없음)

라. 회계연도/도량형/규격

1) 회계연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2) 도량형

미터법을 사용하고 있다.

3) 전기 규격

정격전압 및 전류는 220V, 50HZ 이다. (플러그가 우리와는 조금 다르고, 건물마다 상이)

마. 환율 및 환전

1) 화폐 단위 및 환율

요르단의 화폐는 Jordanian Dinar (JD)이며, 1995년 이래 미국 달러화 고정환율제를 고수해 오고 있다. 대미달러화 환율은 US\$ 1 = JD 0.708이다. 화폐는 JD 1, 5, 10, 20, 50 등 4종의 지폐와 JD 1/2 (500 Fils), JD 1/4 (250 Fils), 10 Piastres (100 Fils), 5 Piastres (50 Fils) 등 4종의 동전이 있다. (이외에 25 Fils, 10 Fils 동전도 있으나 거의 사용하지 않음)

2) 환전

은행, 공항 내 은행, 호텔, 거리의 사설 환전소에서 달러를 현지화로 혹은 그 반대로 쉽게 환전할 수 있다. 고정환율제를 시행하고 있어 미 달러화의 경우 은행과 사설환전소 간의 환율 차이는 그리 크지가 않다. 일상생활에서 미 달러화 통용도 상대적으로 용이한데, 큰 슈퍼나 유명 상점 같은 곳에서 미 달러화를 낼 경우 적당한 환율(통상 US100을 JD 69 혹은 JD 70)로 계산하여 현지화로 거스름 돈을 거슬러 준다.

3) 신용카드 사용

호텔과 유명 상점, 식당, Mall등지에서는 대부분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비자카드가 가장 보편적이며 한국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 사용에도 문제가 없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상점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이 여의치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항공사나 여행사에서 항공권 구입을 신용카드로 할 경우 3%의 수수료를 별도 부과하고 있다.

바. 교통

1) 우리 나라와의 교통

2007.12월 현재 요르단과 한국간 직항로는 없다. 따라서 요르단으로 오기 위해서는 중간에 다른 국가를 경유하여야 한다. 경유지로는 두바이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이외에 도하(카타르), 카이로, 방콕, 이스탄불, 파리 등도 자주 이용되고 있다.

2005.5월부터 에미리트 항공이 두바이<->한국간 노선을 매일 취항하고 있으며, 이에 한국<->두바이<->암만간 노선도 매일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 대한항공은 주 3편 서울-두바이 노선을 취항하고 있어 이 편을 이용하여 두바이에서 암만까지 RJ(Royal Jordanian) 혹은 에미리트 항공 연계 편을 이용할 수도 있다.

2) 취항 항공사 (퀵 알리아 국제공항)

Aero Lloyd, Aeroflot, Air France, Air Ukraine, Algier Air, Alitalia, Austrian Airlines, British Airways, Cyprus Airways, Egyptair, El Al, Emirates, Garuda Indonesia, Gulf Air, Jat Airways, KLM, Kuwait Airways, MEAL, Olympic, Pakistan Int'l, Palestinian Airlines, Qatar Airways, Saudi Arabian, Sudan Airways, TAROM-Romanian, Tunisair, Turks Air, Yemenia

3) 항만 및 국내 교통

요르단은 해안선 길이가 총 26km밖에 되지 않으며, 주요 도시들이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어 항만 및 국내 교통의 발달 수준은 낮은 편이다.

국내의 항만은 남부 홍해에 면한 아카바 항이 유일하다. 1948년까지 요르단은 지중해에 면한 하이파 항 (지금은 이스라엘 영토)을 이용하여 왔으나 이스라엘에 편입된 이후 홍해의 아카바 항을 새로운 항구로 개발하였다.

아카바 항은 이란-이라크 전쟁을 거치면서 이라크로 들어가는 물자 수송의 중심지로 부상하였다, 1994년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계기로 지중해와 내륙국가를 잇는 요충지로 발돋움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긴장관계가 고조되면서 계속 지연되고 있다. 2006년 말 현재 아카바 항의 수출입 화물 물동량은 40만 TEU 수준이며, 이용객 수는 135만명 수준이다.

아카바 항 처리 능력

구분 (단위)	2004	2005	2005
컨테이너 선(척)	2,888	2,933	2,884
이용객(천명)	879.5	921.8	1,347.0
수출입물동량(TEU)	-	390,057	405,660

자료: 아카바 경제특구청 2006년도 Annual Report (2007)

2007.12월 현재 전국의 도로망은 총 연장 6,200km로 빈약한 수준이다. 도로망이 발달하지 못한 이유는 작은 영토뿐 아니라, 전국토의 85% 가 사막 혹은 준사막 지역으로써, 주요 거주 지역이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기 때문이다. 철도 연장은 총 620km이나 대부분 산업용이며, 일반 교통수단으로서 이용가치는 거의 없다.

요르단에는 지하철이 전무하고 시내 버스는 중고 20인승 마이크로 버스로써 매우 낙후되어 있다. 버스 이용료는 이동 거리에 따라 150 - 250 Fils 수준이다. 택시는 노란색 Cab으로써 시내 어디에서든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양만 시내 이동의 경우 JD 1-2 (미화 1.4-3달러) 이면 족하다.(택시는 미터기가 설치되어 있음. 기본요금: 150 Fils=JD 0.15)

□ 참고: 공항→KOTRA 무역관 이동

- 공항 입구에 주차되어 있는 흰색 공항 택시를 이용한다.
- 공항 터미널 건물 외곽 도로에는 공항택시가 항상 대기하고 있으며, 요금은 정찰제를 지향하고 있으나 가끔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하는 바, 타기 전에 요금을 꼭 확인한다.
- 택시 기사에게 “seventh circle”의 Zahran Plaza Building으로 가자고 하면 되며, 도착 후 이용요금으로 JD 15-17를 지불한다. (약 20분 소요)
- 공항 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공항버스 탑승장에서 Abdali행 버스를 타고 7th Circle에서 하차하면 된다
- 공항 버스는 약 30분에 한대씩 배차되며 요금은 JD 5이다. (약 30분 소요) 단, 짐칸에 짐을 실을 경우에는 7th Circle에서 하차가 불가한 바 주의가 요망된다.

사. 통신 및 우편

1) 국제 통신

국제 전화 요율 체계는 세계를 3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책정해 놓고 있다. 요르단과 한국과의 국제 통신은 제2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요율은 피크 타임 중에는 1분당 JD 0.75 (약 1.2불 상당)이며 그 외 시간 중에는 1분당 JD 0.525 (약 0.8달러 상 당) 이다.

한국으로의 국제통화가 필요한 경우 호텔보다는 슈퍼 등에서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통화하는 것이 유리하다. 요르단에서 서울로 전화할 경우 “00 (국제전화 인식코드) - 82 (한국) - 2 (서울) - (전화번호)”의 순으로 누르면 되고, 서울에서 암만으로 전화할 경우에는 “국제전화 인식코드 - 962 (요르단) - 6 (암만) - (전화번호)” 순으로 누르면 된다.

2) 국내 통신

Jordan Telecom이 독점하고 있으며, 시내 전화 요금의 경우 3분 기준 JD 0.10(약 0.14달러 상당) 수준이다.

3) 이동통신 서비스

이동통신 서비스는 1995년 FastLink가 설립되면서부터 본격화 되었으며, 2000. 9월 까지는 FastLink의 독점체제, 그리고 2004년 5월까지 FastLink와 MobilCom의 과점 체제로 유지되었다. 2004년 6월 네트워크 사업자인 iDEM이 Xpress를 발족시켰고, 이어 2005년 6월에는 Umniah가 새로이 이동통신 서비스를 하게 되면서 현재는 4개사가 560만 명이라는 적은 인구를 대상으로 치열하게 시장 쟁탈전을 벌이고 이다.

전체 시장의 99%가 GSM 방식(iDEN이 1%)이며, FastLink(2007년 중 Zain으로 상호 변경)와 MobileCom(2007년 Orange로 상호 변경)이 Digital GSM 900을, Umniah가 GSM 1800 기술을 채택하고 있다. 2005년 현재 GSM 통신시장에서는 FastLink가 70%의 점유율(140만 가입자)로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어 MobileCom이 50만 명으로 2위 이어 Umniah가 3위를 차지하고 있다. Mobile-to-Mobile 기준 이용료는 3분당 JD 0.12 (약 0.17달러 상당) 수준이다.

4) 인터넷 사용 환경

1996년 ISP (Information Service Provider) 자유화 조치 이후 2007.9월 현재 10개의 ISP가 운영 중에 있다. 이들 ISP들은 모두 Jordan Telecom으로부터 회선을 임차하여 서비스 하고 있다. 2007.1월 현재 시장 지배자는 제 1사업자이면서 2001년 Jordan Telecom 그룹 (Jordan Telecom, MobileCom, Wanadoo)으로 편입된 Wanadoo로써, 전체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다. 이어 BMEC (Batelco Middle East)가 30%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20%를 두고 군소 8개 업체가 경쟁을 하고 있다.

인터넷 가입자 수는 10-15만명 수준이나, 이용자 수는 약 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가정에 인터넷을 연결하지 않은 이용자들은 회사나 시설이 좋고 이용료가 싼 인터넷 카페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인터넷 이용료는 가정용 ADSL의 경우 (1024kb 속도, 10GB) 월 JD 30, 연간 JD 300 수준이며, 회사용 ADSL의 경우(1024kb속도, 8GB)는 월 JD 85, 연간 JD 1,000 수준이다.

가정이나 회사에서 ADSL라인을 이용할 경우 인터넷 상시 이용료 이외에 Jordan Telecom에 별도의 ADSL회선 이용료 (월 약 JD10 수준)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5) 우편

요르단도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우체국, DHL, TNT 등이 국내 및 국제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체국을 통한 일반 편지 발송 요금은 국내는 JD0.15(미화 약 0.21불), 한국을 포함한 국제 발송은 JD0.75(약 1.06달러) 정도이다. 소포는 1Kg 기준 국내는 2.65JD (약 3.74달러), 한국 발송은 JD13.34(약 18.84달러)이다.

특사운송 회사인 DHL이나 TNT편을 통해 한국으로 발송할 경우 1Kg 기준, JD50-55 (약 70-78달러 정도) 내외가 소요되며 배달기간은 3-4일 정도이다.

요르단 우편 관련 주요 회사는 하기와 같다.

- Jordan Postal office company
 - Add : P.O.Box 110110, 11110 Amman, Jordan
 - Tel: (962-6) 4293000 / Fax : (962-6) 4206348
- TNT
 - Add: P.O.Box 35202, 11180 Amman, Jordan (암만 4서클(Circle)에 위치)
 - Tel: (962-6)5931966 / Fax: (962-6)5930224
- DHL
 - Add: P.O.Box 927111, 11110, Amman Jordan(암만 7서클에 위치)
 - Tel: (962-6) 5800800 / Fax: (962-6) 5827705

아. 호텔 및 식당

1) 호텔

객실료는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다르고 같은 등급의 호텔이라 하더라도 시설과 위치 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5성급 고급 호텔은 200-250달러, 중급 호텔은 150- 170 달러, 4성급 호텔은 100달러 내외, 기타 주방시설 구비 호텔은 60-100달러 수준으로 다양하다.

암만 시내 주요 5성급 호텔 객실료 (Normal Rate 기준)

(단위: US\$)

호텔 명	객실료 (1박)	호텔 명	객실료 (1박)
Four Seasons	250	Crowne Plaza	180
Inter Continental	200	Radisson SAS	180
Le Meridien	200	Holiday Inn	170

암만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전시회인 이라크 재건 박람회 개최 기간 중에는 평상시 가격의 150% 이상 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하며, 여행사, 대사관과 KOTRA, 주재 상사 등에서는 거래 호텔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약 가격을 갖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암만 시내에 소재한 주요 호텔은 다음과 같다.

□ 5성급 호텔

- 포시즌 호텔(Four Seasons)
 - 주소: P.O.Box 950344, Amman 11195, Jordan
 - 전화: (962-6) 550-5555
 - 팩스: (962-6) 550-5556
 - 암만 시내에 소재한 최고급 호텔
- 인터 콘티넨탈 호텔(Intercontinental)
 - 주소: P.O.Box 35014, Amman 11180 Jordan
 - 전화: (962-6) 464-1361
 - 팩스: (962-6) 461-9695
 - 객실이 다소 좁으며 주차장이 협소
- 메르디안 호텔(Le Meridien)
 - 주소: P.O.Box 950629, Amman 11195 Jordan
 - 전화: (962-6) 569-6511
 - 팩스: (962-6) 567-4261
 - 노후화 된 건물에 비해 객실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나 식당 등 부대시설 우수
- 셰라톤 호텔(Sheraton Amman)
 - 주소: P.O.Box 840064, Amman 11184 Jordan
 - 전화: (962-6) 593-4111
 - 팩스: (962-6) 593-4222
 - 최신 건물, 주차장 협소
- 라디슨 사스 호텔(Radisson SAS)
 - 주소: P.O.Box 6399, Amman 11118, Jordan
 - 전화: (962-6) 560-7100
 - 팩스: (962-6) 566-5160
 - 상대적으로 넓은 객실, 주차장이 넓고 조망 우수
- 크라운 플라자 (아무라) 호텔(Crowane Plaza)
 - 주소: P.O.Box 950555, Amman 11195 Jordan
 - 전화: (962-6) 551-0001
 - 팩스: (962-6) 551-0003
 - 주차장, 위치, 가격이 모두 좋으나 건물 노후화
- 메리어트 호텔 (Marriott Amman)
 - 주소: P.O.Box 926333, Amman 11190 Jordan
 - 전화: (962-6) 560-7607
 - 팩스: (962-6) 567-0100
- 홀리데이 인 호텔(Holiday Inn Amman)
 - 주소: P.O.Box 991825, Amman 11194 Jordan
 - 전화: (962-6) 552-8822
 - 팩스: (962-6) 553-7917

- 캠프스키 호텔 (Kempinski)
 - 주소: Al Shmesane - Abdalhamee Shoman Street-Front of Jordan Bank
 - 전화: (962-6) 520-0200 / 팩스: (962-6) 520-0202
- 로얄 호텔 (Le Royal)
 - 주소: Jabal Amman-Zahran Street 3rd Circle P.O.Box 52, Amman 11118 Jordan
 - 전화: (962-6) 560-3000 / 팩스: (962-6) 460-3002
- 하얏트 호텔(Grand Hyatt Amman)
 - 주소: P.O.Box 831159, Amman 11183 Jordan
 - 전화: (962-6) 465-1234 / 팩스: (962-6) 461-5037

□ 기타 호텔

- Days Inn (4성급)
 - 주소: AL Rabeh-Wadysaqra Street
 - 전화: (962-6) 5519011 / 팩스: (962-6) 5517077
- Comfort (3성급; 취사 가능 주방 구비)
 - 주소: Al Suefia, Ali Nasuh Altaher Street- Between Jordan Bank and Cairo Bank
 - 전화: (962-6) 5856184 / 팩스: (962-6) 5865997

2) 식당

□ 한식당

2007.12월 현재 한식당은 없으며, 한국인 운영하는 게스트 하우스가 2개 소재하고 있다.

- 백운기 사장 Guest House (962-79-592-1918)
 - 암만 시내 7번 Circle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
 - 소규모 관광객을 위한 가이드 및 통역 서비스 병행
- 신점석 사장 Guest House (962-79-570-5249)
 - 암만 시내 8번 Circle 가까운 곳에 위치
 - 식당 시설 별도 구비

□ 중식당

- 렌차이 (RENCHEI): 전화 (962-6) 462-5777
- 차이나 타운 (CHINA TOWN): 전화 (962-6) 569-6511 (메르디안 호텔 내)
- 인도차이나 (INDOCHIN): 전화 (962-6) 465-1234 (하얏트 호텔 내)
- 북경 (PEKING): 전화 (962-6) 5660250
- 타이페이(TAIPEI): 전화 (962-6) 5924670
- 상하이 (SHANGHAI): 전화 (962-6) 4619945
- 명성 (MUNSUNG): 전화 (962-6) 5818770

□ 일식당

- 베니하나 (BENIHANA): 전화 (962-6) 569-6511 (메르디안 호텔 내)
- 사무라이 (SAMURAI): 전화 (962-6) 460-3560 (로얄 호텔 내)
- 스시바 (SUSHI BAR): 전화 (962-6) 562-0528 (하워드 존슨 호텔 내)

□ 양식

- 라쿠치나 (LA CUCINA, 이태리 식): 전화 (962-6) 593-1513
- 로메오 (ROMEO, 이태리 식): 전화 (962-6) 464-4227
- 비바체 (VIVACE, 이태리 식): 전화 (962-6) 550-5555 (포시즌 호텔 내)
- E.V.O.O (이태리 식): 전화 (962-6) 593-4111 (쉐라톤 호텔 내)
- 센트로 (양식): 전화 (962-6) 464-1020
- 라메종 (LA MAISON VERTE, 프랑스 식): 전화 (962-6) 568-5746

□ 아랍식

- 파크르 엘 딘 (FAKHR EL DIN): 전화 (962-6) 465-2399
- 팔미라 (PALMYRA): 전화 (962-6) 460-3000
- 자브리 (JABRI): 전화 (962-6) 568-1700
- 칸자만 (KAN ZAMAN): 전화 (962-6) 412-8393

이외에도 맥도널드, 버거킹, 피자헛, 스타벅스, 레바니즈 스낵 등 패스트 푸드점들도 양만 시내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

자. 출장 참고사항

1) 공휴일

통상적인 휴일은 금요일과 토요일로서 우리나라와는 다르다. 국정 공휴일은 종교 관련 공휴일 (이슬람과 기독교)과 요르단 역사에 있어 의미가 있는 공휴일 등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이슬람 종교 관련 공휴일은 태음력에 기초하고 있어 매년 일자가 바뀌며, 과거 공휴일이 거의 임박 해서야 정확한 일자를 확정하던 관행을 바꾸어 2007년부터는 연초에 확정하여 발표 하고 있다.

□ 2008년도 요르단의 국정 공휴일

공휴일 명	일자	구분
신년	1.1 (화)	-
이슬람력 신년 (Hijri)	1.9 (수)	이슬람 력
무함마드 탄신일	3.19 (수)	이슬람 력
노동절*	5.1 (목)	-
독립 기념일	5.25 (일)	-
Eid al-Fitr (금식 종료절, 1 st Eid)	9.30-10.3 (화-금)	이슬람 력
Eid al-Adha (희생절, 2 nd Eid)	12.8-12 (월-금)	이슬람 력
크리스마스	12.25 (목)	-
이슬람 신년 (Hijri)	12.28 (일)	이슬람 력

참고1) 라마단 (Ramadan): 9.1일부터 1달간 / 참고2) 섬머 타임 : 3.27-10.30

2) 출장 지양기간

요르단을 비롯한 이슬람 국가에서 비즈니스가 가장 어려운 시기는 '라마단 (Ramadan)'과 이어지는 '이드 알 피뜨르 (Eid al-Fitr)' 기간이다. 라마단은 천사 가브리엘이 무함마드에게 꾸란을 전해준 신성한 달로 여겨, 이 기간 중 모든 무슬림들은 일출에서 일몰까지 의무적으로 금식한다. 라마단은 이슬람력 (윤달이 없어 태양력보다 11-12일이 적다)에 따라 매년 조금씩 기간이 바뀌며, 또한 같은 아랍 국가라 하더라도 국가에 따라 하루 이틀 정도의 차이는 있다. 요르단 라마단 기간은, 2007년에는 9월 13일에서 10월 12일까지였으나 2008년에는 9월 1일부터 한달간 이다.

이 기간 중 관공서를 비롯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단축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전 중에도 근무의욕이 현격히 떨어지는 관계로 정상적인 비즈니스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라마단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통상 3일간 (요르단은 3-4일) 이드 알 피뜨르라는 축제가 이어지는데, 이 기간은 가족 친지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고, 선물을 교환하는 때로 요르단에서는 국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어 사실상 비즈니스가 어렵다.

이외에 유의해야 할 점은 7-8월 휴가 기간 중 걸프지역 국가에서 대거 관광객이 몰려들기 때문에 항공권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항공권을 구했다 하더라도 출국 전에 확인하지 않을 경우 예약 좌석이 사라지는 예도 많아 가능한 한 이 시기를 피하는 것이 좋으며, 방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출국 전에 반드시 예약여부를 재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3) 관공서 관행

관료적인 Red Tape가 많다. 문서와 절차가 복잡하여 민원업무 처리에 시일이 많이 걸리고 중간에 행정처리가 잘못되는 경우에는 시일이 배로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관공서 해당 담당자를 직접 방문해서 정중히 요청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는 요르단에서는 안면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고가의 선물을 증정하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증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의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관공서 방문 시 민원인의 복장이나 소속기관 및 직위 등에 따라 업무처리가 달라지기도 한다. 민원 처리는 매우 느린 편이다. 일상적인 민원 업무는 실무자를 만나되, 중요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실무자 보다 상급 결재권자를 만나는 것이 일을 수월하게 풀어나가는 방법의 하나이다.

차. 여행 시 유의 및 참고사항

1) 치안

요르단 치안은 중동의 인근 지역 국가들에 비해 안전한 편이다. 혼자 시내 거리를 걸어 다니거나 택시를 이용하여도 사고가 발생하는 예는 거의 없다. 다만 밤늦은 시간에 여성이 혼자 택시를 탄다거나 혹은 늦은 밤에 으스스한 곳 또는 저소득층 거주지역을 홀로 다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반적인 여행시의 정상적인 주의와 조심을 기울이면 큰 문제가 없다.

2) 응급

병원 응급실은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사태 발생시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하다.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대부분 영어 사용에 제약이 없어 영어 구사만 가능하다면 의사 소통에 어려움은 없다.

긴급 의료기관 요청전화는 국번 없이 195 (응급) 이며, 앰불런스 요청전화는 193 이다.

3) 관광

관광지 이용 및 관광에 특별한 애로는 없다. 다만, 관공서와 군사시설 등은 보안을 이유로 사진촬영이 금지되어 있으며, 또한 최근 들어 테러 혹은 총기사고가 가끔 발생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항상 유의하여야 한다.

4) 팁 관행

정확하게 팁을 얼마 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관광여행 시 운전기사와 안내원에 대한 팁은 거의 고정 가격이라 부를 만큼 일상화 되어 있다.

그 외에 택시를 타거나 식당을 이용할 때에는 별도로 팁을 준비할 필요는 없다. 호텔이나 대형 쇼핑 센터에서 짐을 운반하거나, 호텔 및 대형 식당에서 주차를 지원할 경우에는 JD 1 정도의 팁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식수

수돗물은 석회가 많아 식수로 이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따라서 생수는 일반 슈퍼 등지에서 구입하여 이용하는 것이 좋다. 슈퍼나 가게에는 다양한 생수가 구비되어 구입에 큰 어려움이 없다.

6) 이발 및 미용

이발소와 미용실은 많아 이용에 불편함이 없다. 호텔 내 미용실의 경우 요금은 JD 25-30 수준이며, 이발 요금은 JD 2-5 정도 수준이다. 호텔 이.미용실을 이용할 경우에는 통상 5% 정도의 팁을 주는 것이 상례이다.

7) 약국 이용

시내에 산재하고 있는 “Pharmacy”에서 쉽게 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상비약의 경우 병원 처방전 없이도 구입이 가능하며 처방전의 유무에 따라 가격상의 차이는 없다.

8) 술/담배

주류와 담배는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영업소에서만 구입이 가능하다. 호텔 내 바 혹은 요식업소에서 음주도 가능하나 아랍 식당에서는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아랍 식당의 경우 술을 가지고 사서 마시는 것도 불가능함)

9) 선물 및 특산품

대형 쇼핑 공간은 부재하며, 관광지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규모의 선물용품 가게가 대부분이다.

전통 공예품 혹은 토산품은 질이 낮아 방문 한국인들이 구매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현지 특산품으로서는 사해제품 (Dead Sea Products; 비누, 머드 팩, 화장품 등 사해에서 추출된 물질을 배합하여 만든 제품), 모자이크 제품(마다바 지역 특산품), Sand Art(페트라 지역 특산품)이 대표적이다.

카. 유용한 연락처

1) 비상 연락처 (3-4단위 전화번호 제외, 지역 번호 06)

- 경찰 및 구조: 192
- 긴급 구조, 화재 및 비상사태: 199
- 응급: 195
- 앰불런스: 193
- 전화 수리: 1214
- 전화 번호 문의: 1212
- 쿤 알리아 국제공항: 445-2000
- Royal Jordanian 항공: 445-3200

2) 종합 병원 및 주요 병원 (지역번호: 06)

- Ahli Hospital: 566-4164
- Jordan Hospital: 562-0777
- Khalidi Hospital: 464-4281
- Malhas Hospital: 463-6140
- Shmeisani Hospital: 560-7462
- University Hospital: 535-3666
- Amal Maternity: 567-4150
- Farah Maternity: 464-4440
- Arab Medical Center: 592-1199
- Eye Specialty: 551-1176

3) 한국 기관 및 지상사 (지역번호: 06)

- 주 요르단 한국 대사관
 - 전화 593-0745/6, 팩스 593-0280,
 - E-mail: Jordan@mofat.go.kr
 - 대사: 신봉길, 참사관: 임갑수, 영사: 안치연
- 암만 무역관
 - 전화 583-1045 / 팩스 583-1015
 - E-mail kotraamm@wanadoo.jo
 - 관장: 권중현, 관원: 박철 차장

- 한인회: 회장 이태인 (Mobile: 077-777-0601)
- 암만 주재상사
 - 대우 일렉트로닉스: 583-2281 (지사장: 양길섭)
 - 삼성전자: 551-0071 (지사장: 전장섭)
 - LG전자: 568-4302 (지사장: 차국환)
 - LS전선: 583-1183 (지사장: 신상우)
 - 대우자동차 판매: 535-6115 (지사장: 김병호)
 - 현대건설: 552-6617 (지사장: 이영철)
- 기타
 - 요르단 대학교 한국어과: 535-5000 (책임 교수: 공일주)

타. 관광 명소

1) 페트라 (Petra)

암만시 남쪽 262킬로미터 지점에 위치해 있는데 암만 시내에서 자동차로 편도 3시간 가량이 소요되어 관광에 하루 전일이 필요하다. 영화 인디애나 존스의 촬영 장소로 사용되기도 하여 유명해진 곳이다. 페트라는 바위라는 뜻으로 기원전 600년에 나바티안족에 의해 세워진 교역 중심 요새도시이다. 에돔과 모압의 접경 지역에 위치한 페트라는 기원전 1400-1200년 기간 중에는 쉐라로 알려졌었으며 기원전 600년-기원후 100년 기간 중에는 에돔족과 나바티안족의 수도였다. 기원후 106년에 로마군에 의해 점령되어 제라시-다마스쿠스를 잇는 교역의 중심 도시가 되었으나 로마제국의 멸망과 수자원의 고갈로 폐허 도시가 되었다. 페트라는 암벽을 깎아 만든 각종 신전 및 무덤들이 자연 소재 그대로의 색상과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구약시대 모세의 형 아론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2) 사해 (Dead Sea)

사해는 말 그대로 죽은 바다를 의미하는데 아주 옛날에는 바다이던 곳이 막힌 후 바닷물의 유입이 없게 되자 소금의 농도가 매우 높아지게 된 죽어버린 바다라고 할 수 있다. 암만 시내에서 자동차로 편도 약 40분이 소요되어 반나절 관광이 가능하다. 현재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그만큼 산소가 많은 지역이다. 사해는 길이 65킬로미터, 폭 16킬로미터의 규모로 해저 400미터 지점에 위치하며 보통 바다보다 약 5-6배의 염도를 함유하여 어떠한 생물도 생존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각종 유기물을 함유하여 피부병 및 류머티즘에 효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구라파 등의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있다. 1924년 사해 동남쪽에서 기원전 2500-2000년경의 유물이 발견되어 기원전 2000년 까지는 주거지였으나 갑자기 폐허가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의 사해에 잠겨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사해 남쪽 끝에는 롯의 아내로 유명한 소금 기둥이 많이 남아 있다.

3) 제라시 (Jerash)

암만시 서북쪽 48킬로미터 지점에 위치해 있는데, 암만에서 자동차로 5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반나절 관광이 가능하다. 기원전 332년경 알렉산더 대왕이 기초를 세운 도시로 SELEUCID 시리아 왕에 의해 발전되었고 기원전 63년에 폼페이 로마 왕에 의해 수도로

사용되었다가 나중에 데카폴리스(10개 위성 도시중의 하나)가 되었다. 기원 후 1-2세기가 전성기였으며 6세기경에는 14개의 기독교 교회가 있을 정도로 기독교가 융성하였다. 1806년 독일인에 의해 발견되어 1902년부터 발굴이 시작되었다. 로마의 위성 도시로서는 전체가 원형 그대로 보존된 유일한 유적지로 알려져 있다.

4) 느보산 (Mt. Nebo)

암만 남쪽 약 25 킬로미터 지점에 위치해 있는데, 암만 시내에서 자동차로 4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신명기 34장에 언급된 것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 시킨 후 이곳에서 120세의 나이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죽었다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곳에는 기원후 6 세기경의 모세 기념 교회가 남아 있으며 근처에는 당시에 모세가 물이 나오도록 했다는 모세의 샘이 있다. 모세 기념관 앞에는 뱀 모형의 모조 돛뱀 탑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모세가 불 뱀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지킨 것을 상징하고 있다.

5) 기타

와디 럼, 와디 무집, Baptism Sites, 마인 온천 등